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기획 **아름다운재단·아시아의 창** 글 김나희 공익광고기획자, 국제개발협력NGO 봉사자로 활동했었고, 현재 아시아의 창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창의적인 시도를 좋아하고, 그 시도가 세상에 따뜻함을 더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 박효원

바꿀 수 있다고, 아직도 믿는다.

글을 만들고 쓰고 다듬는 일을 좋아한다. 때로는 좋은 글이 사회를



여는글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에 상담을 하러 온 이주민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이주아동을 받아 주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센터가 함께 여러 곳을 알아 봐도 이주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주변 이웃이나 같은 국적 친구들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동 혼자 집에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창은 결심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자! 그렇게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을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처음 해 보는 이주아동 보육은 참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이어졌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모두 새로운 시도였고 모험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주아동과 함께 하는 보육교사들도 같은 모험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너무 힘들고 외로운 것도, 그때마다 아동들을 보면서 다시 기운을 내는 것도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아시아의 창과 여러 다른 어린이집의 도전과 경험들을 기록해 책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현장의 다른 보육교사들은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이주아동과 교사들이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난 3년 간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과정을 모니터링한 기록, 오랫동안 이주 아동을 돌보아온 여러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가이드북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이주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 많은 자긍심과 보람,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이드북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아름다운재단, 책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고생해 준 이형명 간사님, 박효원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격려와 응원을 보내 준 아시아의 창 이영아소장님과 사무국 식구들, 임원, 회원 및 후 원자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이주아동 보육의 가치를 널리 나누기를 바라셨던 아시아의 창 배상윤 전 원장님, 언제든 자문에 응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준 안산 코시안의 집 김영임 원장님, 안산시립대부 어린이집 정소희 원장님,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주아동을 보육하고 계실 모든 교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019년 3월 가 올림

인사말

'모든 아동들은 충분한 보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한다.' 아마도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아동 역시 한국 국적 아동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더 힘든 환경에 놓인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견디면서 어렵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어려움은 아동의 결핍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보육교사들이 이주아동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해 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메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저는 무한한 존경심을 느낍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교사들과 보육 관계자 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이주아동과 함께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주아동 보육 현장의 노력과 경험, 지식을 이 책자 안에 최대한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눈 내린 벌판에 발자국을 남기는 마음입니다.

저희의 발자국 위에 더 많은 발자국이 더해지고 이어진다면, 기어코 길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발걸음을 떼었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한없는 존경을 보냅니다.

아름다운재단사무총자 권 찬

감사의 말

우리들은 조금은 낯선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소박한 마음으로 '사단법 인 아시아의 창'을 만들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열정과 지혜가 모자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수많은 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 저희들은 이제 어색하지 않은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차츰 그들의 아이들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눈에 뜨이지 않은, 그러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낯선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역시 많은 분들이 길동무가되어 주어 마침내 나름대로 탄탄한 어린이 집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배우고 익힌 지혜와 경험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도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저희들과 같은 일을 하려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합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의 경험을 통하여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여러 분들이 함께 함으로써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주위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의 정성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사장 이 영진

일러두기

이주민센터 활동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보육교사가 아닌 이주민센터 활동가가 기록하고 작성한 가이드북입니다. 보육 교사가 쓴 가이드북과는 관점과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인터뷰와 실제 경험에서 나온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동의없이 사례와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주아동을 보육하는 여러 어린이집들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이주아동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 의 상담 자료이기 때문에 아동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가이드북에 실 린 아동들의 사진들은 모두 부모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된 사진입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아시아의 창의 동의 없이 본 서적의 편집·활용을 금 합니다.

CONTENTS

여는글	002
인사말 감사의 말	004
[파트1] 이주아동 가깝게 알기	
1. 이주아동의 정의	012
2. 이주아동 현황과 유형 1) 이주아동의 현황 2) 이주아동의 유형	014 017
3. 이주아동 보육 실태 1) 이주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이유 2) 이주아동의 가정 육아 환경	022 027
4. 이주아동의 권리 1)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이주아동의 권리 2) 국내법 제도에 나타난 이주아동의 권리	029 031
아시아의 차 러신이집 이야기 곰팡이 가득한 집에서 살던 다트가 건강해졌어요	035
[파트2] 이주아동과 즐겁게 지내기	
 언어 및 의사소통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아동 한국어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아동 한국어 단어확장이 어려운 아동 부모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아동 	040 044 046 049
2. 생활지도 1) 가정환경의 이해 (원아 적응 프로그램) 2) 기본생활습관 지도 (날씨와 옷, 위생, 식사, 규칙과 질서) 3) 아동 상황에 따른 생활지도	054 059 083

3. 보육 프로그램	
1)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	091
2) 신체활동 프로그램	100
3) 야외체험학습 프로그램	104
4) 연계 보육 프로그램	114
4. 건강관리	
1) 질병·사고 시 대처	123
2) 자가 건강관리	131
3) 심리상담	142
5. 친구관계	
1) 언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아동	147
2)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주아동	150
3) 언어가 통하는 친구하고만 노는 아동	153
4) 오감으로 다름을 경험하는 이주아동	155
6. 학부모	
1) 부모와의 소통	160
2) 갈등문제 해결	163
3) 부모 참여 활동	170
otriofor 각} 어덩이것 이야기	
'바로 이 맛 보육교사, 외부연계기관들이 말하는 '이주아동 보육' 말말말	190
[파트3]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기	
[1=0] - 1 -1 -1 -1 -1 -1 -1 -1	
1. 어린이집의 유형	
1)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	194
2) 다문화 통합 보육을 특화한 어린이집	199
3) 일반 어린이집	202
2.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설립	
1) 인가 여부 결정	204
2) 위치 선정	209
3) 설계·시공업체 선정	211
4) 공간 구성	212

3.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수립	
1) 반 편성	219
2) 입소 순위	221
3) 보육 운영 시간	222
4) 보험	224
5) 통원차량	226
6) 보육료	228
4. 원아 모집 및 입퇴소	
1) 원아 모집	231
2) 입소	233
3) 퇴소 및 결석	237
5. 보육교사	
1) 이주아동 보육교사 채용	240
2) 이주아동 보육교사의 역량	242
3) 이주아동 보육교사를 위한 노동 환경	245
4) 이주아동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	246
5) 이주아동 보육교사들을 위한 보상과 동기 부여	252
6. 자원 활용과 모금	
1) 외부 기관과 연계한 자원 활용	255
2)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기부자 모집	273
아시아의 상 러신이집 아마기 이주아동과 함께 울고 웃다 보니 어느새 '인가 어린이집'	281
[부록]	
아름다운재단·아시아의 창 담당자 이야기	287
참고할 만한 정보 (이주민 지원기관 정보)	294
기관 및 재단 소개	298
참고문헌·도움주신 분들	304



이주아동 가깝게 알기

1. 이주아동의 정의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민', '이주아동'이라는 말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정의와 해석은 다소 복잡합니다. 관련 법률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재한외국인의 자녀',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표현이 모두 이주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의미상으로 이주아동은 '이주'와 '아동'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주'는 거주하는 국가를 바꾼 경험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아동의 경우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주한 경우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은 흔히 청소년 이전 연령대의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주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며 본인 혹은 부모가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북은 보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를 뜻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으로 아동의 나이를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주 배경의 유형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으로만 내용을 제한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아동도 상황이 열악하지만 보육료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무런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보육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북에서 '이주아동'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뜻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이주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들]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동들은 대부분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의 자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없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의 '재한외국인 자녀' 중 청소년, 탈북 청소년, 그 밖에 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한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2. 이주아동 현황과 유형

1) 이주아동의 현황

(1) 이주아동의 규모

2018년 12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등록외국인 지역별·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이주아동은 약 10만 3천명이며, 이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미취학아동의 수는 약 5만 1천명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내 이주아동을 모두 파악한 자료는 아닙니다. 외국국적 동포가 하는 거소신고 사례,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례 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미취학 이주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이주아동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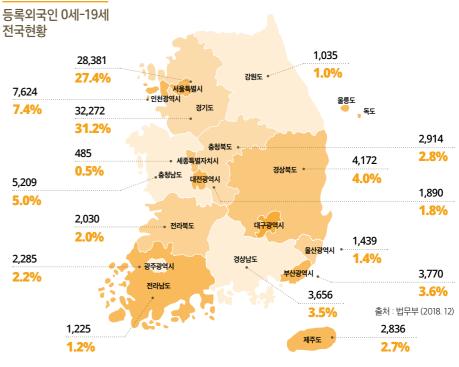
앞선 법무부 통계자료를 보면 경기도(31.2%)와 서울시(27.4%)에 이주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주아동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를 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42개시군구 중에서 안산시 단원구(13.9%)와 시흥시(10.5%), 부천시(8.3%)에 이주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 0세-19세 지역별 현황 (2018년 12월 말)

지역	총계 (0세-19세)	비율
강원도	1,035	1.0
경기도	32,272	31.2
경상남도	3,656	3.5
경상북도	4,172	4.0
광주광역시	2,285	2.2
대구광역시	2,209	2.1
대전광역시	1,890	1.8
부산광역시	3,770	3.6
서울특별시	28,381	27.4
세종특별자치시	485	0.5
울산광역시	1,439	1.4
인천광역시	7,624	7.4
전라남도	1,225	1.2
전라북도	2,030	2.0
제주도	2,836	2.7
충청남도	5,209	5.0
충청북도	2,914	2.8
총계	103,43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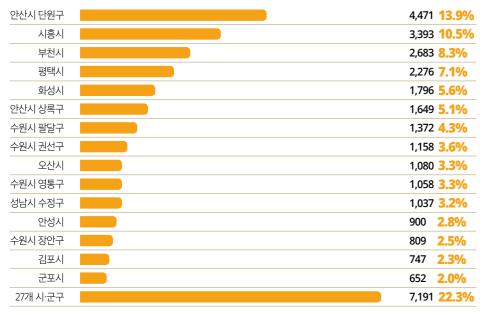
경기도 시군구	총계 (0세-19세)	비율
안산시 단원구	4,471	13.9
시흥시	3,393	10.5
부천시	2,683	8.3
평택시	2,276	7.1
화성시	1,796	5.6
안산시 상록구	1,649	5.1
수원시 팔달구	1,372	4.3
수원시 권선구	1,158	3.6
오산시	1,080	3.3
수원시 영통구	1,058	3.3
성남시 수정구	1,037	3.2
안성시	900	2.8
수원시 장안구	809	2.5
김포시	747	2.3
군포시	652	2.0
27개 시·군구	7,191	22.3
총계	32,272	100

출처 : 법무부 (2018. 12)



출처 : 법무부 (2018. 12)

등록외국인 0세-19세 경기도현황



출처 : 법무부 (2018. 12)

2) 이주아동의 유형

(1) 출생지에 따른 유형 분류

'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조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가 63.4%이며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은 36.6%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이주아동들은 한국 국적 아동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해외 출생

- 이주민 부모와 함께 한국에 동반 입국한 아동
- 이주민 부모와 떨어져 부모의 모국에 살다가 이후 한국에 입국한 아동

한국 출생

- 이주민 부모가 한국에서 낳아서 한국에서 성장한 아동
- 이주민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뒤 부모의 모국에서 성장해 한국에 재입국한 아동

해외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은 대부분 이주민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이주민 부모가 한국에 먼저 자리 잡은 뒤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주아동은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재입국 허가를 받은 자 등) 모두 비자를 가지고 입국합니다. 그러나 입국 후 부모의 체류 상황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해 '외국인 미등록 아동'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은 이주민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낳은 자녀입니다. 이런 아동들은 대부분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동이 한국에서 자랐다고 해도, 주로 가정에서만 생활했다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고 부모의 모국 음식을 주로 먹으면서 같은 국적 출신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아동들이 모두 한국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모 국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입국하기도 합니다.

주로 자녀가 너무 어리다 보니 보육료가 부담되어 모국의 친척들에게 맡겼다가 초등학 교 입학 시기에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아픈데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 본국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한 뒤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국적 및 출생등록 여부에 따른 유형 분류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 부모를 둔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을 가 질 수 없으며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국적을 물려줍니다.

외국 국적 아동

• 부모의 국적국에 출생등록을 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무국적 아동

•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어떤 나라의 국적도 갖지 못한 아동

하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국적국 대사관에 출생사실을 신고하는데, 이 경우 아동 들은 부모와 같은 국적을 갖게 됩니다. 국적이 있으면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면 아동 역시 한 국에 외국인으로 등록할 수 없어 미등록 이주아동이 됩니다.

아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아돗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의 국적국 대사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사관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국의 박해를 받아 피신한 난민은 대사관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때 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난민 아동의 50% 이상이 사실상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적이 없으면 아동은 어떤 나라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어려 운 것입니다. 또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도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예 이 같은 서류를 발급받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병 원에서 발급해 준 출생증명서를 대신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국내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나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외국인 등록의 유무를 떠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출생신 고나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 상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을 하여 법적 신분을 갖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체류자격 유무에 따른 유형 분류

외국인 등록 아동

• 한국 법무부 출입국과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아동

외국인 미등록 아동

• 부모가 미등록이라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거나 비자가 만료되어 체류기간을 넘긴 아동

한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 국인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해당 이주민의 성명, 국가, 체류자격,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이 중에서 외 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13자 리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이주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등록 이주민'입니다. 부모가 미등록 상태라면 아동도 법무부에 외국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 동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외국인등록번호도 발급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도 보

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고유식별 번호를 부여해 시스템에 아동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육·교육·건강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대부분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동은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어 린이집에서 야외체험을 하면서 차량 이동을 위해 여행자보험을 들 때도 미등록 이주아 동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비급여로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며, 미등록 이 주아동 치료를 위한 예비비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주민들은 왜 미등록 상태나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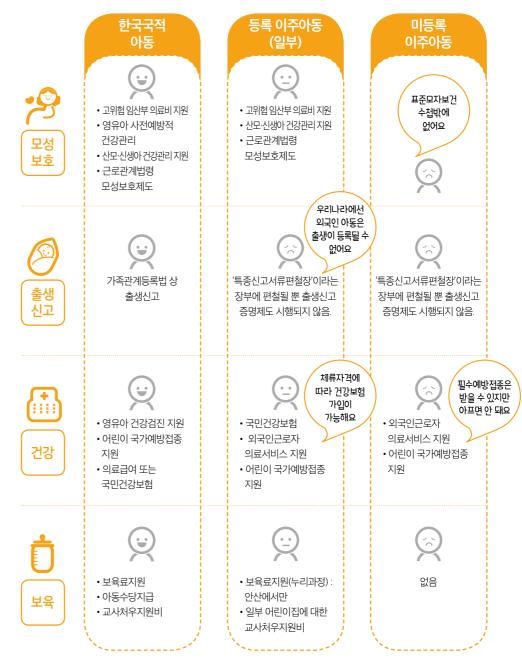
한국에 입국하는 이주민들은 본국에서 미리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국에 들어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체류 자격에 따라서 1년에서 5년 사이입 니다.

이주민들은 체류 기간 내에 비자의 유효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에 따라서 체류가 가능한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자를 갱신할 수 없습 니다. 만일 이 기간을 초과해 한국에 머물게 되면 미등록 상태가 됩니다.

또한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잠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데, 이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비자 변경 없이 90일을 넘겨 체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미등록 상태가 됩니다.

한국아동 · 이주아동 관련 제도 비교표

한국에서 이주아동들은 어떤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나요?



출처: 이주아동 법률연구 사례집 (2018. 12) 경기도이주아동네트워크

3. 이주아동 보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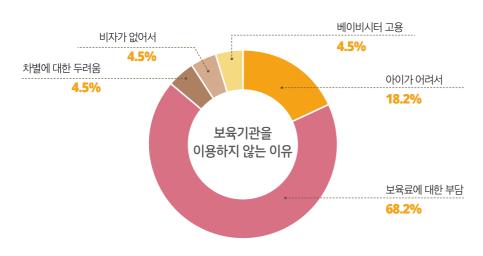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이주아동의 규모

'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아동 수는 약 3만 3천명인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 아동은 약 1만 5천명에 불과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약 45%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셈입니다.

1) 이주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이유

(1) 높은 보육료 부담

앞선 경기도의 모니터링 조사에서 이주민 부모 145명에게 물어본 결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보육료 부담(68.2%)'이라는 응답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017)

이 조사에서 이주아동이 납부한 월 평균 보육료는 약 2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는 교회 등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보육기관에 다니거나 종교기관 및 NGO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미인가시설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지원 없이 인가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아동이라면 월 평균 보육료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는 한국 국적 아동의 월 평균 보육료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 육아 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한국 국적 아동의 월 평균 보육료는 약 6 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주아동의 보육료가 한국 국적 아동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은 셈입니다.

이렇게 보육료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상 이주아동은 보육료를 거의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방식별로 나눠 보면 현행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계좌에 지원금을 넣어주는 방식의 '기본 보육료', 부모의 아이행복카드 계좌에 지원금을 넣어주는 '부모 보육료',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차액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 보육료는 국적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보육료는 한국 국적 아동에게만 지원됩니다. 특히 아동의 연령 대가 어릴수록 부모 보육료가 높다보니 이주민 부모들의 부담은 매우 커집니다.

실제로 만 2세 아동의 2019년 예상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적에 따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무려 6배 가깝게 차이가 납니다.

국적에 따라 비교한 만 2세 아동의 2019년 예상 어린이집 보육료



(2) 이주아동에게만 높은 어린이집 진입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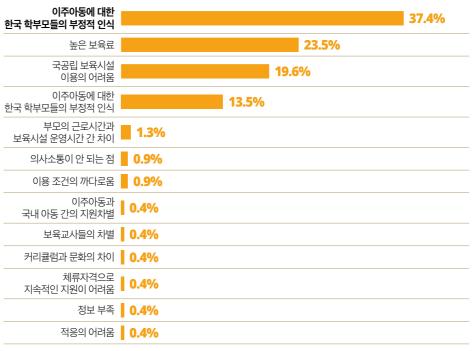
요즘에는 이주아동의 입소를 받아 주는 어린이집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인의 출산율이 줄어들고 외국 국적 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집이 이주아동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2018 국내 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보육 시설 경험이 없는 국내 체류 이주아동 267명 중 14명(5.2%)은 '입소를 거부당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17년 경기도 모니터링 조사에서 이주민 부모들에게 지금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 관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입소를 허락해 줘서(21.7%)'라는 응답이 '집에서 가까워서(21.7%)'라는 응답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아동 보육활동을 하는 관계자들은 이주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한국 학부모들의 부정적 인식(37.4%)'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조사한 '보육시설 이용 시 어려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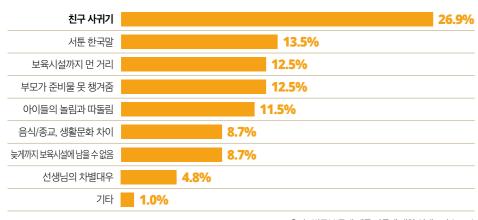


출처: 법무부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2018)

이는 지금도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이주아동이 어린이집 입소를 거절당하고 있으며, 아동을 입소시키고 싶어도 한국 국적 부모들의 불만으로 입소를 받아 주지 못한다는 것 을 나타냅니다.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어린이집에 이주아동을 입소시켜도 곧 새로운 난관에 부딪힙니다. 2018년 법무부 조사에서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주아동의 부모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이주아동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친구 사귀기(26.9%)'였습니다.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육시설 이용 시 어려웠던 점'



출처: 법무부 국내 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2018)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4세 아동은 또래 아동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놀이를 좋아할 시기이지만 이주아동과 함께 놀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명의 아동들이 협동놀이를 하면서 이주아동만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위 조사에 따르면 이주아동의 '서툰 한국어'로 인해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아동들이 '피부색이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는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으로 이주아동을 피하기 때문에 이주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주아동의 가정 육아환경

(1) 부모의 장시간 노동

한국에서 일하는 대다수 이주민들은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합니다. 아예 야근이 기본 조건인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이주민 부모들은 최소한의 육아 시간을 내는 것조차 매우 버겁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고용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3명(28.7%)은 주당 60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일 근무라면 하루에 12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는 합법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열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주민 부모들은 자녀를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저녁 늦게 데리라 옵니다.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너무 피곤한 상황이기에 집에 돌아가서도 부모는 자녀와 제대로 놀아 주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부모의 육아정보 부족

낯선 땅에서 외롭게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제대로 육아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 국적 부모들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쉽게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주민 부모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어로 정보를 찾거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 출신이라면 모국어로 검색을 해도 좋은 정보가 잘 나오지 않고한국에서 모국어 육아 서적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봐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육아 경험이 풍부한 같은 국적의 이웃이나 친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사정이 비슷비슷해서 좋은 정보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물어 봐도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정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육아 정보를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교사들과 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건강을 해치는 주거환경

이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주거환경도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고시원(42.0%)이나 컨테이너(12.5%), 지하·반지하(12.5%) 등의 취약한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이런 집들은 곰팡이가 피거나 쥐·바퀴벌레가 나오고 햇볕이잘 들지 않으며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2018년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기르는 이주민 부모들은 거주지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으로 소음, 악취, 잦은 침수피해 등 '열악한 생활환경(23.8%)'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이주아동들은 당연히 장염, 폐렴 등의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4. 이주아동의 권리

1)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이주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한국도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했기에 협약 내용에 따라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 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 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2조 1항

협약은 이와 같이 비차별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국가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아동들은 보육과 교육을 누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며,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보육은 이주아동도 함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 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양심과 종교의 자유·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입국 정부는 5년마다 아동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많이 다릅니다. 이주아동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미등록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권리 보장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육 관련 법제도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 아동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자라나는 이주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영유 아기에 돌봄을 통한 적절한 외부 자극을 받지 못하면 발달이 느려질 수도 있지만, 이주 아동은 제대로 보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2) 국내 법제도에 나타난 이주아동의 권리

실제로 정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들 중 이주아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한 국 국적 아동과 비교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육과 양육



출처 :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참고

이렇게 보면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아동수당은 난민 인정을 받은 극소수 아동들에게만 해당되며 등록 이주아동 이라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주아동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와 저소득층 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신과 출산 이주아동 이주아동 (임신출산 체류자격에 따라 제한 바우처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만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및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제조분유 (부 또는 모가 지원 하국 국적이어야 함) (고위험 임산부 체류자격에 따라 제한 (F-2(거주), F-5(영주), 의료비 F-6(결혼이민)만 가능) 지원

출처 :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참고

미등록 이주민은 이 같은 서비스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전혀 없으며, 등록 이주민 역시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임신·출산 바우처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한국인과 결혼했거나(결혼 이민) 영주권을 취득했거나(영주) 5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에 체류한 경우(거주)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아동은 더 많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사회서비스 체계에서는 이처럼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은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 확대를 주 장해 왔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보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6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곳에 대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에는 아동의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하도록 행정 권고를 합니다.

2017년 경기도 보육사업 기준 해당 사업은 74곳의 어린이집, 76명의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아동의 수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이조차 없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한 걸음 나아간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주노동자 자녀를 전담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이주아동의 수에 따라 최대 3인까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한국국적 아동이 포함된 통합 어린이집은 이주아동의 수와 상관없이 교사 1인의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전국에서 이주아동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2018년부터 만 3~5세 외국인으로 등록한 이주아동에 대해서 매월 22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는 미취학 아동 전 연령층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자체가 이주아동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주아동이 많이 거주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안산시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6,226개 시내 어린이집 중 53개 어린이집을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주아동들도 이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경기권 이주아동보육 네트워크'가 만들어 졌습니다. 경기도 이주아동보육 네트워크는 이주아동 보육권리 법률 사례 연구집을 발간했고,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도 만들어 제정 촉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이주아동들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평 등하게 보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장의 어린이집들이 이주아동들을 더 많이 감싸 안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주아동 사례

곰팡이 가득한 집에서 살던 다트가 건강해졌어요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 다닌 다트는 2013년 1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격이 여려서 조그만 일에도 울곤 하지만 그만큼 정도 많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도 잘 웃어 주고 잘 안기는 애교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트이지만, 생애의 첫 시작은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엄마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 사회는 참으로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였을 때 다트는 자주 아팠고 폐렴으로 2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에 병원비는 무려 300만원. 한국 국적의 중산층 가족에게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미등록 이주민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트가 자주 아픈 이유가 바로 주거 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다트네 집을 방문한 어린이집 교사는 집 안 풍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방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튼튼하게 자랄 리 없었습니다.

만리타향에서 독박 육아하는 맞벌이 초보엄마

당장 이사를 가는 게 나을 정도로 다트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집 구조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으니 집주인의 귀책사유도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이에 대해 제대로 따지거나 계약기간보다 빠른 이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직접 나서서 벽지를 닦아냈습니다.

다트의 부모는 주거환경이 다트를 아프게 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육아를 도와 주거나 지식을 가르쳐 줄 친정엄마도 친척도 한국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트 엄마는 만리타향에서 외롭게 아이를 기르는 초 보엄마인 데다가 거의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다트 아빠는 멀리서 기숙하면 서 야간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다트 엄마 역시 공장에 다니 면서 맞벌이를 했습니다.

다트 엄마가 한 달에 받는 임금은 고작 100만원. 미등록 이주민들에게도 너무 낮은 임금이지만, 대신 이 공장은 엄마의 사정을 좀 봐 주는 편이었습니다. 어떤 공장은 아예 휴대폰을 반납해서 어린이집의 긴급호출도 받을 수 없는데, 이 공장은 아이가 아플 때 조퇴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임금이 높은 공장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 같은 상황의 다트와 엄마를 보듬어 안았습니다. 자주 아픈 다트를 오랫동안 돌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 먹였습니다. 다트 엄마에게도 여러 가지 육아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닌 지 5년째가 되는 다트는 이제 꽤 건강해졌습니다. 또래보다는 조금 몸이 작고 약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외부 활동을 조금만 해도 쉽게 지쳤는데, 이제는 끝까지 활동을 즐깁니다.

안타까운 생이별... 어린이집 (데 나가는 아동들

불행하게도 모든 이주아동들이 다트처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트처럼 꾸준히 몇 년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아동은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심지어 몇 달도 안 돼서 그만 두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역시 인원 수 변동이 잦은 편입니다. 돌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결국 멀리 본국으로 떠나보내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야근과 잔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아기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도 드물고, 매일 야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하자니 생계가 불안합니다. 결국 엄마는 생이별을 택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다가 단속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켄트는 생후 30개월에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 처음 왔는데, 그때까지 젖병을 물고 있었습니다. 켄트의 주식은 코코아를 탄 분유였습니다. 언어도 '엄마' 정도만 겨우 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입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기도 했습니다.

켄트의 부모는 주야로 교대근무를 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변 어린이집을 알아봤으나 40군데를 전화해도 이주아동을 받아 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켄트는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개별화 교육을 받았고 발달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한국 국적 아동들이 있는 일반 어린이집에 옮겼다가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사에게 심하게 맞은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했지만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 다니기 위해 자리를 기다리던 켄트는 2015년 부모의 모 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인 켄트 엄마가 단속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켄트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동이지만 한국 국적 아동과 이주아동의 삶은 이토록 다릅니다. 단지 국적이 다르고 부모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이주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아동에게 어린이집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이주아동들이 최소한의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다른 아동과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주아동과 즐겁게 지내기

1. 언어 및 의사소통

보육교사가 이주아동을 보육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언어와 의사 소통 문제입니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 면 아동들과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이집에 다녔거나 부모가 한국어에 능숙한 이주아동이라고 해도 한국어 실력이 서툰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상황'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관련 사례, 상황별 의사소통 및 가정연계 방식을 소개합니다.

1)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아동

아동이 중도입국을 한 경우 혹은 가정에서 부모의 모국어만 사용하며 지낸 경우에는 한 국어가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아동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사용해 감정과 욕구를 표출합니다. 베트남에서 중도 입국한 린(만 3세)은 배가 고프면 사물함에서 도시락을 꺼 내 흔들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 문을 흔들어 소리를 냅니다. 말이 안 통하다 보 니 아동 스스로도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난감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3년 간 가정에서 엄마와 지내다 입소한 필리핀 국적 아동 주디(만 3세)는 다른 아동들에 게 타갈로그어나 영어로만 말을 겁니다. 아동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주디는 친구들을 꼬집거나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보유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 소통합니다

아동의 비언어적 표현을 교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 때 아동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신호를 만듭니다. 이런 신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역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 몸으로 함께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안 돼요' 라고 하기보다는 손가락으로 X자를 만들어 함께 보여 줍니다. 아동이 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교사의 눈빛과 표정도 함께 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아동은 보다 쉽게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 행동을 하게끔 하면서 생활습관을 가르치면 한국어는 물론 규칙을 익히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점심식사 후 도시락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가르칠 때는 교사가 직접 아동의 손을 잡고 뚜껑 닫기, 주머니에 넣기, 지퍼 닫기 등의 활동을 함께 하면서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 하는지, 지퍼는 어떻게 여는지 등의 방법을 아동이 직접 느끼게 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줍니다

부모의 모국어에 없는 발음이 한국어에는 있을 수 있고 같은 단어라도 부모의 발음이 달라 아동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땐 교사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필요한 물건을 가리킬 때마다 "물이 먹고 싶었구나.", "토끼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었구나."라고 사물의 명칭과 아동의 욕구를 함께 말해 주면 아동은 교사와의 일상적 인 대화를 통해 보다 편안하게 한글 단어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먼저 알려 줍니다

아동이 최소한의 자기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싫어', '좋아'라는 단어부터 우선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들은 사물의 이름을 모를 때보다 감정 전달을 하지 못할 때 더 답답해합니다.

표정이나 상황이 그려진 감정카드를 사용해 '속상해요', '화가 났어요', '아파요', '졸려요', '재미있어요' 등의 감정의 이름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감정카드를 활용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감정카드의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 화가 났다고 가정하고 카드를 찢거나 뿌리는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이 처한 상황에 교사가 직접 개입해 "OO야, 속상했구나. 이럴 때는 '나 화가 났어, 하지 마.'라고 말해야 친구가 OO의 마음을 알 수 있어."라고 직접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연계

가정에서는 부모가 편한 언어로 대화하게 해 주세요

가정에서 한국어만 사용해 자녀와 대화하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빨리 향상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편하게 자신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과 부모의 언어소통은 정서적 소통이기도 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될 때에도 아동은 부모의 표정만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가 서툰 한국어로 긴장하면서 이야 기를 하면 불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아동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아동에게 공부 처럼 느껴집니다.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한국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충분 히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모국어로 아동과 편하게 대화하도록 교사 가 잘 안내해야 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한국어로 교사와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들 과 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부모에게 보여 주면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레 두 나라의 말을 모두 익히게 됩니다. 부모에게 이같은 장점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어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아동

아동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데, 한국어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이 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확한 뜻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가 한국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올바른 설명을 해 주지 못하면 아동 역시 잘 못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 아동 후이(만 1세)가 어린이집에 입소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후 이의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고, 교사들도 '후이가 한국어를 정말 잘 하 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주의 깊게 관찰해 보니 후이가 단어의 뜻을 잘못 인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후이가 장난감 블록으로 만든 카메라를 가지 고 마치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것처럼 '슝-슝-' 하는 소리를 내면서 노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일상적 단어부터 다시 가르쳐 줍니다

아동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에 있는 물건부터 시작해 단어의 인지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실물과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교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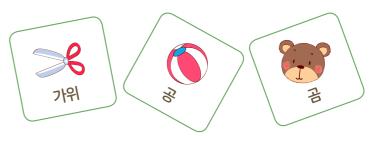
아동이 오랜 시간 잘못된 뜻으로 단어를 인지해 온 경우에는 이를 바꾸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실물과 이미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직접 이 름표를 붙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 벽에 해당 단어의 그림과 이름표를 함께 붙여 놓을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동이 사물의 정확한 이름을 자주 보게 되고 교사와도 해당 단어에 대해 더 자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단어카드를 만들어 가정에 보냅니다

부모가 제대로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림 단어카드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단어카드를 보육시간에 아동과 함께 만들어 보내면 아동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카드에 애정을 가져 집에서도 카드를 자주 들여다보면서 부모와 함께 단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부모 참여 수업 방식으로 부모가 아동과 함께 그림 단어카드를 만들면 수업 과 정에서도 부모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무엇이 있을까' 활동을 합니다

아동은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사물의 이름을 궁금해합니다. 부모에게도 집에 있는 가구나 물건들의 이름을 물어 보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질문에는 잘 대답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만 한국어가 서툰 부모들은 제대로 답을 해 줄 수 없어 매우 난감해합니다.

이럴 때 교사가 부모에게 집에 있는 가구나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사진들을 출력해 아동과 함께 '우리 집에 무엇이 있을까' 놀이를 하면서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고 사진에 한글로 이름을 적어 부모에게 보내 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3) 한국어 단어 확장이 어려운 아동

아동이 한국어도 잘 하고 단어의 뜻도 제대로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한국어의 범위와 분야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의 폭이 좁다 보니 단어의 폭도 좁은 것입니다. 특히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던 경우나 부모가 주야 교대로 일을 하느라 아동과 충분히 대화를 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한국 국적 아동들은 일상적으로 놀이터, 키즈카페, 공원, 친척집 등 다양한 공간을 경험 합니다. 그러나 이주아동들은 보통 부모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기 때문에 평일에 다른 곳에 다니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주말에 자녀와 외출할 때에도 가는 곳은 대부분 대 형 마트 혹은 지역 내 같은 국적 사람들의 커뮤니티 모임뿐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부모와의 대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이거'. '저 거'라고 지시대명사 위주로 한국어를 구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한국어 단어 실 력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원할 때 아동이 신발 좌우를 바꿔 신자 부모가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신 어야지." 아동이 가방을 스스로 매려는데 왼쪽 끈을 오른쪽 어깨에 메자 다 시 부모가 말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화는 시작부 터 끝까지 지시대명사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제일 잘 하는 말도 '이거', '저거', '이렇게', '저렇게'이고 정확한 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실내외 프로그램으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이주아동들은 다양한 한국어 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럼 때 가장 좋 은 방법은 다양한 실내외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첫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외부 프로그램이 2배 정도 많습니다.

도서과·놀이터 등 지역 공공시설도 자주 이용합니다. 시골이나 목장 같은 자연환경이 있는 곳에도 가고, 키즈카페처럼 한국 국적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갑니다.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후로는 관련 언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목장에 가기 전 날에는 목장, 소, 우유, 치즈 등에 대해 함께 가르치면서 관련 단어도 알려 줍니 다. 이렇게 하면 아동들은 새로 배운 단어를 다음 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 분야의 연령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 고등학 생,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봉사자가 참여하면 좋습니다.

이주아동들은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좁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교사와 또래 아동 들을 제외하면 부모와 같은 국적의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다양한 자 워봉사자들과 아동은 더욱 다양한 한국어를 접할 수 있으며 사회성도 함께 발달합니다.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사는 아동이 가리키는 사물 또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동이 '이거' '저거'라고 말할 때에도 그에 해당하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아동이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사가 먼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 주면, 아동이 새로운 단어 를 배울 기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교사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대부분 공공시설 이용을 두려워합니다. 도서관 안에서 책을 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데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야외 나들이를 다녀온 뒤에도 부모에게 해당 장소에 대한 사진을 보여 주면서 교통편, 가격 등 구체적 정보도 알려 주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자녀의 나들이에 함께 하는 것도 부모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 부모는 단속이 두려워 야외 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 교사 인솔 하에 단체로 나들이를 가면 단속의 염려가 없어 안전합니다.

지시대명사보다는 모국어 명사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모가 사물의 정확한 한국어 명칭을 모를 때에는 모국어 명칭으로 말하도록 교사가 안내해 줍니다. 아동이 신발의 좌우를 바꾸어 신을 때도 '이거 이렇게 신어야지'가 아니라 '왼쪽 발에 왼쪽 신발을 신어야지'라고 모국어로 전달하도록 도와 줍니다.



4) 부모보다 한국어를 잘 하는 아동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7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닌 베트남 국적 아동 호 안이가 5살이 되던 해입니다. 어느 날 호안이가 울면서 등원을 했습니다. 엄 마는 "말 안 들어서 아침에 혼냈어요."라고 말한 뒤 일하러 갔습니다. 교사는 호안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많이 속상한 일 있었어?"라고 물 어봅니다. 호안이는 "엄마는 내 말 못 알아들어요."라고 말합니다. 호안이는 이제 부모의 한국어가 서툴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은 대체로 또래 한국 국적 아동과 한국어 실력이 비슷하지만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적습니다.

이주민은 주로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본국의 식자재를 파는 상점 등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한국 사람들과 언어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국적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이 6~7세가 되면 부모보다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이 한국어를 잘 하게 되면 생활이 더 편해지지만, 부모의 한국어가 서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 보육

부모보다 한국어를 잘 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알려 줍니다

아동은 자신이 부모보다 한국어를 잘 하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보다 한국어를 잘 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교사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아동 의 한국어 실력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가 모기에 많이 물려 가정에서도 약을 발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OO야. 오늘 우리 숲체험 갔는데 모기에 많이 물려서 힘들었지? 오늘집에 가는 길에 엄마랑 약국에 가서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약 주세요. 제

가 바를 거예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바르는 모기약을 주실 거야. 선생님이 엄마한테도 이야기할 건데 OO는 한국어를 아주 잘 하니까 쉽게 살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지?"라고 말해줍니다.

다음 날 아동이 집에서 모기약을 잘 바르고 오면 '우와, OO가 한국말을 정말 잘 해서 모기약을 샀구나! OO이 없었으면 엄마가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했어! 멋지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모국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줍니다

모국어에 대해 아동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부모 나라와 언어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 아동과 교통수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는 "베트남어로 버스가 무엇일까?" 베트남 버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등을 물어본다면 아동은 집에서 "선생님이 오늘베트남 이야기했어, 베트남어로 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어."라고 부모와 대화하게 됩니다.

가정연계

자녀의 주 소통언어를 존중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동에게 제일 편한 언어가 한국어인데 부모가 "집에서는 엄마아빠 언어만 쓸 거야."라고 말한다면, 아동은 가장 자신 있는 소통 도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와 대화하려는 욕구도 점점 줄어들어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부모에게 아동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 주어야 하고 '너의 모어를 엄마아 빠가 존중해 줄게'라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모어(母語)와 모쿡어(母國語)의 닭이

'모어'와 '모국어'는 혼동되기 쉬운 개념입니다. 모국어는 언어와 국가를 동일시하거나 언어의 국가 정체성을 결부시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에 비해 모어는 국적과는 관계없이 가장잘 알고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보통은 태어나서 처음 습득한 언어가 모어가 됩니다. 또한 모어는 꼭 하나의 언어만이 아니며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이주아동에게는 한국어가 모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태어난 베트남 국적 아동은 베트남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합니다. 이 아동에게 모국어는 베트남어이지만 모어는 한국어입니다.



자녀의 한국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알려 줍니다

아동이 한국어로 말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부모가 '알았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에게 약속한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동은 '엄마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나랑 한 약속을 안 지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보다 솔직한 모습을 보이도록 교사가 알려 줍니다. 아동의 말을 다 이 해하지 못하면 '우리 딸이 말한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가서 도와 달라고 해볼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기다리기 어려우면 한국어 잘하는 이모한테 지금 물어볼까?'라고 말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육 주제에 맞춰 부모의 모국어를 알려 주도록 안내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배운 주제나 활동을 부모와 공유합니다. 아동은 학습한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부모의 모국어를 조금씩 알려주면 아동이 보다 편하게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동의 관심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가정 연계가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아버님, 오늘 OO가 여름에 대해 배웠는데 OO가 수박을 정말 좋아한대요. 가정에서 부모님 언어로 수박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안내하면 좋습니다.

아동 :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여름에 어떤 과일이 맛있는지 이야기했어. 수박, 포도, 자두…….

아빠 : 그렇구나. OO는 여름에 나는 과일 중 어떤 과일이 제일 좋아?

아동 : 수박이 제일 좋아.

아빠 : 그렇구나. 아빠 나라에는 수박을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단다.

아동 : 왜?

아빠 : 아빠 나라 베트남은 모든 계절이 한국의 여름처럼 항상 더워.

그래서 수박이 일 년 내내 맛있어.

아동 : 베트남에 가서 살고 싶어. 맨날 수박 먹게.

아빠 : 우리, 겨울에 베트남 가서 수박 먹을까? 베트남어로 수박은 '즈어 허

우' 라고 해.

아동 : 너무 길어.

아빠: OO이가 겨울에 베트남 가서 수박 사려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동: 즈어 허우~



2. 생활지도

생활지도의 영역 중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본생활습관'입니다. 영유 아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영 유아기에 형성된 올바른 생활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다수의 아동들은 매일 긴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지내다 보니 기본생활습관이 잘 배어 있지만 교사가 추가적인 지도로 아동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국가 별 문화적 차이는 존중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받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아동의 생활문화를 파악하고 기본생활습관을 가르치기 위한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동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주아동을 돌보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강'과 '질서'를 집중적 으로 다루었습니다.

1) 가정환경의 이해

교사는 아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동의 주식은 무엇인지, 부모와 어떤 놀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제대로 알아야 아동에게 적절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언어 소통이 어렵다 보니 상담만으로는 가정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

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서는 원아적응 프로그램을 약 2주 간 진행하면서 아동의 생활문화를 파악합니다.

중국 국적 아동 유나(만 1세)는 입소 첫날 어린이집을 열기도 전에 엄마와 함께 교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오자마자 엄마는 아동의 손을 교사에게 쥐어 주고 "아이 약 먹어요. 가방에 약 있어요. 이유식 있어요"라는 말만 남긴 채 허겁지겁 일터로 향합니다. 교사가 아동에 대해 제대로 물어 볼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모와 떨어진 유나는 몇 시간째 울다가 자다가 합니다.

부모의 모국어로만 설명이 적혀 있는 약, 처음 맡아보는 냄새의 이유식,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간식거리를 보면서 교사의 궁금증은 더욱 커집니다. 유나를 데리러 온 부모에게 이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불편해서인지 부모는 교사를 피하는 듯합니다. 교사는 입소 초기에 부모와 아동이 한 공간에 있도록 하고 교사가 직접 관찰하면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아적응 프로그램의 목적이 단지 아동의 적응만은 아닙니다. 교사가 부모와 아동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아동의 환경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는 이같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게 보육 및 가정연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입소 대기 신청을 할 때부터 교사는 원아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지만 아동을 위해 근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참여하기를 권하고, 새로 직장을 구하는 부모라면 프로그램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도록 권합니다.

원아적응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가정환경을 파악합니다

교사는 아동과 부모가 노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부모와 아동의 애착 형성 수준, 가정에서의 식사, 배변 훈련 및 훈육 방식 등 아동의 생활문화 전반을 파악하면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립니다.

1~4일

-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 생활을 합니다.
- 점심을 먹고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원합니다.
- 교사는 부모와 아동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아동이 평소에 부모와 어떻게 대화하고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파악합니다. 부모의 놀이, 배변훈련, 훈육 방식 등도 살핍니다.
- 부모에게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집에서 먹는 주식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먹는 음식에 대해 파악합니다. 또한 부모가 어린이집 음식을 맛보도록 합니다. 이 를 통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먹는 음식을 이해하고 맛과 영양을 신뢰할 수 있습 니다.
- 어린이집에서 주는 음식을 아동이 거부하면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입니다.
- 부모가 아동의 준비물을 잘 챙겨 주는지 확인합니다. 준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부모에게 준비물을 구매할 곳을 알려 주고 다른 아동들의 준비물을 참고하도록 보여 줍니다.

5~7일

- 부모는 아동을 등원시킨 후 나갔다가 점심시간 전에 어린이집에 돌아옵니다.
- 부모와 아동이 함께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 부모와 헤어질 때 아동의 반응을 보면서 애착 형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후 적응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해 봅니다.
- 부모와 아동이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 아동에게 집에서 먹는 음식과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을 함께 제공합니다.
- 요청한 준비물들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모에게 보여 줍니다. 왜 이불빨래 를 해 오라고 하는지, 왜 여벌옷이 필요한지 등을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준비물의 필요성을 알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시기에 맞춰 준비를 해 줍니다.

8~10일

- 부모는 아동을 등원시킨 후 나갔다가 낮잠시간이 끝난 후 데리러 옵니다.
- 부모와 떨어진 뒤 아동이 1시간 이상 계속 울거나 아픈 증세가 보이면 부모에게 연락해 다시 어린이집에 오도록 합니다.
- 아동의 상태에 따라 적응 프로그램 기간을 조정합니다.
- 그 동안 관찰했던 내용과 이후 가정과 연계할 부분을 부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화통역 또는 방문통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 부모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세웁니다.

부모와 교사가 한 교실에서 반나절을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교사가 부모와 아동을 관찰하는 만큼 부모도 교사와 교실을 관찰할 수 밖에 없기에 원아적응 프로그램은 불편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의 친밀한 언어소통이 어려운 만큼 눈으로 직접 보고 겪으며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앞둔 이주민 부모는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직 한국 생활도 힘든데, 낯선 사회에서 처음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려니 더욱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이집이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교사는 부모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교사와 부모의 관계보다는 아동을 함께 키워 나가는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자녀를 키워 본 교사라면 부모에게는 인생의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아적응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이런 마음으로 부모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의하기

부모들이 교사에게 자신의 생활문화를 설명하면서 종종 '우리나라는 이래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같은 국적 아동의 생활문화에 대해 선 입견을 갖거나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동의 생활문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특성을 해당 국가 전체의 문화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기본생활습관 지도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거나 교사의 생활지도를 받는다고 해도 아동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주아동들은 어린이집의 지도뿐만 아니라 가정연 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함께 기본생활습관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날씨와 옷

1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아동

한겨울에도 늦가을처럼 옷을 얇게 입고 등원하는 러시아 국적의 아동. 교사는 '어떻게 이런 날씨에 옷을 얇게 입히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날씨가 러시아에서는 늦가을 날씨였던 것입니다.



시 보

계절 옷을 주제로 아동들을 교육합니다

아동이 특별히 추워하거나 더워하지 않으면 옷차림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동이 감기에 걸린다거나 땀을 흘리는 등 날씨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옷을 고를 수 있는 연령대 아동이라면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가 직접 '나를 건강하게 지켜 주는 옷'을 알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연계

부모에게 계절 옷을 소개해줍니다

더운 나라에서 살던 부모는 겨울 장갑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추운 나라에서 살던 부모들은 땀을 잘 흡수하거나 자외선을 차단하는 소재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 역시 이러한 계절 옷에 대해 잘 모릅니다.

계절이 바뀔 때 교사가 "이런 소재의 옷을 입히면 아동의 체온 유지에 좋습니다."라고 부모에게 알려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부모가 직접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계절 옷이나 천을 직접 보여 주고 소재의 이름도 알려 줍니다. 부모가 먼저 새로운 계절 옷을 입어보고 기능을 확인하면 자녀에게도 같은 소재의 옷을 입혀 주게 됩니다.



2 속옷을 입지 않는 아동

어느 나라는 영아가 천기저귀만 한 채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는 내복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속옷과 내복 착용 여부는 나라마다 문화적 차 이가 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아동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가는데 아직도 팬티를 입지 않은 파키스탄 국적 아동 서진이(만 6세). 나중에 학교에서 같은 반 아동들이 서진이가 팬티를 입지 않은 것을 알고 놀릴까 봐 교사는 걱정이 됩니다.



보육

아동의 심리와 행동을 잘 관찰합니다

한국 국적 아동들도 속옷을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속옷을 입기 시작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아동 스스로 편안하고 싶어서 속옷을 입지 않고 이를 당당하게 여긴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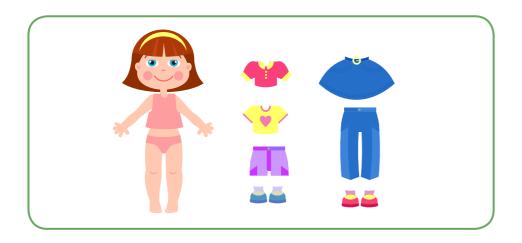
그러나 속옷을 입지 않아서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면 가정과의 연계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교사가 아동의 심리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 관련 활동으로 속옷에 대해 알려 줍니다

아동에게 속옷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알려 줍니다. 보육 프로그램 중에는 '계절에 맞는 옷 입혀 주기', '한복 입기', '옷 꾸미기' 등과 같이 옷과 관련된 활동이 많습니다. 속옷을 입은 아동의 그림이 있는 활동지를 활용해 속옷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관련 활동이나 교구를 활용하면 아동들이 좀 더 속옷을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옷 입기 도안 활동 중 교사가 아동에게 "이 친구들은 속옷을 입고 있구나.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 다들 속옷을 입고 있는 거야. 병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속옷도 입고 바지도 입고, 이렇게 옷을 두 개나 입는 거야. 속옷을 입고 나서 OO가 좋아하는 파란색 바지를 입혀 주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평소에 인형 교구를 구매할 때도 되도록 속옷을 입고 있는 인형을 고릅니다. 옷 입히기 활동의 '여러 가지 옷' 도안을 보면 속옷이 빠진 경우도 있는데, 속옷이 포함된 도안을 준비하여 아동이 속옷을 바지와 티셔츠처럼 하나의 옷으로 인지하도록 해줍니다.



가정연계

아동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부모와 대화합니다

한국 문화에 부모의 양육 방식을 맞추도록 요청하기보다 아동의 마음에 집중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입어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요? 문화가 다르긴 하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팬티를 빨리 입기 시작해요. 친구들은 다 입고 오는데 OO는 괜찮을까요? OO는 어린이집에서 팬티를 안 입었다고 불편해 하거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한 적은 없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좀 더 아동의 마음이 편안한 육아방식은 무엇인지, 부모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2) 위생

여름에 아동이 땀을 흘리면 부모가 매일 목욕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부모의 생활문화에 따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조한 몽골이나 네팔에서는 여름에 목욕을 매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목욕 을 시켜 줘도 강하게 거부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주 기저귀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 아동이 아픈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 보육

아동들에게 직접 위생교육을 합니다

교사와 의사소통이 되고 학습이 가능한 아동이라면 직접 위생교육을 해 보는 것도 좋습 니다. 동화나 대화를 통해 좋은 냄새와 좋지 않은 냄새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이것은 좋은 냄새, 이것은 좋지 않은 냄새. 아이, 냄새 나~ 엄마랑 같이 씻어주세요. 엄마도 뽀글 뽀글 씻고, 친구도 뽀글뽀글 씻자."고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어제 씻고 잠잔 친구 손들 어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 어떤 아동들은 교사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서 씻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정연계

의사소통과 학습이 어려운 아동이라면 가정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마다 기저귀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 적 아동 세바라(만 1세). 기저귀를 자주 갈지 못해서 발진이 생겼습니다. 기 저귀를 벗겨 보면 성인의 머리카락과 먼지도 보입니다.

교사는 부모에게 기저귀를 자주 바꾸도록 당부하고 기저귀 발진을 낫게 하 는 크림도 사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여전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고 크림도 발라 주지 않습니다. 세바라의 발진 증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 습니다. 세바라는 샤워하는 것도 너무나 싫어하고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한바 탕 울면서 발버등을 칩니다.

혹시 가정 형편 상 기저귀를 구매하기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부모 에게 직접 이러한 민감한 질문을 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기 저귀를 사기 어렵다면 부모가 천기저귀를 빨고 말려서라도 자녀의 기저귀 를 갈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부모가 아동에게 관심이 부족 하거나 혹은 아동의 위생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는 경우일 것입니다.

알고 보니 세바라의 부모는 집에 오자마자 밀린 집안일을 하다가 기저귀를 갈아 주지 못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부리나케 잠자는 세바라를 유모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느라 기저귀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저귀를 만져 봐도 소변이 가득 찬 상태인지 잘 몰라서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었 습니다. 기저귀 발진 때문에 세바라가 아파하면 기저귀를 벗겨 놓고 한 시간 후 다시 입 히기도 합니다. 그 사이 기저귀에는 먼지가 쌓였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더러 워진 기저귀를 다시 입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생이 자녀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은 부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의 위 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부모의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 모의 위생 관리수준으로도 건강하게 자랐던 경험적 근거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추측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 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부모가 아동의 상황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아동을 빨리 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해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 어린이집에 있을 때 관찰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아동을 데리러 왔을 때 교실에 들어오게 하고, 부모 앞에서 기저귀를 갈아 주고 크림도 발라 줍니다. 아동이 발진 때문에 힘들어 하는 모습, 교사가 다독거리며 크림을 발라 주는 모습을 부모가 지켜보도록 합니다. 아동이 발진 때문에 아파서 제대로 바닥에 앉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놀이를 하거나 다리를 모아서 앉기 힘들어하는 모습 등도 교사와 함께 관찰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때 기저귀에 소변이 가득 찰 때 어느 정도 묵직해지는지도 알려 줍니다. 그 전에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는 것도 설명해 줍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해도 교사가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부모는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개선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같은 노력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사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등원할 때마다 부모에게 "오늘 아침에 크림 발라주셨나요?"라고 물어 봅니다. 부모는 매번 "못했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민망해서라도 아침에 기저귀를 갈고 크림도 발라 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위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 줍니다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는 "요즘 같은 날씨에 목욕을 매일 안 하면 냄새 가 나요. 냄새 난다고 친구들이 함께 놀아 주지 않으면 OO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해요. 꼭 목욕 시켜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사회생활을 도와 주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음식과 식사습관

1 금기식

국적이나 종교에 따라서 금기시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쇠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오징어·문어와 같은 연체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보유

금기식이 나오는 날에는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금기식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부모에게 미리 어린이집 식단표를 제공하고 금기식이 나오는 날에는 가정에서 따로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반찬 종류 하나가 빠지면 영양이 부족한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꼭 음식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정에서 먹는 음식을 다른 아동들도 맛보도록 합니다

아동들은 '금기식'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다른 음식을 먹을 때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아동들은 해당 아동의 배식판에 놓인 새로운 음식에 호기 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아동들도 함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부모에게 음식을 요청할 때 양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합니다. '같은 반 아동들이 음식을 나 눠 먹으면서 자녀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편하게 식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부모들 은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넉넉히 만들어 보내 줍니다.

2 주식

파스타·빵 등을 주식으로 식사해 온 아동도 종종 있습니다. 밥이나 반찬 없이 고기만 먹 어 온 아동도 있고, 아침 식사로 비스킷이나 쿠키 종류를 먹어 온 아동도 있습니다. 부모 의 국적이나 문화에 따라서 주식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의 특성을 반영해 배식합니다

금기식만 아니라면 어린이집은 식단에 맞추어 모든 아동에게 같은 식사를 제공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식사를 주면서도 아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주 식으로 먹던 아동에게는 고기를 더 많이 배식해 주고 아동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을 때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 줍니다.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뷔페를 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빵, 밥, 파스타 등의 다양한 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제공하고 각자의 선 호대로 선택해 먹도록 합니다. 대신 무슨 음식을 선택해도 아동들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반찬 등의 다른 요리는 똑같이 배식합니다. '이 반찬은 빵과 먹어도 맛있네.', '스프랑 밥은 잘 어울리지 않네.' 등 아동이 스스로 맛의 조화를 알아 가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쌀밥을 시도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가끔 아동이 "엄마도 쌀밥 안 먹어요.", "아빠가 쌀밥 안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라고 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아동은 쌀밥에 대한 거리감을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빵과 파스타를 먹는 가정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처럼 쌀밥을 먹도록 안내합니다.

3 음식의 간

아동이 아프거나 부모가 만들어 준 이유식 양이 부족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이유식을 만 들어 주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만든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았습니 다. 교사가 부모가 만든 이유식을 맛보니 간이 너무 짰습니다. 부모는 더운 나라에서 자 라와 어릴 때부터 간이 센 음식을 먹어 왔다고 합니다.

중도 입국한 네팔 국적 아동 친뚜(만 4세)는 점심식사 시간에 달짝지근한 요 리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맛이 나는 빵이나 쿠키 종류는 잘 먹습니 다. 알고 보니 친뚜의 나라에서는 요리할 때 설탕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나 기후, 풍속에 따라 간 맞추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한국 음식을 낯설어 한다면 되도록 아동이 좋아하는 간을 맞춰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동도 조금씩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려는 마음이 생길것 입니다.





별도의 조미료를 함께 배식합니다

아동들마다 간을 다르게 하여 요리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배식할 때 조미료를 함 께 제공해 줍니다. 아동이 각자 원하는 간에 맞춰서 조미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되. 나 트륚이나 설탕의 양이 일일 권장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신경씁니다.

천연 조미료를 사용해 요리합니다

아동들이 먹는 음식에는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대신 올리고당, 꿀 등을 사용합니다.

사장연계

부모가 어린이집 음식을 맛보도록 합니다

워아적응 프로그램 시기에 부모가 어린이집 음식을 맛보도록 하고 조미료를 얼마나 넣 는지도 보여줍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떤 조미료를 사용해 아동의 입맛을 맞추고자 노력 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조미료를 소개해 줍니다

가끔 부모가 먼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조미료나 양념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기 도 합니다.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조미료를 넣어 자녀가 어 린이집 음식에 익숙해지고 식사도 좀 더 잘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때는 부모에게 되도록 다양한 조미료를 소개해 줍니다. 특히 천연 소금이나 올리고당 처럼 아동 건강에 좋은 대체 조미료를 알려 주면 좋은 정보가 됩니다.

4 한국 음식

한국에서 자라도 한국 음식을 낯설어 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식재료로 만 든 음식이나 낯선 색깔의 음식에 대해서는 더욱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 았던 식재료라도 부모가 요리해 준 방법과 다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5살이 지나 중도 입국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 이 더욱 심합니다. 사람의 입맛은 생후 5년 동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을 처음 보는 아동들은 검은색에 거부감을 느껴서 음식을 보자마자 코를 막고 "더러운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튀김으로만 먹어온 아동은 "생선이 국물에 빠졌어. 먹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음식 모양 장난감, 음식 사진, 음식이 등장하는 동화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이 한국 음식들을 탐색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낯선 한국 음식이 나오는 날이면 실내 자유놀이도 해당 음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떡이 나오는 날에는 떡을 소재로 한 동화책을 보여줍니다. 가지 를 이용한 한국 음식이 나오는 날에는 가지 모형을 싹둑싹둑 잘라 요리하는 주방 놀이 를 해 봅니다.

음식과 관련된 수업 사례

오늘 점심식사 메뉴는 짜장면입니다. 세상에 검은색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동들에 게 보여 줍니다. 아동들의 거부감이 덜한 음식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검은색 음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덜어 내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우리 검은색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몸에 좋은 콩도 이렇게 검은색이 있고, 상큼한 블루베리도 검은색이네. 먹물을 넣었더니 노란색인 빵이 이렇게 검정색이 되었어. 무슨 맛인지 먹어 볼까? 검은색 빵도 맛있구나. 검은색 깨도 있다. 깨는 참 작다. 맛은 어떨까? 아이 고소해. 오늘 낮에는 우리가 검은색에 퐁당 들어간 면을 먹어볼 거야. 우리가 먹는 검은색은 무슨 맛일까? 빵처럼 달달할까? 블루베리처럼 상큼할까? 깨처럼 고소할까? 점심시간에 같이 맛을 보자!"라고 교사가 말하면서 아동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줍니다. 검은색 음식을 낯설게 느꼈던 아동도 다른 아동들의 반응을 보면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동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요리해 봅니다

아동이 직접 요리를 하면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새로운 음식이라도 한 번쯤 꼭 맛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 아동 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재미있는 추억도 생깁니다.



어린이집 식단으로 자주 나오는 김치나 깍두기는 좋은 활동 주제입니다. 아동들은 무를 뽑으면서 야외체험의 추억을 만듭니다. 그 뒤에는 직접 뽑은 무로 깍두기를 만듭니다. 무에 고춧가루를 섞어 보기도 하고 설탕을 뿌려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면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깍두기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넉넉하게 마련해 주세요

어떤 아동은 한국 음식이 낯설기 때문에 배식판에 담긴 음식을 오래 탐색한 뒤에야 식사를 합니다. 또한 어떤 아동은 교사가 따로 간을 맞춰 주거나 야채를 잘게 썰어 주는 등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 먹기도합니다. 이런 경우 식사 시간은 다른 아동들보다 길어지고 점심을 먹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황에 맞춰 식사 시간을 늘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많을 경우 보조교사 나 원장이 함께 아동들을 먹입니다. 이 경우 보육인력 배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연계

아동이 선호하는 한국 음식을 가정에서 가져옵니다

중도 입국한 로만이(만 5세)는 어린이집의 음식을 대부분 거부합니다. 아동은 배가 고파서 예민해지고, 당연히 컨디션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부모에게 가정에서 먹는 음식을 가져와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아동에게만 다른 식단을 제공하면 다른 아동들은 자꾸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기때문입니다.

유난히 한국 음식을 잘 못 먹는 아동이 있다면, 가정에서 아동이 선호하는 한국 음식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친숙한 음식을 곁들여 먹다 보면 아동은 조금씩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김을 잘 먹는다고 하면 집에서 김을 가져와서 다른 반찬과 함께 먹도록 합니다. 다른 반찬을 잘 먹지 않아도 김에 밥을 싸 먹으면 어느 정도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다른 아동들이 "로만이는 왜 김을 먹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라고 불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사가 "OO는 김 없이도 김치도 잘 먹고 된장국도 잘 먹을 수 있지? 로만이는 김치를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김이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대."라고 설명해주면 아동들은 대부분 쉽게 이해합니다.

부모와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부모참여 수업을 통해 부모와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이를 통해 부모에게도 낮선 식재료나 조리법, 양념 소스 등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이후 부모가 가정에 가서 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식재료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아동이 선호하는 한국 음식을 알려 주고 부모가 직접 해당 음식을 요리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아동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부모가 먹어 보면서 아동의 달라진 입맛을 알아 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우리나라에 있는 재료가 한국에도 있구나.', '같은 식재료인데 이렇게 조리하면 한국 음식이 되는구나.' 등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입소 초기 어린이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왜 힘들었는지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5 식사 도구

나라마다 식사에 사용하는 도구가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포크와 나이프를 주로 사용하고, 어느 나라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고, 또 어느 나라는 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아동들의 식사 방법도 다릅니다. 포크와 나이프만 사용해 본 아동도 있고, 뜨거운 밥도 손으로 먹는 아동도 있습니다. 여러 칸으로 나뉜 배식판이 낯설게 느껴지는 아동도 있습니다.

인도 국적 아동 아니따(만 4세)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손으로 식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교사가 손에 숟가 락과 포크를 쥐어 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물에 적신 밥까지 손으로 먹으 려는 모습은 교사에게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니따에게 "숟가락과 포크를 써 보자."고 이야기하면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도 손을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동들도 아니따를 따라서 손으로 음식을 먹으려 합니다. 어느 날은 같은 반 한국 국적 아동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꾸 집 에서 자녀가 손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동은 '어린이집에서는 손 으로 밥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식생활 지 도를 잘 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아동의 다른 식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다른 아동들까지 이를 모방하게 되면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식습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숟가락·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숟 가락과 젓가락에 익숙해지도록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숟가락이나 젓가락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손으로 밥 먹는 날'을 만들어 누구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는 원래 손으로 밥을 먹던 아동이 시범을 보여 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화를 가르쳐 주면서 아동은 부모의 나라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만 먹던 아동이 숟가락과 젓가락에 점점 익숙해지면 '손으로 밥 먹는 날'의 빈도를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등으로 점차 줄여 갑니다.







가정연

다른 식문화를 체험하는 식사 이벤트를 안내합니다

가정에서도 정기적으로 '포크와 나이프로 밥 먹는 날',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 먹는 날'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제안해 봅니다. 가족이 함께 다른 식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누나가 어설프게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는 모습, 아빠가 젓가락으로 밥을 먹다가 흘리는 모습 등 재미있는 상황들이 생겨서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 같은 반에 어떤 문화권의 아동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 교육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6 완전식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동이 12개월이 되면 완전식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동에게 다양한 식감의 음식을 주어서 씹기 활동을 시켜야 합니다. 씹기 활동은 소화와 영양 흡수를 돕고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며 침 분비를 촉진하여 구강 내 건강도 향상시킵니다.

완전식을 시작하는 시기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정해진 시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 상태에 맞춰 완전식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젖병에 든 분유를 장기간 먹다 보면 아동의 구강 구조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유 가루나 설탕 성분 때문에 충치가 생기고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국적 아동 주디(만 1세)는 이미 완전식을 시작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면서 늘 스프와 분유를 보내 주 었습니다. 어느 날 주디의 얼굴을 보니 오랫동안 젖병을 빨아서 구강 구조가 앞으로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미 치아도 많이 부식된 상태였 습니다.

교사가 완전식을 줘 봤지만 주디는 입 안에서 음식을 물고만 있다가 결국 뱉어 냅니다. 간식을 먹을 때에도 입에서 사르르 녹는 과자만 찾습니다. 씹기 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국적 아동 지훈이(만 2세)는 배식판에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잘 먹습니다. 그러나 항상 밥과 반찬을 국에 말아서 먹습니다. 또한 음식들을 아주 잘 게 잘라 주어야만 먹습니다. 그나마 씹지 않고 물처럼 삼켜 버립니다.

알고 보니 지훈이를 주로 양육하는 조부모는 손주를 아기로만 여겨서 음식을 잘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훈이는 씹기 활동을 시작할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완전식을 먹는다고 해도 음식을 잘게 썰어 주면 아동이 삼키기 활동만 할 뿐 씹기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치아·턱 등 구강 관련 신체부위 의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치아 발달 상태를 살펴보니 완전식이 늦은 아동들은 치아가 늦게 났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방식에 따라 신체 발달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

아동이 조금씩 완전식과 친해지도록 합니다

부모가 완전식 먹이기를 거부한다면 아동 스스로 완전식과 친해지도록 교사가 도와 줍니다.

완전식을 먹지 않는 아동에게도 다른 아동들처럼 똑같이 음식을 나눠 줍니다. 아동이 거부하더라도 배식판에 음식을 놓아 주어 아동이 포크로 찍어 보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음식을 탐색하게 합니다.

또한 다른 아동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씹어서 먹는지, 어떤 것을 맛있게 먹는지도 볼 수 있게 합니다. 아동들이 식사를 잘 할 때는 교사가 아낌없는 칭찬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동은 완전식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교사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조금씩 완전식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연계

부모에게 완전식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부모가 바라는 완전식 시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신체 발달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부모에게 완전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계속 분유만 먹이면 아동의 구강 구조가 어떻게 틀어지고 이후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알려 줍니다. 사진 자료를 보여 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통역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에 따른 영유아 신체발달에 대해 알려 줍니다

신체발달 수준은 아동들마다 다릅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양육 해야 하는데, 이주민 부모들은 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첫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아동 신체발달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인터넷에서도 모국어로 된 육아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동네나 도서 관에 있는 관련 서적들도 대부분 한국어 서적입니다. 주변에 물어 볼 사람이 없는 경우 도 많습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무료강좌가 있어도 한국어로 참가 신청서를 적는 것부 터 겁이 나고, 이런 강좌가 있다는 정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사가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어떤 신체 변화가 있고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자료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때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가정통신문 같은 종이 자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자료를 방문이나 냉장고 문 등에 붙여 놓고 자주 보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발달 변화가 큰 영아기에는 자주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점차적으로 횟수를 줄여 나갑니다. 이후 만1세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만 2세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만 3세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4) 규칙과 질서

부모 나라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중도 입국한 아동이 종종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지 않은 국가에서 지내다가 입국한 아동들은 한국의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것과 어린이집의 단체생활 문화나 규칙을 익혀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사들은 보통 이런 아동에 대해서 '에너지가 너무 넘친다.'고 말합니다. 아동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활동도 많습니다. 자칫 다른 아동과 충돌하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지 교사들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중도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 아동 알로(만 4세)는 조부모와 함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알로는 높은 교구장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곤 합니다. 실내에서도 끊임없이 달립니다. 그러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쳐 상처를 입힌 적도 있고, 자신이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느 날 다른 아동의 부모가 알로의 모습을 보더니 '다른 아이들하고 있기에 너무 위험한 거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교실 안에서 돌고 또 도는 알로에게 교사가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알로는 대답합니다. '이렇게 뛰어야 저는 살 수 있어요!'

이런 아동에게는 보다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교실을 돈다면 "교실에서 놀이하는 친구들과 부딪힐 수 있으니까 돌지는 말고 제자리 뛰기만 하는 거 어때?"라고 제안합니다. 아동이 심장박동을 계속 빠르게 유지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규칙도 배울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발산에 좋은 교구는 자동차 장난감입니다. 아동은 자동차의 속도감을 상상 하면서 감정을 이입하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또한 자동차 놀이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교통 규칙과 안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규칙도 익힐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공을 만드는지 시합하자고 아동에게 제안합니다. 아동이 공을 은박지로 싼 후 던지면서 에너지를 발산한 뒤에는 다시 공을 모으는 활동을 합니다. 줄을 서서 한명씩 장난감 화살로 과녁 맞추기 놀이를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한 뒤에는 화살을 모으는 활동을 합니다.

이같은 활동을 하면서 아동은 에너지를 더 많이 발산할 수 있고 정리·질서와 같은 생활 규칙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실외활동 시간을 늘려 줍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하루에 실외활동을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 넘치는 아동에게는 실외활동 시간을 45분 정도로 늘려 주어서 에너지를 좀 더 발산 하도록 합니다.



가정연계

부모에게 신체활동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줍니다

부모들은 '집이 좁으니까 아이가 너무 답답해하고, 집 안에서 뛰어 다니느라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아동의 에너지를 발산할 만한 신체활동이 없는지 물어 보기도 합니다. 부모는 조금 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라도 자녀의 에너지를 발산 시켜 주고 싶지만, 이러한 시설이나 센터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린이집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을 할 경우 바로 연계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센터나 사설 기관을 소개해 줍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경우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체육 시설을 소개해 주었고, 부모가 수업료를 부담해 아동이 신체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아동 상황에 따른 생활지도

(1) 긴 시간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아동들을 위한 생활지도

이주아동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어린이집에서 생활합니다. 같은 반 아동들이 하원한 뒤에도 4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아동들이 귀가한 뒤 매일 긴 시간 자유놀이를 하다 보면 생활이 지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구를 자주 바꾸어 줍니다

매일 같은 교구를 가지고 놀면 자유놀이 시간이 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교구를 자주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분기별로 한 번씩 교구를 바꾸어 주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교구를 바꾸어 아동의 지루함을 덜어 줍니다.

이때는 되도록 기존에 아동이 가지고 놀던 교구에서 조금씩 응용하거나 확장하는 방식 으로 교구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활동 기회를 늘려 줍니다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아동들이 하루에 바깥 공기를 마시는 시간은 실외활동을 하는 1 시간이 전부입니다.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깥에 나가는 기회가 적다 보니 땀 흘려 신나게 뛰어놀기도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면 아동들은 낮잠 시간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한 달리기, 점프하기 등의 활동이 부족해 또래보다 신체 능력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활동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체험학습이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도 되도록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합니다.

휴식 공간을 잘 꾸며 줍니다

어린이집에서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단체 생활을 하는 아동들은 저마다의 생활리듬에 맞춰 지내지 못해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아동들은 집에 돌아가 텔레비전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간식을 먹고 스르르 쪽잠을 자기도 할텐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몸이 피곤할 때에 아동들은 잘 쉬지 못합니다. 다른 아동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놀이에서 제외될까 봐 걱정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 휴식 공간을 꾸며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간에는 아동들에게 안정 감을 주도록 낮은 높이의 캐노피를 설치하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쿠션이나 큰 인형 도 비치합니다.

이렇게 꾸며진 휴식 공간은 부모가 가정에서 돌볼 수 없어서 아픈 몸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동이 온종일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2) 7세에 중도 입국한 아동들을 위한 생활지도

중도 입국한 아동들은 7살이 되어서야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아동을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냈다가 초등학교 입학 6개월 또는 1년 전에 한국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어도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찾게 됩니다.

베트남 국적 아동 중현이는 7살이 되어 한국에 중도 입국했습니다. 7살 반에는 이미 아동 수가 20명이 넘어 가기 때문에 교사가 일대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중현이는 다른 아동들과 함께 놀고 싶어합니다. 베트남어로 말을 걸기도 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다 보니 다른 아동들이 자꾸 중현이를 피하게 됩니다.



보육

한국에 중도 입국한 아동에게는 기본생활습관과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일대일 언어학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환경상 아동을 일대일로 지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를 연결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아동에게 일대일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자원봉사자를 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이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봉사자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이주민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구하면 좋습니다.

또한 외국으로 나가 한국어 강사를 하려는 분들 중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 봉사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 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봉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화 수업 공간을 활용해 일대일 교육을 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개별화 수업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아동들마다 언어, 인지, 소근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개별화 수업 공간을 이용하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대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입국 아동이 입소했을 때도 개별화 수업 공간은 매우 유용합니다.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봉사자나 외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면 교사들이 좀 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교사들이 모두 해당 아동의 상황을 공유하고 일대일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낮잠을 자는 연령대

반의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맡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사회의를 통해 정합니다.

다른 아동들이 낮잠을 자거나 쉬는 동안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함께 일대일로 한글 동화책 읽기나 한글 학습지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한 교사가 동화책을 읽어 주고 또 다른 교사는 학습지를 함께 푸는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은 '이 선생님을 만나면 책을 읽는구나', '저 선생님을 만나면 한글 쓰기를 하겠구나', 하는 식으로 상황을 인지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동과 모국어로 대화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동은 종일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언어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에게 모국어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집에서까지 한국어를 쓰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부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풀 수 있도록 교사가 잘 안내합니다.



7세 중도 입국 아동에게는 이런 어린이집을 추천해 주세요

처음에는 아동 수가 적고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입소합니다

중도 입국한 아동은 한국 생활도 익숙하지 않은데, 새로운 규칙과 규율에도 적응하려면 더욱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한 반의 아동 수가 적어 개별적 생활지도를 해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좋습니다. 아동의 변화가 느리더라도 충분히 기다려 주는 곳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좋습니다. 아동은 어린이집에 여러나라 출신의 아동들이 함께 지낸다는 것을 쉽게 감지합니다. 등하원 때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각자 다르고, 시설 내에 다양한 언어의 동화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다른 아동들과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아동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적어도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한국어로 억울한 마음 표현할 수 있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어린이집으로 옮기려면 아동이 기본생활습관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리에 앉기, 기다리기, 줄서기 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뒤에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면 한국 국적 아동들이 많은

어린이집을 추천해 주세요

아동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면, 한국 국적 아동들이 많은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갑자기 한국 국적 아동들이 많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자신과 다른 또래 아동들의 모습과 문화가 큰 차이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고 개별화 수 업도 해 주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동에게는 교사의 말이 너무 빠른 것처 럼 들립니다. 아동과 교사가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국 국적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은 미리 이질감을 경험하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미리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아동의 감정을 잘 읽어 주면서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함께 지낸 친구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또래집단과 맺은 관계가 초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세이주아동초등학교입학도와주기

어린이집 교사가 직접 초등학교와 입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주아동 역시 체류 자격과 외국인 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초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 제도가 명시한 의무교육 대상에 이주아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기에 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입학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구사능력 및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이고 이주아동이라서' 등의 이유로 입학을 거절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가 직접 초등학교와 입학 상담을 하면 아동과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학교 측이 입학을 거절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이주민센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을 부모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주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부모가 예비소집 일이나 입학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가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을 함께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입학 서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을 줍니다

2010년 전까지는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금은 임대차계약서나 거주 사실에 대한 이웃 주민의 보증서 등 간단한 거주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실 측에서 이런 절차를 잘 몰라서 부모가 준비할 수 없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는 매해 12월 말 경 부모가 초등학교 입학 서류를 잘 준비하는지 확 인합니다.

만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역 이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리 지역아동센터 입소 대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이주민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수업이 끝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오후에 갈 곳이 없고 돌봐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동이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부모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래서 일을 하지 않거나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같은 국적 친구에게 돈을 주고 아동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동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 입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 1년 전에 입소 신청을 해 놓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입소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6개월 전, 최대 1년 전에 미리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대기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교사가 미리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육 프로그램

1)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

다문화 보육 관련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무교육·보수교육· 승급교육 등 보육 교직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에도 다문화 보육 관련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서에도 다문화 보육 관 련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다문화 보육을 깊이있게 다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련 책을 보면 별 책부록으로만 다문화 보육을 소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아교육 사이트에 있는 교육 계획안을 들여다봐도 추석이나 설날 등 한국 명절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며 여러 나라의 명절 문화를 경험해 보는 보육활동은 매우 드뭅니다.

보육교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문화 보육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표준 보육과정에 맞추어 아동들을 보육하는 것도 벅찬데 다문화 보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보육교사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하는 강사와 실제 다문화 보육을 진행한 교 사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생생한 다문화 보육 가이드를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신체활 동이나 야외학습 프로그램을 이주아동 특성에 맞추어 진행한 사례도 담았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이 외부의 기관 및 기업들과 연계한 보육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 로 소개했습니다.

(1) 표준보육계획안을 활용한 다문화 보육

보육교사들은 다문화 보육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게 다운한 분합이에야? 이외 제가 하나 있는 건데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교사가 아동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표준보육계획안을 들여다보면 기존 자료에도 다문화 보육을 위한 소재가 참 많습니다.



수업진행 사려

예를 들어 유럽 건축양식을 가르쳐 주는 시간에 교사가 "이 건물은 정말 특이하고 아름답지? 우리 이 건물처럼 한번 블록놀이를 해볼까?"라고 말하면 예술교육에만 그칩니다. 이때 "눈이 쌓이면 지붕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눈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지붕을 뾰족하게 만들었대. 이 나라는 그렇게 눈이 많대. 그리고 이 나라는 너무 추워서 이런 음식을 먹고 사람들은 생김 새는 이렇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블록으로 만들어 볼까?"라고 교사가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해 주면 다문화 보육이 됩니다.



(2)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보육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협력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문화 보육을 하는데 정작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업진행 사례

아동들이 블록으로 다른 나라의 전통 건물을 함께 만들며 협력을 통해 문화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 속에서 아동들은 교사가 알려 준 내용 중 각자 기억하는 문화적 요소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선생님: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을 같이 만들어볼까?

아동1: 선생님이 이 나라 집 지붕은 뾰족하다고 했어. 뾰족하게 만들자.

아동2: 더 뾰족하게 해야 눈이 지붕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내가 도와 줄 게. 더 뾰족하게 만들자.

아동3: 여기는 눈이 많이 온대. 우리 다 같이 놀 수 있게 문 앞에 눈썰매장 도 만들자.

아동4: 눈썰매장은 길어야 재밌어, 같이 길게 만들자.

아동5: 그러면 여기 오는 아기는 추워, 아기 옷을 따뜻하게 입혀 줘야 돼.

아동6: 맞아, 아가한테 목도리는 내가 해 줄게.

이렇게 아동들은 서로 도우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다문화 보육에서 협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처럼 아동들이 서로의 다른 경험과 기억을 들으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폭넓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 가는 다문화 보육

예전에는 다문화 보육을 할 때 이주아동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 습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했지만 지금은 상대편 문화를 함께 배우는 다문화주의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너의 문화도 중요해."라는 자세입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문화만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어떤 새로운 문화 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탐색하면서, 아동들과 창조적 활동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 햄버거는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아동들: 미국이요! 한국이요! 중국이요!

교사: 햄버거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어느 마을 '함부르크'에서 시작됐어 요. 이 마을 사람들은 고기를 곱게 다져서 뭉쳐 먹었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고기를 먹는 방식이 미국으로 전해졌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함부르크 고기를 '햄버거'라고 불렀어요. 빵 사이에 함부르크 고기를 끼워 팔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햄버거가 되었대요.

아동들: 햄버거가 마을 이름이래.

교사: 오늘 우리는 같이 햄버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햄버거 안에 는 뭐가 들어가지요?

아동들: 고기요! 토마토, 채소, 당근!

교사: 맞아요. 햄버거에는 쇠고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쇠고기를 먹지 못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동들: 고기를 빼고 채소만 넣어요.

교사: 그러면 친구는 햄버거에 고기가 없어서 속상할 텐데, 우리 쇠고기 대신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넣어 줄까요?

아동들 : 좋아요!

교사: 그런데 닭고기·돼지고기도 못 먹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동들: 고기를 빼고 다른 맛있는 거 넣어 줘요.

교사: 그러면 고기처럼 맛있고 몸을 튼튼하게 해 주는 두부 스테이크를

넣어 주자!

아동들: 와! 두부버거가 되었네.

쇠고기를 먹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때는 모든 아동이 햄버거를 먹지 않거나 해당 아동 에게만 다른 음식을 주기보다는 두 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 습니다.

교사는 이렇게 상대편의 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 을 만드는 활동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은 이처럼 아동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그룹 수업을 하다 보면 아동들의 배경지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가 바다가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살았다면 바다나 해수욕장의 풍경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밀이 주식인 나라에서 살았다면 벼농사의 풍경이 낯설기만 합니다.

여러 배경과 국적의 아동들이 함께 지내는 어린이집에서는 이처럼 각자의 배경지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수업을 해야 합니다.

몽골 산간 지역에서 살다가 중도 입국한 사라(만 4세)는 바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바다에 대한 수업을 하면 같은 반 아동들은 '어푸어푸' 하면서 수영하는 모습을 흉내내지만 사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상어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면도 망을 가면서 노는 아동들 사이에서 사라는 혼자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는 물고기는커녕 바다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아동이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사는 자칫 '아동의 배경지식이 부족하다.', '부모가 아동을 다양한 환경에 노출해 주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양육을 잘 해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아동들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아동들의 서로 다른 배경지식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바다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면, 바다를 잘 모르는 이주아동이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수업 전 날에 "내일 우리 바다에 사는 동물들 이야기 할 건데 어떤 동물친구 이야 기를 해 볼까?", "바다는 어디에 있지?", "바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등의 질문을 던져서 아동들의 반응과 대답을 잘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수업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미지 자료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합니다.

아동들이 직접 다양한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미지 자료로 보여 주면서 아동이 배경지식을 쌓도록 도와 줍니다. 이때는 만화나 그림보다 실제 사진 및 영상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 더 생생해서 좋습니다.

(4) 다문화 보육 자료

부모를 통해 교육 자료를 찾습니다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사의 정보가 풍부해야 합니다. 인 터넷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교사의 가장 좋은 자료 창고는 바로 부모 입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 수업진행 사리

우리 반에는 중국·베트남·필리핀·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여러 나라들의 전통놀이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 러나 인터넷으로 찾으려면 해외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데다가 언어도 다 릅니다. 자료를 찾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 지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동을 데리러 온 베트남 국적 부모에게 전통놀이에 대해 물 어보았습니다.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부모는 너무 즐거워하면 서 휴대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부모는 사진도 보여 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이런 놀잇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후 부모는 정말 놀잇감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내 주었고, 아동은 수업 시간에 놀이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아동은 "이거 우리 엄마가 어제 만든 거야. 베트남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놀잇감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아 동은 부모의 나라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겼고 부모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되 었습니다.

부모에게 직접 물어 보는 것이 그 나라 문화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교사들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부모를 귀찮게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교사가 자신의 나라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교사가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교사와 부모의 관계도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교육자료 중에서는 사진이 매우 유용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쉽게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부모가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모 국어로 검색해 찾은 사진이라서 정확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주었을 때 가장 좋은 감사 인사는 자료를 활용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진을 보며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료 다문화 보육 자료들을 이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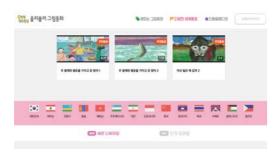
이주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료 교육자료

다누리배움터 www.danurischool.kr



나라별 상징물, 건축, 음식, 전통의상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각국의 요리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자료 및 워크북 파일을 다운받아 수업에 사용할 수있습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 ollybolly.org



인권, 젠더, 평등, 다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키워 주는 동화들을 13개국의 언어로 접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동화구연 storytelling.nlcy.go.kr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동화 자료 사이트입니다. 한국의 전래동 화나 창작동화를 몽골어·러시아어·베트남 어·영어·중국어·타갈로그어·태국어·캄보 디아어 등 총 8개 언어로 번역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꾸러미 www.kidsnfm.go.kr



총 9개 국가 각각의 생활용품, 옷, 놀이, 축제, 악기 등으로 구성된 실물자료를 대 여해 줍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운영 합니다.

EBS 두리안 www.ebsd.co.kr



EBS 두리안의 '몽몽 인형극장'은 전래동 화와 창작동화, 세계동화를 베트남어·영 어·중국어로 번역해 인형극으로 만든 프 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신체활동 프로그램

매일 30분씩 진행되는 실외활동, 자유놀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신체활동. 모두 아주 평범한 어린이집 일과지만 바깥 활동이 부족한 이주아동들에게는 소중하고 특별한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들의 집은 작은 방 한 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이 너무 비좁다 보니 아동이 집 안에서 뛰어놀다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꾸 아동의 신체활 동을 제약합니다.

신체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아동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또한 신 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동의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던 베트남 국적 아동 리안이(만 1세)가 어린이집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리안이는 교사가 손을 잡아 주어도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했고, 달리기를 할 때도 자꾸 넘어졌습니다. 가벼운 블록인데도 두 개 이상쌓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연필을 잡을 힘도 없었고 심지어 혼자서 컵을 들고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상황은 만 1세의 수준에 도 미치지 못합니다. 만 1세 영유아 발달체크리스트에 맞추어 리안이의 상 태를 점검했습니다. 19개 항목 중 리안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2개였습니다. 부모에게 리안이가 집에서 주로 뭘 하면서 노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저것 가지고 놀아요. 그냥 혼자서 잘 놀아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리안이의 부모는 모두 제조업 공장에서 일했는데 아빠는 야간에 일하고 엄마가 주간에 일하면서 교대로 리안이를 돌보았습니다. 부모는 늘 피곤했고 집에서 리안이와 놀아 주고 싶어도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리안이는 제대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부모 옆에 앉아 있거나 자기만 했습니다.

생후 18개월 전후는 급격하게 신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주민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적절한 신체발달 환경을 만들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육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아동의 대근육 발달을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외부 강사가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보통 어린이집 교사들은 외부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주 아동을 돌보는 교사들은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체육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교사는 대근육 발달이 늦은 아동을 도와 줍니다. 아동이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아동에게 밀려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교사들의 프로그램 보조를 위해서는 사전에 교사인력 편성회의를 열고 외부강사와도 회의를 합니다. 교사가 보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조 체육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 업체를 찾거나 체육활동을 보조해 줄 봉사자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근육 발달이 늦어 신체활동이 버거운 아동이 있는 반면, 에너지가 넘쳐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아동도 있습니다. 이같은 아동들을 위해서는 신체활동 시설이나 기구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유롭게 점프하는 에어바운스 같은 놀이기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안전한 시설인지도 알아 봅니다.

보육교사가 직접 진행하는 신체활동프로그램

교사는 외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보조하면서 아동이 어떤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어떤 부분의 발달이 늦는지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이를 토대로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실외놀이·야외학습·자유놀이 시간 등에 아동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신체활동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야외학습 장소를 선정할 때도 아동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곳보다는 자유롭게 뛰어놀 만한 곳을 고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소근육 운동은 작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유놀이를 통해서도 충분 히 다양한 소근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같은 반 아동들끼리 소근육 발달수준 차이 가 꽤 많이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근육 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함께 책을 읽을 때 아동이 직접 책을 넘기도록 하고, 양치질을 할 때도 아동이 직접 수도꼭지를 틀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낙서하기, 가위질하기, 지퍼 여닫기, 단추 풀고 잠그기 등다양한 소근육 활동을 제공해 줍니다.

아동들에게 교구를 줄 때도 서로 다른 소근육 발달수준에 따라 맞춤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근육 발달이 늦은 아동에게는 다른 아동들보다 조금 더 큰 퍼즐 조각을 주고 실 넣는 구멍도 더 큰 교구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반에서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각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영유아 발달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이때는 같은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2~3개월마다 1회씩 총 5~6회에 걸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연계

가정과 연계한 소근육 발달 활동

이주민 부모는 소소한 신체활동이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분기별 1회씩 아동의 소근육 운동을 도와 줄 수 있는 활동자료를 부모에게 제공해 주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되도록 이미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또한 연령별로 적절한 신체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부모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는 신체활동을 시켜 주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이 '연령별 신체의 변화 발달'을 주제로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정에서 할 수있는 아동 신체활동을 소개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소근육 활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어떻게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사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벽에 낙서하는 것이 싫어서 아동이 집에서 색연필을 갖고 놀지 못하게 하는 부모에게는 전지를 사용하도록 알려 줍니다. 아동이 다칠까 봐 가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구점에서 아동용 안전가위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어린이집의 소근육 발달 교구를 가정에 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를 대여 해주면 가정에서도 아동의 소근육 발달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모가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교구 사용 및 관리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가져 온 교구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부모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부모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3) 야외체험학습 프로그램

(1) 원아 대상 야외체험학습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기획

지역 내에서 야외체험학습을 합니다

아동들은 주말에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부모를 따라서 지역 내 같은 국적 사람들의 커뮤니티 모임에 가기도 하지만, 이때도 야외에서 뛰어놀 기회 는 별로 없습니다.

아동이 지역 내 다양한 놀이장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 안에서 야외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저렴한 물놀 이장에 갈 수 있고 가을에는 인근의 공원이나 뒷산에서 단풍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키즈카페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해 야외체험학습을 합니다

지역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놀이터 등의 시설이 많지만, 부모들은 관련 정보를 잘모릅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 신상정보를 기록해야 할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자가 있는 이주민이라도 '공공시설은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외체험학습을 통해 한국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주아동은 점차 자신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평생학습원 등 지역 공공시설에 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해당 시설의 공연을 보러갈 수 있습니다. 공공 도 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 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 체육시설에 가 보기 도 합니다.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야외체험학습을 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도 좋은 야외체험학습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이주민 부모들은 농촌이나 목장, 과수원 등 자연과 친숙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은 한국의 도시에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고향 이야기가 낯설기만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곳으로 야외체험학습을 가면 아동들이 부모를 더 많이 이해할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아동들은 가족 나들이를 가거나 시골의 친척 집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주민 가족은 한국에 친척이 거의 없습니다. 멀리 자연을 찾아 떠나는 가족나들이도 큰 모험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은 아동들이 자연 환경을 접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동의 경험이 확장되는 야외체험학습을 합니다

아동들에게 가족들과 어디 놀러갔는지 물어 보면 대부분 "이마트요.", "베트남식당이 요.", "홈플러스요.", "다이소요."라고 대답합니다.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놀러가는 곳이 제한적이다보니 경험도 한정적입니다. 야외체험 학습을 갈 때 그 동안 아동이 가 보지 않았을 곳,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선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는 특히 한국 국적 아동들이 한 번쯤 가 족들과 가 볼 만한 장소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서 한국 국적 아동 들을 만났을 때 공통의 경험이 있으면 대화 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동물원, 놀이동산 등이 이러한 조건에 맞는 장소입니다. 꽃축제나 단풍축 제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❷ 프로그램 진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섭외합니다

야외체험학습을 나갈 때 교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아동들은 병원비를 비급여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넘치는 아동이나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아동이 많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섭외합니다. 봉사자들은 야외학습 활동에서 아동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지역 생활협동조합이나 이주민센터를 통해서 봉사자를 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동행한다면 별도의 인솔자가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야외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청소년들을 인솔하고 안전을 책임질 담당자가 꼭 동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아동들을 지켜보느라 청소년들까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프로그램에서 이탈함 경우 등에 대비해 꼭 인솔자가 동행하도록 합니다.

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하고 사고 책임에 대해 미리 논의합니다

단체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여행자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교사와 원장의 부담도 더욱 커집니다.

이럴 때는 사전에 부모와 함께 야외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고 서면으로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3 가정 연계

부모에게 학습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줍니다

아동이 어린이집 또래 친구들과 만든 추억을 이후에 부모와 함께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에게 지역 시설이나 축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체험학습을 갔을 때 해당 시설에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기록해야 하는지, 언어가 달라도 큰 불편이 없는지, 체험비용은 얼마이고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는지 등등 구체적 인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야외체험학습이 끝난 뒤에는 부모에게 사진을 보여 주면서 해당 장소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도 알려 줍니다. 정보를 정확히 알면 부모의 거리 감이나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또한 이미 자녀가 다녀온 곳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주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습니다.

부모와의 대화 소재를 제공해 줍니다

아동의 야외체험학습 경험이 부모와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배추와 무를 뽑는 활동을 했다면 관련 사진과 무를 가정에 전달하면서 "오늘 야외체험학습을 하면서 무를 뽑았어요. 어머님 나라의 무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가요?, 맛은 어떤가요?, 어떻게 요리해 먹나요?" 등을 물어 봅니다.

그런 뒤에 부모에게 "지금 저에게 해 준 이야기를 자녀에게도 해 주세요. 오늘 직접 뽑은 무와 관련된 이야기라 재미있어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동이 자연스럽게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야외체험학습 장소의 시설 책임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기회가 된다면 야외체험학습을 하러 간 시설에서 책임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왜 어린이 집이 이주아동을 보육하는지, 왜 야외체험학습을 하러 왔는지 알려 줍니다. 리플릿 등의 자료를 보여 주면서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후 아동이 부모와 함께 방문했을 때 시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는 곧 지역사회가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부모 참여 야외체험학습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기획

부모들과 함께 장소를 선정합니다

부모와 함께 장소를 선정하면 '다른 이주민 가족들이 다녀온 곳이라서 우리 가족도 한 번 가 보고 싶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바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교사는 부모들에게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줍니다. 미등록 이주민 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 나들이 장소에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안심을 합니다. 또한 나들이 장소까지 각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과 오는 길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행사 일정은 일요일로 정합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토요일에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는 보통 일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행사를 진행하면 일요일에 충분히 쉬고 다시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지만, 부모가 모두 나들이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요일에 나들이를 하면 아동이 피로감이 다 풀리지 않아 월요일에 등원했을 때 컨디션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나들이 행사는 오후 3~4시경에 마무리하고 저녁시간에는 아동이 집에서 충분히 쉬면서 컨디션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부모의 고향과 비슷한 곳에서 야외체험학습을 합니다

부모의 고향과 비슷한 곳을 함께 방문하면, 부모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고 아동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역시 부모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아동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농촌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서 목장 체험에 익숙합니다. 소에게 먹이를 주거나 우유를 짜는 풍경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 우유로 만든 치즈를 활용해 피자를 만들어 보니 부모들도 처음 해 보는 거라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아동들에게는 소를 보는 것부터 피자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즐겁습니다.

부모와 함께 지역 내에서 숲체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숲체험에서는 나뭇가지·솔방울·잎사귀를 모아 액자를 만들어 봅니다. 흙을 바른 나무 기둥에 자연물을 붙이면서 부모 얼굴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고향과 비슷한 풍경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새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산에서 무엇을 하고 노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동네 뒷산에서도 아동들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고, 산으로 가는 대중교통도 편리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국 국적의 아동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야외체험학습을 합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한국 국적 아동과 가족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내 자녀 또래의 한국 국적 아동들은 무슨 놀이를 하는지, 친구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가족들과 어디에 놀러 가는지, 부모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등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는 자신도 자녀와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자녀가 한국 국적 아동들과 쉽게 공감대를 만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궁금증입니다. 이런 부모들을 위해서 자연스 럽게 한국 국적 아동과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야외체험학습 장소의 시설 정보를 미리 알려줍니다

모유수유실, 유모차 대여 등의 시설 정보를 부모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한지도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정보인데 이주민은 잘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시설의 안내판은 주로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아동들이 매우 좋아 하는 동물 먹이주기 행사, 동물 쇼 등이 있어도 부모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만한 세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가족을 배려합니다

단체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여행자 단체보험을 듭니다. 아동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해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고 부모의 서명을 받습니다.

만일 어느 가족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이 불안해서 학습에 참가하지 않으려 한다면 따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는 해당 가족이 소외된 느낌을 받거나 위축감이 들지 않도록 인솔자 중 한 사람이 동행해 함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에 주요 장소를 표시해 줍니다

나들이 장소에 도착하면 단체로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에 점심시간에 모일 장소를 공지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부모들은 사람들에게 길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되도록 시설의 지도나 안내 리플릿을 준비해서 모임 장소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가족 나들이인 만큼 단체로 모두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부모가 아동을 잃어버리거나 아동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든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인솔 교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 줍니다.

또한 공지나 안내, 기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가족의 위치를 파악할 때 대화로 소통하기가 어렵다면, 부모에 게 주변 시설을 사진으로 찍어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합니다. 교사는 사진을 보고 가족 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진을 촬영해 줍니다

가족 나들이는 가족사진을 촬영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주민 가족들은 함께 나들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나들이 장소에 멋있고 아름답게 잘 차려 입고 옵니다. 가족 단위로 흩어진 뒤 인솔교사가 가족들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다 자연스럽게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가족 수가 많고 활동 장소가 넓어 인솔교사가 동선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심시간, 간식 시간 등 다 같이 모이는 때를 활용해 가족사진을 촬영합니다.



가족과 동행하면서 부모와 대화합니다

교사는 가족이나 아동의 사진을 촬영해 주면서 30분 정도 가족과 동행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상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 줍니다. 부모 역시 자연스럽게 육아의 고충이나 한국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아동과 부모의 대화 및 놀이 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아동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양육 방식을 추측할 수 있고, 이후 이와 관 련해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의 주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프로그램 평가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평가를 요청합니다

나들이 후에는 부모에게 평가를 요청합니다. 그렇다고 따로 시간을 내 달라고 요청해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딱딱하게 평가를 진행하기보다는 부모가 아동을 하원시키러 왔을 때 짧게 구두로 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장소·음식·시설·시간대·안전 등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등을 묻습니다. 이를 다음 가족 나들이 행사 기획에 참고하면 더 좋은 행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기록해 업무에 활용합니다

부모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부모와 아동이 소통하는 모습 등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모가 아동과 소통하거나 놀아 줄 때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한국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기록해 이후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 기획에 활용합니다.



4) 연계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은 학교나 기관, 기업과 연계해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보다 저렴하게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운영 예산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싶을 때는 연계 프로그램이 좋은 방법입니다. 인력이나 예산을 보강하여 야외체험학습부터 보육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연계 보육 프로그램 기획

함께 할 만한 기관, 학교, 기업 등을 발굴합니다

지역 기관과 연계하고 싶다면 지역 내 네트워크 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주민·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보육 관계자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연계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상황을 알립니다. 지역 내 다문화 유관기관 네트워크모임을 통해 연계 기관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와 연계하려면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교에 어떤 봉사 동아리가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 프로그램과 봉사 동아리의 성격이 서로 잘 맞는다면 연계를 제안합니다.

기업의 경우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이 기업의 특성과 잘 맞는지를 먼저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대부분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의 부서 안내를 살펴보면 사회공헌팀이나 대외협력팀, 홍보팀 등 어떤 유관부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부서에 연락해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 어린이집과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정보

경우에 따라서는 제안을 받은 담당자가 '어린이집'이라는 시설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주민 또는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았던 곳이라면 이주아동 이

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직접 손 편지를 쓰고 리플릿도 준비해서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아동들에게 필요한 보육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어린이집입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아동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들의 상황

어떤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아동들의 한국어 소통 수준은 어떤지도 함께 알려 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동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해당 기관이나 기업 등도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가치와 기대효과를 잘 설명해야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연계 프로그램 진행

1 학교 연계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해 아동들의 관계를 확장해 줍니다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 아동들과 일대일 짝꿍을 맺고 시장에서 장보기 놀이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직접 그림을 그려넣은 작은 보조가방을 선물했고, 어린이집 아동들은 이 가방을 메고 시장에 갔습니다. 아동들은 시장 구경을 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각자 천위 어치씩 간식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에는 아시아 국가의 식자재를 파는 가게도 많습니다. 이주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외국 식당들과 외국 식자재를 팔고 있는 곳이 있구나.' 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중학교를 방문해 중학생들과 짝꿍이 되어 운동회를 하고 페이스페인팅도 했습니다. 이 중학교는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이런 어린이집이 있고 지역사회에 이주아동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주아동들은 주로 외동이며 사촌들은 모두 부모의 고향에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아동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 아동들은 수줍어하면서도 짝꿍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뒤에도 아동들은 일주일 간 '형, 오빠, 언니,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짝꿍이 자신을 보호해 주며 함께 놀아 준 경험이 아주 즐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하면 청소년에게는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아동들에게는 동네 형, 오빠, 언니, 누나와의 추억을 만들어 줄 수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활동한 사진을 부모들에게 보여 주면 '같은 동네 아이들이 우리 아이와 좋은 추억을 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거리감도 조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필요한 활동을 적극 제안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동아리가 한 아름 짐을 들고 어린이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함께 프로그램을 했던 동아리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비누 클레이를 들고 와서 어린이집 아동들과 일대일 짝꿍을 맺고 활동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클레이 활동을 하지만, 그 동안은 가정에 가져갈 정도로 넉넉하게 재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교사는 동아리 인솔교사에게 '소근육 발달이 늦는 아동들이 있다.'고 미리 알려 주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근육 발달에 좋은 프로그램과 재료를 준비해 준 것입니다.

동아리에는 인지가 조금 느려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학교 적응이 어려워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참여동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 동아리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② 이주민센터 연계 프로그램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센터와의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미술체험·갯벌체험·여름캠프 등 센터에서 이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 줍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족나들이행사를 자주 열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아동들은 이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여러 국적의 또래 아동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부모들 역시 같은 지역의 이주민 부모들을 만나 육아 고충을 털어내 기도 합니다.

❸ 지역기관 연계 프로그램

지역시민 모임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그림책 관련 활동을 하는 지역 시민모임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의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어린이집에는 중도 입국을 해서 한국어가 서툰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자주 책을 읽어 주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인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2년 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아동들에게 한국 전래동화 책을 읽어 주기도 하고 여러 나라 문화를 다룬 책을 읽어 주기도 합니다.

봉사자들은 동화구연 수업 자체를 매우 즐거워합니다. 또한 아동들의 반응이 조금씩 능동적으로 바뀌고 한국어 실력이 늘 때 보람을 느끼고, 이를 무엇보다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봉사자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2년 이상 꾸준히 이어 질 수 있었습니다.

지역 전문 봉사자를 통한 프로그램 연계

아동에게 언어, 신체발달 등 영역별로 개별화 학습 지도가 필요할 경우 여러 지역 기관들에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은 개별화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기관의 활동가나 관계자들에게 아동의 상황이 알려지게 됩니다. 개별화 학습에 필요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직 한국어가 서툰 아동이 있었습니다. 동화구연 자원 봉사자가 1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을 방문해 해당 아동의 수준에 맞는 그림책으로 일 대일 동화구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동은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화책에 집중하는 시간도 짧습니다. 아동이 동화책에 흥미를 잃을 때는 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놀이를 하면서 아동의 한국어 실력에 맞춰 일대일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동화구연 자원봉사자는 종이접기나 만들기 활동을 좋아하고 관련 수업을 진행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상황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기업 연계 프로그램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베트남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와 연계해 야외학습 프로 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이 아동과 일대일 짝꿍이 되어 아쿠아리움을 관람 하고 캐릭터쿠키 만들기도 체험했습니다.

여행사측이 먼저 학습장소를 물어 보았을 때 어린이집은 이 두 곳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입장료가 만만치 않아 엄두를 못 냈었고, 쿠키 만들기는 일대일 보육이 필요했습니다. 여행사는 어린이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짝꿍을 정합니다

짝꿍은 아동의 특성에 맞춰 선정했습니다. 봉사자 리스트를 요청하면서 육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따로 체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육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주 분유를 먹여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하는 영아 아동의 짝꿍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형을 잘 따르는 아동은 남자 직원과 짝꿍을 맺어 주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아동도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짝꿍을 맺었지만 낯가림이 풀릴 때까지는 교사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봉사자에게 전달합니다

봉사자 리스트를 미리 받아서 이름표를 만들고, 이름표 뒷면에는 짝꿍이 된 아동의 성격과 특이사항, 담당교사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넣어 두었습니다.

또한 "진아는 팔이 잘 빠집니다. 주의해 주세요.", "유나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엉덩이가 변기에 빠지지 않도록 잘 잡아 주세요.", "중현이는 음식을 잘게 썰어 주어야 잘 먹습니다.",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체력을 잘 보충해 놓으세요^^" 등 짝꿍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서 전달했습니다.

봉사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전화번호도 교환했습니다.

어린이집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대해 설명합니다

출발 30분 전에 어린이집에서 봉사자들을 만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봉사자들과 건물 내부를 함께 둘러보며, 어린이집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짝꿍과의 첫 만남도 어린이집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동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만나면 처음 만나는 짝꿍도 덜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은 짝꿍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타러 갑니다.

※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성인 봉사 참여자는 보건증 등의 서류를 행사장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

아동과 친해질 수 있는 팁을 봉사자에게 알려 줍니다

버스 안에서는 아동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옷에 그려진 멋진 로봇, 예쁜 목걸이 등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짝꿍을 쳐다보기 쑥스러워하는 아동과는 셀프카메라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얼굴을 익힙니다.

봉사자가 짝꿍 아동과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미리 팁도 알려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아동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고 한국어가 서툰 아동에게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 달 라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 교사들과 원장은 낯가림이 심한 아동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 분 유 주는 시간과 기저귀를 자주 확인해야 하는 만 0세 아동과 동행합니다.

교사는 한 발 물러나 짝꿍과 아동을 관찰합니다

아동이 교사를 찾지 않는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봉사자와 아동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아동이 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을 때도 교사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아동을 직접 도와 주면서 서로 친해지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짝꿍들이 만난 지 3~4시간이 지나고 함께 점심도 먹었습니다. 이제 아동들은 제법 짝꿍과 친해져 있습니다. 짝꿍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담임교사보다 짝꿍을 먼저 찾기도 합니다.

종료 후

각자의 평가회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 어린이집과 여행사측은 각자 내부에서 평가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평가 내용은 이후에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아동들은 연계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일주일 내내 아쿠아리움이나 짝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임직원 봉사자들도 아동들이 보고 싶어서 베트남 과일을 들고 어린이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방문에 함께 하지 못한 여행사 대표나 다른 임직원들과는 화상채팅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한 여행사 직원들은 베트남에서 자신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아동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들과 함께 베트남 과일을 맛보고 과일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때 아동들이 그린 과일 그림은 여행사 고객에게 증정하는 보조배터리 디자인에 활용되었습니다. 디자인에는 과일 그림과 함께 모국어로 쓴 아동들의 이름,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도 들어갔습니다. 나들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기업의 고객과 어린이집이 만나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4. 건강관리

모든 보육교사는 아동의 건강과 영양에 대해 섬세하게 신경을 씁니다. 특히 이주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는 더욱 더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도 제대로 병원에 다니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주아동의 건강·영양과 관련해 보육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담아서 이주아동의 건강과 영양 관리에 가이드를 제시하고자합니다.

1) 질병·사고 시 대처

(1)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아동을 위한 지원

아동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를 겪으면서 자라지만, 이주아동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한 번 가는 것조차 부모 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생후 13개월 된 베트남 국적 아동 다휘는 열성 경기를 일으켜 병원에 5일 간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1주일 후 다시 폐렴에 걸려 1주일 간입원을 했습니다. 다휘는 미등록 외국인이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부모는 남들보다 5배 이상 비싼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다휘를 본국에 있는 조부모에게 보냈습니다. 다휘는 한 달 정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적응도 잘 했는데 결국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된 것입 니다.

베트남 국적 아동 메이(만 1세)는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팔이 아프다고 합니다. 교사가 유심히 살펴보니 팔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소아과 병원에 달려가 바로 팔을 맞추었는데 "아이의 팔이 생각보다 잘 빠지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진료이지만 메이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소아과 병원에서 한 번 갈 때 드는 진료비는 5천 원 정도지만, 메이의 부모는 3~4배 이상 진료비를 내게 됩니다.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안전공제회 화재보험 등 어린이집이 가입한 보험이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에 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입소 시에 보험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미리 안내해 줍니다. 보험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와 함께 책임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습니다.



의료 관련 예비비를 책정합니다

때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아동의 의료비를 어린이집이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의료 관련 예비비를 책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이주아동이 대부분 비급여로 진료를 받기 때문에 한국 국적 아동들보다 몇 배 높은 의 료비가 청구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찾아봅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지역의 소아과 병원과 협력해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건강보험 가입 시에 적용되는 비용만 내고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 주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에 협력이 가능한 병원이 있으면 교사에게도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회나 약사회, 또는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병원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연계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서비스를 소개해 줍니다

• '희망의 친구들' 의료공제회 서비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의료공제회는 이주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입 후 3개월부터 외래진료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상황에서는 가입 직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비 1만원을 내고, 매월 회비도 1만원씩 내야 합니다. 지역마다 공제회 관련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는 협력 상담소가 있으니, 부모에게 상담소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 줍니다.

• 보건복지부의 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을 위해서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외국인 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은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산전 진찰이나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사업 시행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에 문의를 해야 하고 여러 구비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때로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이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픈데도 등원한 아동에 대한 보육

이주민 부모들은 열이 나고 컨디션도 좋지 않은 자녀를 등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픈 자녀와 떨어지기 싫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쉴 수 없는 부모들은 마음을 다잡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생후 13개월 된 방글라데시 국적 아동 아카스가 부모 품에 안겨 울면서 등원을 합니다. 빨간 얼굴을 보니 밤새 열에 시달리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열감기는 다른 아동들에게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카스 엄마는 "저 일 안 가면 안 돼요. 밤에 열 났어요. 약 먹여 주세요."라고 말하고 서둘러 어린이집을 나섭니다. 엄마는 눈시울이 많이 붉어져 있었고, 미안한 마음에 제대로 교사를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비상업무체계 및 봉사자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독감 등 전염성 질병이 걸린 아동은 어린이집에 등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동의 몸 상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라면 부모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되도록 어린이집 에서 아동을 돌봐 줍니다.

이때는 반 편성과 보조교사 편성을 바꿔서 아픈 아동을 격리 보육해야 합니다. 미리 이렇게 어린이집 인력이 급히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 업무편성 체계를 미리 수립해놓고 봉사자 비상연락망도 갖추어 두면 좋습니다. 봉사자들에게는 미리 건강검진 확인서를 받아 놓고 바로 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연계

부모의 체류상황과 근무환경을 이해해 줍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연차나 조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연차를 냈다가 자칫 회사에 밉보여서 일자리를 읽을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주민은 부당하게 해고되어도 대응하기 힘듭니다. 한번 직장을 잃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비전문취업비자(E-9)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을 옮기지 않아야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픈 자녀를 품에서 떼어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질병과 등원에 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안내합니다

아동이 걸렸을 경우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안 되는 질병들은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세요. 부모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정보를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지 자료를 제공해도 좋습니다. 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독감 유행 시기, 환절기 등에도 반복적으로 알려 줍니다.

(3) 의료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

아동에게 의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장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어느 날 베트남 국적 아동 민후(만 4세)가 등원했는데 얼굴에 혈색이 돌지 않습니다. 민후는 놀이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후부터는 구토와 설사를 시 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민후 는 열까지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상황입니다. 부모에게 메시지를 남겨도 연락이 없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새 소아과 병원이 문 닫을 시간이 다가 왔습니다.

결국 원장이 택시를 불러 민후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도가 되자 민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가일하는 곳은 모두 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은 12시 점심시간과 오후 5시 간식시간뿐이었습니다.

부모와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을 알아 둡니다

부모가 근무시간에 언제든 교사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만일 휴대 폰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언제 통화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놓습니다.

대체 보호자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합니다

긴급의료 상황에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누군가 대신 의사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 보호자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부모들은 보통 한국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척의 연락처를 알려 줍니다. 가 끔씩은 한국인 직장 상사나 고용주의 연락처를 알려 주기도 합니다.

사전에 책임 문제를 논의하고 서면 자료로 남깁니다

상황이 긴급한데 아무와도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판단으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부모의 동의서를 미리 받아 놓습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어떻게 책임이나 비용을 정할지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서류로 만들어 부모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연기

아동의 상황을 적어 메시지로 발송해 줍니다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아동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직장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조퇴를 하고 싶어도 한국 어가 서툴러 고용주에게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아동이 아플 때는 부모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조퇴할 수 있도록 교사가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 줍니다. 부모가 이를 고용주에게 보여주면 보다 쉽게 상황을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 건강관리

(1) 자녀의 질병을 잘못 인지하는 부모와의 소통

사는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도 달라집니다. 한국인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아토피나 새집증후군도 아파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생긴 질병입니다.

이주민 부모가 살아 온 고국의 환경과 자녀가 현재 살아가는 한국의 환경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이 겪는 질병을 부모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부모들은 아동의 상황을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중국 국적(조선족) 아동 수현이(만3세)는 아토피를 앓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가면 피부가 싹 나았다가도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수현이는 항상 아토피에 예민한 상태라서 낮잠도 잘 못 자고 컨디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수현이의 피부병이 아토피인지 잘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피부역에 좋다는 연고를 사 와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수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는 대처법을 잘 몰라서 아토피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가구나 장난감 등을 쓰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아동의 질병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아동의 질병에 대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준 약을 사용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교사가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병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동안 아동의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도록 권해야 합니다.



우호적 병원을 통해 정확한 의료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이주민 부모는 의사를 만나서 상담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를 잘 모르고 한국어가 많이 서툰 부모는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들은 진료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되어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들에게는 이주아동 무료진료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이주민센터를 통해서 무료진료를 해주는 병원이나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주민센터가 의료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이주민센터라면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나 관련 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사가 이주민센터에 방문해 무료진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질병관리 및 예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부모가 의사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면 진료 도중에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도록 안 내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사가 의사로부터 직접 아동의 증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 통역을 통해 부모에게 아동의 증세와 관리 방법 등을 이야기해 줍니다.

질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누리,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들도 이주민들을 위해서 질병 관련 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해 무료로 배포합니 다. 교사가 이같은 자료를 제공해 주면 부모가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자녀의 질병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2) 독특한 자가 치료법을 쓰는 부모와의 소통

나라마다 고유의 자가 치료법이 있습니다. 풍습에 따라서 감기 걸릴 때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아동이 멀미를 하면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이주민 부모는 자녀가 멀미할 때 절대 단 것을 먹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부모들은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가 치료법으로 자녀를 돌보려 합니다. 때로는 아동이 몸에 랩을 둘둘 말거나 가슴에 약재가 담긴 팩을 붙이고 등원하기도 합니다.



되도록 부모의 자가 치료법을 따라 줍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가 치료법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치료를 받아서 나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교사도 부모의 자가 치료법대로 아동을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치료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이 몸에 랩을 말고 왔으면 언제 랩을 풀어야 할 지 확인하고, 몸에 약재 팩을 붙였다면 언제 떼야 하는지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자가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면 대안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가 치료법만 고수하면서 다른 치료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가 치료법으로도 아동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같은 질병을 겪는 자녀에게 약을 복용시킨 부모를 소개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 한약 등의 다른 치료법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3) 건강한 식재료 정보를 모르는 부모와의 소통

교사들은 부모가 보내온 이유식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유식에서 과자나 조미료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동에게 이런 이유식을 먹여도 되는 것인지 교사는 걱정이 됩니다.

알고 보니 부모는 원하는 식재료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림짐작으로 재료를 구매하다 보니 실수로 건강하지 못한 식재료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국적 아동 하은이(만 13개월)의 부모가 집에서 만든 이유식을 보내 왔습니다. 이유식 통을 열어보니 새우과자 냄새가 났지만 새우는 보이지 않 았습니다. 하원할 때 부모에게 물어 보니 새우과자를 으깨어 이유식에 넣었 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새우 가루를 일상적으로 요리에 사용하고 이유 식에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새우 가루를 찾지 못해서 새우 그 림이 그려진 과자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동 이로다(만 2세)의 부모가 약간 걸쭉해 보이는 이유 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동에게 먹이기 전에 교사가 먼저 조금 맛보았습니 다.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 초코 맛의 통밀 비스킷 과자였습니다. 부모에게 물어 보니 그 과자가 맞습니다. 과자를 으깨어 우유에 섞어 죽처럼 만들었다 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밀이 주식인데, 과자 겉포장에 밀 그림이 그려진 데다가 초코 맛이어서 이로다가 잘 먹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소개해줍니다

이처럼 이유식에 적합하지 않은 식재료가 사용되면 교사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보다 건강한 식재료로 이유식을 만들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새우 가루, 통밀가루 등 부모가 이유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식재료를 어디에서 살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실제 상품 이미지를 함께 보여 주면 부모가 보다 쉽게 구매할수 있습니다.

관찰 기록을 근거로 부모와 대화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건강하지 않은 식재료를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관찰과 기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1주일은 계속 부모가 만든 이유식을 먹이기로 하고, 그래도 아동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유식을 바꾸기로 약속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아동에게 어린이집에서 직접만든 이유식을 먹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상태와 변화도 기록합니다.

이처럼 기록을 만들어 놓으면 이유식을 바꿔서 아동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재료와 조리법을 보여 줍니다

이유식을 바꾼 뒤 아동의 건강이 좋아진 경우에 부모는 새로운 이유식 요리법을 물어 보지 못합니다. 교사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럴 때 교사는 "괜찮아요. 제가 엄마였 어도 아이한테 다른 음식 먹이는 게 무서웠을 거예요. 엄마 마음 이해해요. 이제 아이 아픈 것도 나아지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면서 이유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유식을 만드는 요리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 주면 부모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아동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아동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여 달라고 교사에게 요청합니다. 자녀에게 낯선 음식을 먹이는 것이 겁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에는 음식에 더욱 예민해집니다.

또한 부모들이 모국의 주식을 아동에게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라에 따라서는 영양의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부모의 마음이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 주기 전에 교사가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아동의 건강입니다. 부모가 만든 이유식을 먹으면서 아동이 아플 때, 영양 부족으로 피부가 벗겨지거나 혈색이 돌지 않을 때는 이유식을 바꿔야 합니다.



(4) 아동 건강에 해로운 주거환경의 개선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다닙니다. 아동들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반지하 방이나 가건물 쪽방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동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베트남 국적 아동 휘이(만 0세)는 1년에 2번이나 폐렴으로 입원하였습니다. 휘이는 미등록 상태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입원할 때마다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휘이가 다시 아프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서 먹였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먹는 음식이 문제일까 봐 죽과 보리차를 만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원장이 동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휘이는 다시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폐렴에 걸리는 것인지 교사는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주거 환경이 문제는 아닐까 생각하고 부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휘이의 집은 반지하 방이었는데,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교사는 왜 아동이 자꾸 폐렴에 걸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집은 천장과 벽에도 온통 검은 곰팡이가 진 상태였습니다.

아동의 행동을 관찰해 주거환경을 파악합니다

집에서 빨아서 보내 주는 이불·내복·수건 등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자주 살펴봅니다. 아동이 곤충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다가 다른 아동에게 "우리 집에 바퀴벌레 많아."라고 말하는 등 주거환경을 언급하면 이러한 내용도 잘 기록해 둡니다.

사실 교사가 부모에게 직접 주거환경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관찰 기록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정환경에 대해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방문을 시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방문을 시도합니다. 육아경험이 있는 원장이나 교사가 가정방 문을 해 보면 주거환경이 아동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교사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아서 부모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사생활을 노출했다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거환경이 아동의 건강을 해친다고 의심되면 교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 방문을 시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교사나 원장의 방문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지역 이주민센터에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주민센터 활동가들은 이주민들과의 왕래가 잦습니다. 부모들은 활동가들을 '언니'라고 부르며, 편하게 만나 상담도 합니다. 이처럼 이주민센터는 어린이집보다 이주민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하는 것도 좀 더 쉽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또한 가정방문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역 환경단체가 이주민 가정의 전구를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의 부모들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체의 사업 담당자와 서비스업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들도 교사의 방문을 반겼 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꼈기 때문입니 다. 이렇게 주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가정 방문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거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겨울인데 댁에는 창가나 문가에 곰팡이 안 생겼어요? 저희 집도 빌라 인데 벽이 얇아서 겨울에 벽지 안쪽에 이슬이 차고 결국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라면 서 교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거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자 신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마음 편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조한 나라에서 살던 부모들은 집안의 습기나 곰팡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 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또한 바퀴벌레가 없는 나라에서 살던 부모들은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도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멸 효과가 별로 없는 살충 스프레이를 사거나 아동의 손이 닿는 곳에 살충제를 놓아 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올바른 주거환경 관리 방법을 부모에게 알려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연결해 줍니다

인근 이주민센터나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통해 문제가 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지는 비 영리단체나 복지관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이주아동의 가정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이주 민의 집을 무료로 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주민센터는 어린이집과 연계 해 이주민 부모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센터 활동가와 지원사업 담 당자가 함께 가정을 방문해 곰팡이가 심하고 벌레가 많은 집들을 수리했습니다. 가구나 블라인드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5) 장거리 등하원으로 아픈 아동의 상황 개선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단속을 피해 안전한 지역에 살면서 장거리로 어린이집에 등하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 아동 후이(만 1세)는 겨울 내내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약과 영양제도 먹는데 도무지 감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워인은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오는 등하워 길이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인 후이의 집은 어린이집에서 버스로 20분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처에 이주민이 많이 사는데, 이 때문에 후이의 부모는 인근 지역에 단속이 빈번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겨울에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분은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후이에 게 옷을 여러 겹 껴입혀 꽁꽁 감싼 뒤 집을 나섭니다. 사람들로 꽉 찬 출근길 버스를 타면 후이는 더워서 20분 가까이 땀을 흘립니다. 그랬다가 버스에서 내리면 찬바람에 땀이 식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겨울 내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체온이 급격하게 바뀌니 감기가 나아질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후이의 부모는 장거리 등하원으로 인해 자녀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단속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차마 이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사장연계

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사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단속집중지역을 피해서 시설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에 아예 어린이집과 멀리 떨어져 집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들에게는 지역의 같은 국적 사람들, 특히 체류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 같은 국적 부모가 있다면 하원 시 간에 맞추어 인사를 나누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어린이집 인근에 살아 보니 소문과 다르게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빈번하지 않아요.", "이 지역 사람들 모두 단속에 예민하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어요." 등 다른 이주민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부모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 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같은 국적의 부모가 없다면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찾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국적 부모를 위해서라면 필리핀 국적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과 상의해 같은 국적 부모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거문제를 도와줄 이주민센터와 연계합니다

지역 이주민센터와 연계해 부모가 참여할 만한 커뮤니티를 알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사할 때 부동산에 같이 가 달라고 교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주민이라서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부르지 않을지 걱정도 되고, 이사가려는 곳이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인지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럴 때도 인근 이주민센터에 통역과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리상담

(1) 심리상담 지원 배경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외부 기금이나 사업 등을 활용해 아동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아 동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아동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상황이나 생활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또래 아동들과 외모나 문화가 달라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은 어릴 때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기에 상담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상담 비용도 높아집니다. 한국 국적 아동들은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기회가 많지만 이주아동은 이같은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당장 긴급하게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동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 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도 지역의 심리센터와 연계해 1년 간 미술치료를 진행 했습니다.

이때는 주로 가정 및 체류 환경이 변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 가정이라 체류 형태가 불안정한 아동, 틱 증상이 의심되는 아동, 본국에 있던 형이 중도 입국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동 등이 프로그램 에 참여했습니다.

불안정한 체류는 아동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주아동의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체류'입니다.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국내체류 아동 실태조사에서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체류와 국적 문 제를 꼽았습니다. 체류 환경으로 인한 부모의 불안감은 자녀의 양육에도 매우 큰 영향 을 미칩니다. 부모가 단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출을 하지 않으면 아동도 바깥에 자주 나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아동은 외부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아빠가 고국에 갔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몇 개월째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와 아동은 매우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동의 체류 상황도 자주 바뀝니다. 혼자 부모의 모국에 보내졌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 오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맡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동은 누구와도 충 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 에 생존에 대한 불안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타인과 자신의 차이점을 알아가게 되는 시기에 이주아동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나만 피부색이 다른 걸까?', '나는 한국어가 쉬운데 엄마아빠는 어려워 하는 걸까?', '나는 왜 엄마아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걸까?', '왜 친구들이 나한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걸까?'

이같은 질문은 부정적인 경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거나 놀이에서 소외당한 경험, 부모가 자신의 말을 오해해서 혼을 냈던 경험 등입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차이를 인식한 첫 경험과 감정이 부정적인 경우 아동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 니다. 교사의 개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부정적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심리 상담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추가 업무에 따른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교사에게 매우 번거로운 업무입니다.

교사는 상담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도 해야 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교실에 아동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야 합니다. 때로는 심리상담가와 부모의 만남을 주선할 때도 있습니다. 만남이 여의치 않으면 상담가의 당부를 대신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 또는 상담가, 교사, 원장이 함께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교사에게 심리지원 일정관리 업무를 요청하거나 교사들이 돌아가면 서 상담 공간을 청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나눕니다.

때로는 아동이 심리치료를 마치고 바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흥분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원장이 잠시 아동을 맡아서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도록 역할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부모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심리상담을 먼저 진행하거나 아동 심리상담과 병행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부모 심리상담은 주말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민들은 평일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육 교직원의 주말 근무 일정과 이에 따른 대체휴가, 추가근무 비용도 고려해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지원에 대한 통역비 지원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녀의 심리적 문제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주민 부모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이때문에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우엔(만 1세)은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 다닌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엔의 엄마가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우엔이 눈을 자꾸 깜빡거리고 아파하는 것 같은데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센터와 연계된 안과 병원을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측에서 어린이집에 확인해 보니, 원장과 교사들은 우엔이 안과 질환이 아니라 틱 장애를 겪는다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원장은 부모 에게 "안과에 가서도 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으 니, 우엔이 안정감을 갖도록 많이 안아 주고 칭찬도 해 주세요."라고 말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센터에 전화해 다시 안과를 찾았습니다. 자 녀가 불안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럴 때 교사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 가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 때문에 결국 자녀를 퇴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교사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어야 합니다.

가정연계

심리치료센터나 소아정신과에 동행합니다

부모가 심리치료센터나 소아정신과 병원에 갈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도 동행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주민센터 활동가와 함께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활동가가 동행하되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나 원장 역시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직접 의사로부터 양육자나 교사의 역할에 대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상담 설문조사지 응답을 도와 줍니다

부모가 심리치료센터나 소아정신과에 가면 아동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의 한국어가 서투르면 조사에 제대로 답할 수 없으니 통역사가 함께 가면 좋습니다.

통역사는 같은 지역의 이주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혹시 같은 국적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자녀의 심리적 문제가 알려질까 걱정되어 통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다른 지역에서 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문조사는 '자해', '자살' 등 극한의 상황에 대해 묻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부모는 거부감이 들어 설문지 작성을 포기합니다. 이럴 때는 교사가 "이것은 마음에 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설문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없으면 '없다'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라고 부모를 안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5. 친구관계

PART 2. 이주아동과 즐겁게 지내기

아동이 유아기가 되면 교사보다는 또래 아동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이 더 중요해집 니다. 또래 아동들의 칭찬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부적응 행동을 수정 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래 아동들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주아동은 또래들과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언어적인 장벽을 경험하기도 하고 친구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든 감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주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겪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교사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1) 언어소통이 어려운 아동

중도 입국한 필리핀 국적 아동 데니스(만 4세)는 학기 중에 어린이집에 입소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자 아동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로 질문 공세가 이어지지만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데니스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아동들은 데니스를 친절하게 대하면서 어떤 놀이를 하는지도 보여 주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교사에게 다가와 불평을 합니다. "데니스는 말을 안 해요.", "엄마아빠 놀이를 하는데 데니스가 아빠인데 말도 안하고 물어 봐도 대답도 안 해 줘요.", "데니스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아동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데니스는 교사를 빤히 쳐다봅니다.



보육

적응이 필요한 아동에게 '꼬마 선생님'을 시킵니다

적응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교사를 도와 주는 '꼬마 선생님' 역할을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아동들과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교사에게 인정받은 아동은 또래 아동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동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울 때는 준비물을 나누어 주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해서 다른 아동들과 만날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줍니다.

아동들에게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알려 줍니다

한국말을 잘 모르는 아동과 어떻게 놀이를 하면 좋을지 같은 반 아동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친구랑 어떻게 놀면 될까?" 교사가 아동들에게 물어 봅니다. 아동들은 "한국어를 알려 줘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보여주면 돼요.", "놀이터 가요. 놀이터에서는 말 안 해도 재미있어요."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들이 이야기한 대로 수업계획을 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가 자유놀이 시간에 데니스에게 한국어 동화책을 읽어 주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자. 점심 먹은 뒤에는 △△가 데 니스에게 한글 낱말 카드놀이를 해 보는 거 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데니스와 함께 즐겁게 지낼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언어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동들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비언어적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낯설어서 대화를 어려워하는 아동, 장애 때문에 수화로 이야기하는 아동, 속상해서 말도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아동 등이 있습니다.

이같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표정으로 감정 나타내기', '수화로 표현하기', '몸으로 대화하기' 등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알려 줍니다.

무리에서 소외되는 아동은 교사가 함께 놀아 줍니다

또래 아동들에서 소외된 아동을 불러서 교사가 함께 놀이를 하면, 다른 아동들도 여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합니다. 아동들은 교사가 무엇을 하는지 늘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직접 개입해서 해당 아동을 무리에 끼우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동들이 서로 어울리게 되면 교사가 자연스럽게 놀이에서 빠집니다.

148

꼬마선생님



2)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주아동

중국 국적(한족) 아동 현이(만 2세)가 어린이집에 입소했습니다. 현이는 중 국에서 태어나 2살 때 한국에 왔고 그 뒤에도 부모와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 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소근육 활동도 서툴렀습니다. 또한 항상 교실 안을 뛰어다녀서 다른 아동과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교사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현이를 주시해야 했습니다. 틈틈이 현이의 소근육 활동을 돕고 한국어가 익숙해지도록 말도 자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에 있던 한국 국적 아동이 "선생님은 왜 현이하고만 놀아요?"라고 물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육

왜 도움이 필요한지 아동들에게 잘 설명해줍니다.

이럴 때는 해당 아동에게 왜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현이는 아직 힘이 부족해서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보다는 "현이가 손에 힘이 부족해서 가위로 색종이 오리는 것이 힘든 것 같아."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아동의 언어 및 인지 수준에 맞추어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의 상황을 이해해 준 아동을 많이 칭찬해줍니다. "현이가 가위를 처음 만나서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 주어야 해요. 다른 친구들은 혼자서도 씩씩하게 색종이를 멋지게 오릴 수있지요?"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준 아동들, 혼자서 씩씩하게 활동을 한 아동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아동들끼리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줍니다

해당 아동에게 도움이 왜 필요한지 다른 아동들이 직접 경험하게 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의 보람, 다 함께 놀면서 느끼는 즐거움 등을 배울수 있습니다.

교사: 현이가 손에 힘이 부족해서 가위로 색종이 오리는 것이 힘들어. 또 현이는 가위를 처음 보았어. 어떻게 도와 주면 좋을까?

지연 : 지연이가 가위로 다 오리면 현이가 풀로 다 붙여요.

중현: 제 가위는 안 무거워요. 제 가위 빌려 줄게요.

교사: 모두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지연이가 가위로 현이 색종이까지 오려 줄까? 중현이 가위는 가벼워서 현이가 오리기 할 수 있대. 중현아, 가위빌려 줘서 고마워.

아동들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제시하면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실행에 옮기도록 합니다. 만일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교사가 해당 아동에게 도움이 필요 한 상황을 다른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아동의 강점을 관찰합니다. 현이는 소근육 활동을 어려워하지만 달리고 점프하는 것은 참 잘 합니다. 현이에게도 다른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 줍니다.

"오늘 우리 장애물 점프해서 달리기 하는 연습을 할 거야. 지연이는 혼자 점프하기를 조금 무서워하니까 현이에게 잡아 달라고 해 볼까? 현이는 점프를 정말 잘 해."라고 말해 주며 서로가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경험하게 해 줍니다.



3) 친구와 모어로 대화하고 싶어하는 아동

베트남 국적 아동 디엔(만 5세)은 한국에 중도 입국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디엔은 놀이를 하면서도 베트남어로 혼잣말을 합니다. 마침 같은 반에는 4살에 중도 입국한 베트남 국적 아동 마이가 있습니다. 마이는 베트남어도 잘 하고 한국어도 잘 합니다. 디엔이 베트남어로 혼자 이야기를 하자 마이가 디엔에게 베트남어로 말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동은 계속 베트남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엔의 부모는 입소 신청을 하면서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빨리 향상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에서 는 한국어만 사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디엔은 자꾸 마이에게 베트 남어로 말을 겁니다. 마이는 "선생님이 한국어만 하라고 했어."라고 대답하지 만, 디엔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니 결국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디엔에게 마이는 답답한 마음을 풀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어린이집에 언어소통이 되는 친구가 전혀 없다면 부모의 바람대로 보다 빨리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아동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큽니다.



보육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동기 부여를 해 줍니다

아동의 모국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교사가 마이처럼 한국어과 모국어를 모두 잘 하는 아동에게 통역을 요청하면서 칭찬을 해 줍니다. 이를 통해 디엔처럼 아직 한국어를 못하는 아동에게 자신도 한국어를 배워서 교사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말을 하면서 쌓기놀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디엔하고 마이하고 선생님이랑 셋이서 한국말을 하면서 쌓기놀이 해 볼까?"라고 제안합니다. 디엔은 이미 쌓

기놀이를 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와 마이의 한국어 대화 내용을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언어를 잘 하는 친구에게 작은 미션을 줍니다

디엔과 마이가 역할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들이 소방관 옷을 입고 있을 때 교사가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교사: 마이야. 베트남어로 '소방관'이 뭐야?

마이: 린끄호아

교사: 그렇구나. 오늘 소방관 놀이 하면서 마이가 디엔에게 '린끄호아'가 한 국어로 '소방관'이라고 알려 주면 어떨까? 그러면 다음에 디엔이 다른 친구들과 소방관 놀이 하고 싶을 때 한국말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 : 네. 그럴게요.

이렇게 마이에게 미션을 주고 디엔이 "소방관"이라고 말하면 "디엔도 이제 '소방관'이라는 단어를 아는구나.", "마이가 소방관에 대해서 멋지게 잘 설명해 줬구나."라고 아동들을 모두 칭찬해 줍니다. 아동들은 교사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서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배우게 됩니다.



가정연계

부모가 아동을 더 많이 격려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국어를 못 쓰게 하면 오히려 한국어 공부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위축되면 대화 자체가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점을 부모에게 잘 알려줍니다. 앞으로 아동이 한국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부모를 안심시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사용을 너무 강요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부모가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참 잘 됐다.", "한국말 하려고 노력하느라 고생했다."라고 아동을 격려하도록 알려 줍니다.

4) 외모가 달라 소외되는 아동

(1) 낯선 체취를 가진 아동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체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국인들에게도 외국인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로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체취는 모두 다릅니다.

인도 사람들은 카레와 양파 냄새, 이탈리아 사람들은 마늘 냄새, 일본 사람들은 간장과 마른 생선 냄새, 베트남 사람들은 양파와 피시소스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특히 네팔 이나 인도, 혹은 중동 국가들처럼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식재료와 향신료를 많이 사용 하는 나라의 사람들 체취는 다소 특이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아동들만 있던 어린이집에 아프리카계 아동 샘(2세)이 입소했습니다. 5세반 아동들은 "얘, 냄새 나."라고 하며 코를 막습니다. 다른 아동들이 막 웃으니 샘은 어리둥절해하다가 함께 웃습니다.



향신료나 식재료를 통해 다른 냄새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 냄새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부모에게 가정에서 요리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향신료나 식재료를 갖고 오도록 요청합니다. 아동들이 직접 재료 의 냄새를 맡아 보고 맛도 보면서 요리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후각을 통해 서로의 차 이를 이해하는 다문화 보육의 효과가 큽니다.

문화별로 다른 주식을 함께 경험하도록 합니다

부모들에게 고국에서 주식으로 먹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아동들이 어린이 집에서 함께 맛보도록 합니다. 맛있게 먹는 아동도 있고 낯선 맛을 어려워하는 아동도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체취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부모가 만들어 준 음식을 친구들이나 교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동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2) 피부색이 남들과는 다른 아동

까만 피부의 미아(만 1세)가 어린이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들은 주로 베트남·중국·필리핀 등 아시아계라서 피부색도 비슷 했습니다. 피부색이 까만 사람을 처음 만난 베트남 국적 아동 도안이는 미아 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않은 채 같은 반 아동과 웃으면서 "얘 얼굴 까매, 이상 해."라고 말합니다.

미아를 하위시키러 온 아빠의 모습을 보더니 도안이는 "아빠 얼굴도 까매." 라고 말하며 다른 아동들과 웃습니다. 교사와 아빠가 미아의 하워을 준비하 는 동안에도 도안이와 여러 아동들은 "까만색이야."라고 말하면서 웃고 뛰 어 다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고 아동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동들은 '낯설다', '어색하다' 등의 감정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재미 있다' '신기하다'와 같은 단어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때 교사는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피부색이 까만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은 미아처 럼 까만 피부색을 가진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도안이는 처음이지?"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의 호기심을 풀어 줍니다.

여러 문화의 모습이 담긴 교구들을 비치합니다

유아는 이미 24개월 이전에 자아를 인식하고 만 2세가 되면 사람들의 유사성과 차이를 지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다양성을 경험하는 환경에 아동을 많이 노출시키는 것 이 좋습니다.

아동들이 자유놀이 시간에 다양한 교구를 갖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경험하도 록 합니다. 다문화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옷,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 스타일을 가진 인 형, 다양한 민족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과 국가를 맞춰 보는 퍼즐, 여러 형태의 집 모형 등을 비치해 놓습니다.

아동들은 어느 순간 히잡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계속 모자를 써요?"라고 묻거나 이글루에 대해서 "왜 이 집은 하얀색이에요?"라고 물어 보게됩니다. 이렇게 아동들이 호기심을 보일 때 각 나라의 의상·건축·음식 등 분야별로 수업을 진행해봅니다.



스킨십 활동을 통해 거리감을 좁힙니다

교사는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서로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안아 줄까요?"라고 아동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미아야, 사랑해."라고 말하고 미아를 안아 주면, 아동들도 집중해서 이를 지켜봅니다.

아동들은 "까만 피부는 차가울까? 뜨거울까? 거칠거칠할까? 힘이 강할까? 무슨 냄새가 날까?" 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이때 교사가 다른 아동들을 대할 때와 똑같이 웃으면서 미아를 안아 주면 아동들은 '나와 미아는 별로 차이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동들이 미아를 살짝 건드리고 도망갈 때에도 교사가 "미아랑 악수 한번 해 보고 싶었 던 거야?"라고 물으면서 서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교사가 먼저 소외된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합니다.

아동들이 미아에게 다가오기를 조심스러워 하면 교사가 먼저 미아와 노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아동들은 '선생님이 미아랑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 미아가 어떤 놀이를 하지?' 궁금해하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미아랑 아동들이 함께 놀기 시작하면 교사는 자연스럽게 빠져 줍니다. 이런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미아에 대한 아동들의 어색한 감정도 사라집니다.

다양한 외모를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동들의 사진을 모두 프린트해 벽에 붙여 놓습니다. 아동들은 자신의 얼굴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사진을 보며 각자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긴 얼굴, 동그란 얼굴, 긴 머리카락, 뽀글뽀글 머리카락, 작은 눈, 큰 눈, 하얀 피부, 까만 피부, 우리는 모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러 색깔의 스타킹도 좋은 소재입니다. 흰색·살색·검정색 스타킹을 준비해 신어 보고 그에 따라서 피부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어떤 색 스타킹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제일 따뜻했는지 표현하면서, 색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 봅니다.

아동들은 4살만 되어도 화장놀이를 좋아합니다. 화장품의 다양한 색상에 대해서도 이 야기를 해 봅니다. "우리 엄마는 화장할 때 눈에 검정 색깔을 많이 발라요.", "우리 엄마는 볼에 빨간색 발라요.", "저는 분홍색 바르고 싶어요." 아동들은 파우더나 아이섀도 등을 직접 발라 보면서 다양한 피부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아빠는 수염이 거칠거칠, 엄마 머리카락은 뽀글뽀글, 내 동생 피부는 말랑말랑", "아빠는 빵을 좋아하고 엄마는 밥을 좋아해." 등 한 가족 안에서도 구성원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어서 아동이 가정에서도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모에게 어린이집의 다문화 보육 환경을 보여 줍니다 부모에게 어린이집의 다양성 교구와 환경을 보여 줍니 다. 부모는 이를 통해 교사가 여러 국적과 문화의 아동 들을 존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동을 하원시킬 때도 부모가 잠시 어린이집에 들어와 서 자녀와 다른 아동들이 다문화 교구들로 어떤 놀이를 하는지 직접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부모가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 놀이 방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보육은 가정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와 부모의 육아방식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사들은 부모와의 소통을 항상 고민합니다.

이주아동 보육을 떠올릴 때 교사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크게 느끼는 부분도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국적 부모와도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부모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주민 부모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와의 소통과 갈등 사례, 부모참여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또한 부모들끼리 어울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도록 여러 어린이집에서 시도 했던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1) 부모와의 소통

전화 알림장 이외의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부모와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누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사의 말이 부모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적힌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부모가 내용을 읽어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알림장 사용이 낯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소통 채널은 '카카오톡', '네이 버 밴드'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메신저로 안내사항을 보내면 부모들은 주변에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여 주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알림을 잘 챙겨 보지 않은 부모에게는 식판을 활용합니다. 식판은 집에 가서 꼭 씻기 때문에 교사가 식판 뚜껑이나 주머니에 쪽지를 붙여서 보내기도 합니다.

감정 스티커를 활용해 아동의 상태를 알려 줍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상태가 어땠는지 부모에게 알려 주고 싶지만 언어 소통이 어려울 때는 여러 감정의 표정이 있는 스티커를 활용합니다.



























이미지와 사진을 적극 활용해 아동의 상태를 알려 줍니다

부모와 아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사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밥을 너무 조금 먹었어요. 집에서 꼭 밥 먹여야 해요."라고 말로 상황을 전달하기보다는 아동이 밥을 많이 남긴 식판 사진을 직접 찍어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단어를 번역한 리스트를 만들어 둡니다

건강과 관련한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유·투약·설사 등의 단어는 미리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통에 필요한 몇 가지 모국어 단어 리스트를 작은 종이에 인쇄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매우 유용합니다.

교사가 제일 자신 있는 언어로 대화합니다

교사가 맡은 0세 반에는 필리핀 국적 아동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한국어가 서툴러서 교사는 영어로 아동의 상태나 전달사항을 적어 보내곤 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부모들과는 영어로 소통하기도 어려워서 힘들어도 한국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베트남 국적 부모와의 소통은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교사와 대화하기 위해 부모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필리

핀 국적 부모는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국적 부모가 세세한 내용까지 영어로 묻기 시작하자, 교사는 부모와의 소통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교사는 부모의 모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더 많이 대화하면서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부모의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대화하려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사가 자신 있는 언어로 대화해야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하는 부모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한국어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부모에게 교사가 "아이를 위해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시나 봐요. 참잘 하고 계셔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라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주민 교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주방 교사로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했습니다. 마침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요리에도 자신 있는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새로 온 주방 교사는 필리핀 국적 부모들을 위해 통번역 을 도와 주기도 하고 교사들이 궁금해하는 필리핀 이야기도 들려 줍니다.



2) 갈등문제 해결

(1) 상황별 갈등문제 해결

₫ 한국 국적 부모가 이주아동과 함께 하는 보육을 꺼립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오감수업'을 진행한 날이었습니다. 부모와 아동이 모두 즐겁게 수업을 한 뒤 귀가를 하는데, 어느 한국 국적 부모가 원장과 잠깐 이 야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왜 우리 아이 반에 외국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 나요?"라고 묻습니다. 원장은 "외국 아동이 입소할 때 부모님들께 알려야 하는 건가요? 그 동안 새로운 아동이 와도 안내장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라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모는 "외국 아이가 오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외국 애랑 엄마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우리 아이 반을 바꾸어 주세요. 아니면 퇴소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원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이 부모의 자녀는 퇴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한국 국적 아동 4명도 함께 퇴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아동은 부모가 싫어한 이주아동과도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다른 반으로 옮길 이유가 없었는데 어린이집을 퇴소한 것입니다.

퇴소하겠다는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자녀가 이주아동과 함께 보육받는 것이 불편해서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킬 정도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물어 봐야 한국 국적 부모들의 인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이후 좀 더 나은 오리엔테이션과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같은 문제가 다시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 부모들의 답변은 "이주아동에게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한 국 국적 아동을 제대로 돌봐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이 한국 국적 아동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주아동에게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병이 옮을 것 같다.", "기본생활습관이 잘 잡히지 않은 이주아동을 아이가 따라할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 국적 부모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잘못된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아동 보육 경험이 많은 어린이집의 원장, 이주아동 보육권 관련 활동을 하는 이주민센터 활동가를 강사로 초청해 한국 국적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시간에는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의 생각도 충분히 들으면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와 원장은 항상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결정이 아동에게 이익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방치하지도 않고 어린이집이 건강하지 않은 환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부모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부모 간 갈등이 생기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해결합니다

중국 국적의 이주아동 한주와 한국 국적의 아동 중현이가 서로 먼저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다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중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한주가 뺏으려 하다가 결국 중현이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주와 중현이, 그리고 두 아동의 부모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사는 한주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한주한테 '미안해 중현아.'라고 말하라고 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주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중 국 사람이라서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사는 그저 한 주의 부모가 중현이에게 "우리 아이랑 다투다 그랬구나. 많이 아팠어? 미안 해. 다음에 조심해서 같이 잘 지내."라고 말하는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주민 부모에게서 "나의 국적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반응하는 것은 그 동안 체류 자격과 관련해 부정적인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국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국적에 대해 언급하는 등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 동안 국적이나 인종, 비자 문제로 인해 겪은 차별의 상처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교사는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 부모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국적 아동들이 많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매사 노심초사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적 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지역 사회에서 내쳐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문제가 커져서 경찰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 신변이 노출되고 한국 체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면 걱정과 불안 감이 더욱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 한국 국적 부모와 이주민 부모, 교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오해를 풀고 더 이상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주민 부모는 한국 체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낼 수 있습니다.

③ 한국 국적 부모들이 이주민 부모와 함께 부모교육 받기를 꺼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국적 부모들이 매 학기 진행되는 부모교육에 빠지기 시 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상담을 할 때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도 들어 보았습 니다. 한국 국적 부모들은 이주민 부모들과 수준이 맞지 않아 교육 내용이 유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주민 부모들과 따로 교육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주제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교육 은 단순히 교육적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들 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모교육을 이주민 부모와 한국 국적 부모가 함께 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전에 발표회나 운동회 등을 통해 부모들이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질 계기를 만듭니다.

부모교육 시간을 아예 부모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기획할 수도 있습니 다. 육아 경험이 풍부한 부모가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부모들은 육아 선배로서 자신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 부모들 간의 관계 형성

4 부모들이 동등한 관계를 만들도록 돕습니다.

한국 국적 부모가 이주민 부모를 친근하게 대하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어떤 한국 국적 부모들은 이주민 부모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육아를 할 때 "한국 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때 한국 국적 부모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런 조언은 자칫 상대방의 육아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을 듣는 이주민 부모가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으로 서의 삶과 육아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 국적 부모들은 이러한 세세한 감정까지 생각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도록 돕습니다

한국 국적 부모가 이주민 부모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방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경험 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좋았어요, OO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 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이주민 부모가 여러 의견들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합 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가 한국 국적 부모들을 잘 안내해 줍니다.

공감도 무척 중요합니다. 한국 국적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그랬겠다. 우 리 애도 그래."라고 말할 때 이주민 부모들은 더 힘이 난다고 합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한국 국적 부모 역시 자신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 다.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느낍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서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는 매우 중요합니다.

③ 부모들의 멘토-멘티 활동을 만듭니다



몽골 국적 아동 유나가 입소를 했습니다. 유나의 부모는 한국어를 할 줄 모 릅니다. 그래서 교사는 준비물이나 어린이집 생활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 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린이집에는 같은 몽골 국적의 아동 허진 이 다닙니다. 그래서 교사는 허진 부모에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같은 국적의 부모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는 '언어가 통하는 부모 에게 어린이집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진 부모에게 유나 부모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진의 부모는 흔쾌히 수락했고, 이렇게 어린이집에는 멘토와 멘티가 생겼습니다.



7개월 된 콩고 국적 아동 알란이 어린이집에 입소했습니다. 알란의 엄마는 20대 초반이고 알란이 첫 자녀입니다. 한국 생활을 한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게다가 알란의 아빠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말에 만 집에 왔습니다. 멀고 먼 타지에서 거의 혼자 자녀를 기르다 보니 엄마에 게는 모든 것이 모험입니다. 어떤 아기용품이 필요하고 어디서 구매해야 하 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알게 된 어린이집 교사는 통번역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한국 국적 부모가 떠올랐습니다. 이 부모가 아동을 데리러 왔을 때 알란의 이야 기를 해 주었더니 "안 그래도 콩고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아프리카 친구가 있구나 신기했어요. 무슨 사연으 로 여기까지 왔을까. 한국생활이 힘들지는 않을까 생각했어요."라면서 관심 을 보였습니다.

이에 알란 부모의 멘토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고 흔쾌히 수락을 받았습니다. 멘토가 된 부모는 알란의 부모와 함께 아기용품을 구매하고 식재료도 찾아 다녔습니다. 영어로 된 육아서적을 구하기 위해 함께 서점에 가기도 했습니 다. 멘토와 멘티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멘토-멘티 활동 방법

멘토-멘티 모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부모들을 대상으로 멘토 모집을 진행합니다. 보 통은 한국 국적 부모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민이나 제3국가 에 관심 있는 부모들입니다.

멘토들에게는 이주민 부모의 교사가 되기보다는 '친정 언니'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요청합니다. 장보기, 카페에서 수다 떨기 같은 평범한 일상 도 이주민 부모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교사가 예시를 들면서 관계 형성 방식을 알려 주면 멘토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멘토링 활동의 가치도 알려 줍니다. 멘티와의 관계는 멘토들이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멘토 경험을 토대로 자녀에게 다문화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이주민 부모와의 만남이 멘토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멘토-멘티 활동



활동의 내용과 만남 횟수는 멘토와 멘티가 스스로 정합니다. 이때 멘토와 멘티가 함께 참여할 만한 육아 및 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행사 등의 정보를 교사가 제공해 주면 두 사람이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린이집 원장이 활동에 참여해서 조언이나 격려를 해 주는 것 도 좋습니다.

멘토-멘티 활동 후

어린이집 부모들이 모두 모이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수업 시간에 짧게 멘토-멘티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소감도 공유합니다. 멘토-멘티가 활동한 사진으로 만든 포토 북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나면 어린이집의 다른 부모들도 '멘토-멘티 활동이 매우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음에 멘토를 모집할 때는 부모들이 기존 사례들을 참고해 더 많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모 참여 활동

(1) 입소 전 오리엔테이션

☑ 이주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알려 줍니다.

대규모 민간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한국 국적 부모가 어린 이집을 찾아왔습니다. 부모는 "외국인 아이들이나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반에 자녀를 넣지 말아 달라, 아이들이 적어서 따로 반을 편성하기 어려우면 한국 국적 아이들을 모아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원장은 "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6명의 한국 국적 아동들이 한꺼번에 퇴소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뒤로 부모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우리는 다문화 통합 보육을 하는 곳'이라고 어린이집의 교육방향을 강조합니다. 또한 다문화 통합 보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자세히 알려 주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한국 국적 부모가 어린이집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이주아동이 적은 다른 어린이집을 추천해 줍니다.

'장애 통합', '다문화 통합' 등 '통합' 형식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은 통합 보육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통합 보육은 한국 국적의 아동과 이주아동 모두에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러한 가치를 한국 국적 부모들과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특히 한국 국적 부모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한국 국적 부모와 이주민 부모를 나누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부모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린이집의 운영 철학과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서로의 자녀들이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다가올 어린이집 생활을 기대하도록 합니다.

❷ 어린이집에 기부해 주는 사람이나 기관을 소개합니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가 낮기 때문에 외부 기금을 받아서 부족 한 운영 예산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어린이집을 도와 주는 분들과 기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면부모들이 한국 생활을 보다 따뜻하게 느낄 것입니다.

③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시각 자료나 번역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외부 프로그램', '신체활동', '적응 프로그램', '기본 생활습관' 등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한 용어들은 이주민 부모들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가장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사진 위주의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준비물에 대해 알려 주세요

한국어가 서툰 부모를 위해서 사진 위주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린이집 준비물이나 구비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 주면 부모가 보다 쉽게 준비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담요, 여벌 옷 등은 실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라면 '어린이집에서 왜 이런 것까지 필요 하지?'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준비물이 왜 필요하고 이런 준비물이 없을 때 아동이 왜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자녀를 보내거나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부모가 많다면 준비 물 공동 구매를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오리엔테이션은 되도록 일요일에 진행합니다

공단에서 근무하는 이주민들은 토요일에도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단 지역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라면 되도록 부모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국적 부모들은 일요일에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5 부모들이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미리 체험하도록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에 아동도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오리엔 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들은 교실에서 자유놀이를 하고 교사 중 한 명이나 봉사자가 아동들을 돌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에는 부모에게 자녀가 친구들과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날에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게 합니다. 이때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 주는 교구와 보육 환경을 보여 주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⑥ 인근 이주민센터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지역 이주민센터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면 이주민 부모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주민 부모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한국어를 잘 하는 부모들도 교사에게 질문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 이주민들을 잘 이해하는 이주민센터 활동가들이 있으면 함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활동가들에게 대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부모들은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주민센터와 친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주민센터의 참여는 한국 국적 부모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국적 부모들 은 평소에 이주민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활동가에게 물어 보면서 이주민 부모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부모상담

1 상담 준비

이주민 부모의 특성을 감안해 상담 일정을 정합니다

이주민 부모는 매일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부모상담 때문에 조금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고용주에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후 일과 중에 부모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한 달 전부터 일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고용주에게 빨리 상황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때 교사가 부모상담 안내문을 만들어 보내 주면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고용주에게 안내문을 보여 주면서 일찍 직장에서 나가야 하는 이유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늦은 저녁 시간에 상담을 진행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마음도 급해집니다. 교사와 부모가 간단한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여유롭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까지 상담을 진행한 교사는 다음 날 오전에 통합반을 진행하거나 보조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상담 설문지를 교사가 함께 작성합니다

보통 어린이집은 부모상담 설문 조사지를 가정에 보내서 부모가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민 부모들은 한국어 읽기 쓰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설문 조사지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는 부모에게 "1주일 후에 있을 상담을 위해 이 설 문지를 해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직접 설문지를 읽 고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으



니까 제가 직접 여쭈어 볼게요. 미리 답을 생각해서 3일 후에 아이를 데리러 오셨을 때 말씀해 주세요. 이때 30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일정에 꼭 참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생각해 온 답을 교사가 설문지에 직접 적습니다. 교사는 이를 토대로 부모상담을 진행합니다.

부모의 한국어가 서툴다면 통역사를 구합니다.

부모의 한국어가 서툴다면 반드시 통역사가 상담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일대일로 마주 앉아 긴 시간 대화하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때 설문조사에 대 한 분석,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찰, 이후 가정과 연계되었으면 하는 사항 등을 잘 전달해 야 합니다.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을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상담 일정이 잡히면 빨리 사람을 구해야합니다. 인근 이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또한어린이집 예산 중 통역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통역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담 진행

보통 교사들은 부모상담에서 아동 관찰일지를 바탕으로 아동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설문조사로 파악한 아동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모의 걱정과 궁금증에 대해 대답해 주기도 하고 부모가 어린이집 또는 교사에게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주민 부모와의 상담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상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부모의 정보력이나 언어소통 수준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상담하 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의 발달단계와 지도방법을 공유합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면 좋습니다. 아동의 상황이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만일 같은 연령대의 발달수준에 비해 너무 빠르거나 늦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자료를 활용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식사, 그룹 활동, 친구관계 등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함께 사진을 보면서 상담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활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황을 이해하기 쉽고 교사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집니다.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부모라면 통역사를 불러 소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건이 되지 못해 부모가 통역사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부모가 통역사 없이 교사와 단둘이 상담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당연히 언어소통의 한계가 있겠지만 교사가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좀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쉬운 말로 바꾸거나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 습득 능력이 정말 좋아요."보다는 "한국말을 잘 배우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 중 중요한 단어들은 적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의 한국생활 고충도 주의 깊게 들어 줍니다

부모가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에게 한국 생활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 종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경제적인 문제나 부동산 문제, 비자 문제에 대해 물어 봅니다. 심지어 어디에서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지, 온라인 쇼핑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육아와 상관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교사가

아동의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풍 가는 시기에 아이 아빠가 일을 그만둬서 추가비용 내는 것에 민감했구나.', '그때 집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부모의 표정이 좋지 않았구나.' 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원할 때 자녀를 데리러 온 부모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원장이 "날도 추운데 아이가 하원 준비하는 동안 차 한잔 하실까요?" 하면서 부모를 원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조용히 커피를 타면서, "날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라고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부모는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실컷 울고 자녀와 함께 귀가를 합니다.

사실 교사와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도 부모들은 이렇게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방인인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같은 국적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소문이 퍼질까 봐 겁이 나서 편하게 사정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실컷 울고 나면 부모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보다 건강한 마음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가정 양육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상담평가

상담 내용을 부모교육 기획 자료로 활용합니다

부모상담 내용은 이후 부모교육을 기획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만일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내용이 있다면 관련 주제로 그룹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각 자 고민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개별교육을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경험하는 고충이 비슷하다면 인근 이주민센터와 연계해 해당 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어린이집에 바라는 점을 잘 듣고, 이후 부모와 어떻게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면 좋을지 교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합니다

육아 이외의 한국 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상담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부모의 고충 상담 때문에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린이집에서의 상담은 보육에 집중하고 다른 영역의 문제들은 지역 이주민센터, 복지센터 등에 연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모교육

1 부모교육 준비

부모들과 함께 일정을 정합니다

교육 날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과 함께 정합니다. 되도록 부모들이 모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퇴근 후 늦은 시간이라도 평일에 교육받는 것을 희망하는 부모도 있고, 여유롭게 주말에 교육받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한 교육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모들의 국적이 다양할 경우 현장에서 교육 내용을 여러 언어로 통역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리 교육 자료를 만들고 여러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수립할 때 번역비를 책정해 둡니다.

때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동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교사나 원장이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 전무 강사를 초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유식을 너무 짜게 먹이거나 탄수화물 위주로만 음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는 이렇게 먹어도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고 부모는 말하지만, 아무래도 교사들은 자꾸 걱정이 됩니다. 아 동이 아플 때조차 부모는 간이 지나치게 센 음식이나 영양소가 부족해 보이 는 빵을 먹여 달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교사가 부모에게 아동의 건강과 영양관리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변

화가 없습니다. 자신이 준비해 준 음식들을 먹이지 않으면 화를 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오전에만 한 번씩 양치를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이렇게 아침에만 양치를 시킵니다. 이 아동은 가끔 이가 아프다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양치를 꼭 시켜 달라고 부모에게 당부하지만, 아동의 말에 따르면 저녁에는 여전히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교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도 더욱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전문가 교육을 기획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 뒤에 교육을 통해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들어 봅니다. 이때 교사도 꼭 교육에 참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면 교사들의 걱정과 달리 이주민 부모의 방식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제 선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부모상담 때 원하는 교육 주제를 물어 보고 기록해 놓을 수 있지만, 아동의 성장과 체류 상황에 따라 부모의 관심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것을 자주 물 어 보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교사가 일상적으로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교사가 평소에 이런 기록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교사가 일상적으로 부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하원 시간을 활용합니다. 신발장 위에 '부모교육 자료 모으기' 메모장과 펜을 놓아 두고 바로바로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면 편합니다. 이렇게 모인기록은 부모교육 주제를 정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또한 가정과 연계하려 했지만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던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합니다

부모교육에서는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보다 육아의 기본적 인 내용과 구체적인 정보부터 먼저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할 때는 기본 개념을 먼저 배우고 응용을 합니다.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달해 나갈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앞으로는 아동의 상황을 어떻게 관찰하고 대처할지도 설명해 줍니다.

이주민센터와 연계한 교육 주제를 기획합니다

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부모교육 주제를 기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어린이집보다 이주민의 육아 고충을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주아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이주민센터라면 부모 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센터는 교육 실행과정에서도 자료 번역이나 교육 통역 등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 주제별 보육사례

아동 발달에 대한 정보 교육

이주민 부모들은 아동 발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아동이 성장 단계에 맞게 행동하는 데도 부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해 아동을 다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발달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성장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2세 정도가 되면 혼자 숟가락과 컵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옷을 벗고 입는 등 자조 기술이 발달하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아동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킬 시기를 놓칩니다.

하루는 베트남 국적 아동 하미와 한국 국적 아동 현주가 크게 다퉜습니다. 하 위 시간에 교사가 하미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미가 책을 보고 있는데 현주가 책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서로 가지려고 다투다가 책 모서리에 쾅 부딪혔어요. 3세 아동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고 아직 협동이 어려운 나이라서 종종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집에서 꼭 약 발라 주세요. 저도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볼게요."

그런데 교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자, 하미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녀가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튀는 행동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외국 국적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아동 발단 단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라고 교사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주민 부모는 인터넷 검색을 해도 모국어로 설명된 육아정보를 찾기 힘듭니다. 주변에 자녀를 키워 본 같은 국적 사람이 없으면 물어 볼 곳도 없습니다.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물어 보면 타지에서 힘들어 하는 상황을 들킬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이집에서 교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애착 형성하기 교육

이주아동은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함께 지낸다 해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봐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이주민 엄마는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수입만으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계마저 빠듯해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지만 아기가 워낙 어려서 보육료가 너무 비쌉니다.

결국 부모는 생후 13개월이 된 자녀를 모국의 조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아동 의 격리불안은 생후 8개월부터 시작되어 12개월째에 절정에 달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자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후 부부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보육료가 조금 저렴해지는 3살 나이에 자녀를 다시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부모를 너무 낯설어 합니다. 부모와 떨어질 때도 울지 않고 부모가 데리러 와도 시큰둥해 합니다. 다른 아동들은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가지만, 이 아동은 부모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속상해서 울 때는 할머니를 찾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두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애착은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경험입니다. 아동은 이를 통해 대인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한편 아동과 떨어져 지냈던 부모의 마음도 괴롭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자녀를 고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동과 많이 놀아 주고 싶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피곤해서 집에 오면 쓰러져 잠들곤 합니다.

교사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 줍니다.

아동은 부모의 품에 안겨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일상적인 눈 맞춤도 좋은 스킨십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상대편 옷을 꾸며 주는 것도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부모와 아동이 각각 한 손으로 서로 포옹하고 나머지 손으로는 함께 그림을 그리면, 이런 행위도 좋은 스킨쉽이 됩니다.

자녀와 친해지는 방법 교육

애착 형성 시기를 놓쳤어도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 다. 아동과 1년 떨어져 지내면 관계를 회복하는 데 2~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유 를 갖고 오랜 시간 부모와 아동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교사가 제공한 사진이나 활동지를 가지고 부모가 집에서 아동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 도록 안내합니다. 교사가 "오늘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칭찬 많이 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오늘 친구한테 왜 양보했어? 양보 해서 기분 좋았어? 선생님이 그래서 칭찬 많이 해 주라고 하셨구나." 등의 구체적인 이야 깃거리를 갖게 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만든 놀잇감을 가정으로 보낼 때에도 이 놀잇감으로 어떻게 노는 지 아동이 어떻게 놀잇감을 만들었는지 등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좋 습니다. 아동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놀잇감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도 소중하게 이 놀잇감을 다뤄 주면 자신의 감정이 보호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 자존감 향상 교육

한국어가 서툰 부모들은 작은 일상에도 늘 예민합니다. 작은 문제가 생겨도 혹여나 체류 자격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을지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할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아동들은 부모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힘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에는 아동이 너무 어립니다.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 어가 부족하고 한국 생활과 육아경험도 미숙하지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장점을 이끌어 내고 자신의 나라에도 자부심 을 갖도록 도와 줍니다.

부모자존감향상교육 프로그램사례

강사가 부모에게 별명을 지어 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모두 자녀가 좋아하 는 것을 소재로 삼아서 별명을 짓습니다. 이어서 강사는 자녀의 장점이나 좋 아하는 색깔, 음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모들은 척척 답을 잘 적어 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자신의 장점과 좋아하는 색깔, 음식을 물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들이 답을 적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예 답을 적지도 못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취향을 적어 낸 부모들도 "베트남에서는 이랬는데...", "필 리핀에서는 저랬는데..."라며 한국에 오기 전의 상황을 회상합니다. 잊고 살 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랜 시간 한국에 살면서 장점을 펼칠 기회 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적이나 문화가 달라도 이주민 부모들은 모두 비슷한 고 충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한국 국적 부모들은 "이분이 원래 이 렇게 밝고 활동적이었구나."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을 이해하게 됩니다.

강사는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자신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을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적은 '하고 싶은 것'을 1주일 뒤에 열리는 다음 교육 전까지 꼭 해보라고 미션을 줍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가족사진 찍기', '아이와 고국 음식만들기', '남편과 영화 보기' 등을 적었습니다. 한국 국적 부모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다음 교육 시간에는 강사가 여러 가지 꽃 사진을 펼쳐 놓고 부모들이 직접 자신과 닮은 꽃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부모들은 그 꽃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 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국적인 한 엄마는 아스팔트 길모퉁이에 홀로 핀 꽃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고 칭찬도 하지 않아서 혼자 외롭게 사는 기분이라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엄마가 다른 꽃을 가지고 와서 "나는 시아 엄마가 이 꽃을 닮은 것 같아. 하원할 때 다른 아이들 만나면 잘 놀아 주고, 이번에 부모교육 때 보니까 활동적이고 잘 웃고…"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격려에 시아 엄마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운 뒤 교육 장을 나가는 시아 엄마는 좀 더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 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예쁜 꽃으로 봐 준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느 껴진 한국 국적 부모가 자신을 응원해 주니 마음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교사는 이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장점을 끌어 낼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영어를 잘 하는 베트남 국적 부모에게는 통역을 요청합니다. 이주민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와 영어가 모두 필요한 일자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많은 것을 장점으로 적어 낸 부모에게는 고국의 놀잇감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녀와 같은 반 아동들에게 고국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마음에 부모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활동력이 좋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 하는 것을 장점으로 적은 부모에게는 어린이집에서 문화수업을 진행하도록 부탁합니다. 부모는 바쁜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했 고, 서툰 한국어지만 자신감 있게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보육교사가 우연히 길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과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부모가 아동을 혼내고 때립니다. 아동은 계속 웁니다. 상황이 계속되자 주변 사람들이 멈추어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아동 학대 상황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미등록 신분인 이 가족은 한국에서 살 수 없 습니다. 교사가 부모를 말리면서 다행히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어린이집을 통해 이 사례를 알게 된 이주민센터는 지역에 있는 이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들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한국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아동학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반드시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주 생활 관련 정보 교육

한국 체류 상황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과 행복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보력을 키워 주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이주민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주민 관련법과 지역사회 정보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이주민 관련법을 교육합니다

체류 자격, 비자 연장 등 부모들이 체류와 관련되어 불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 교육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알면 부모의 불안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곧 아동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산재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동법·고용법 등에 대해 알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주민 관련법들이 바뀌어도부모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법 내용도 알려줍니다.

지역사회 복지정보를 알려줍니다

다른 한국 국적 아동들은 편하게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자신의 자녀가 다니지 못할 때 부모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이주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 알려 줍니다.

(4) 부모참여 수업

☑ 아동들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합니다

교사가 프로그램 계획서나 활동한 실제 사진들을 보여 주어도 부모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참여 수업을 통해 평소에 아동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부모가 함께 경험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숲체험이 대중화되었지만,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란 부모는 숲체험 사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교육이 되지? 왜 이렇게 비용이 들지?' 하면서 궁금 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오늘 숲체험 가서 도롱뇽 알을 보고 돋보기로 관찰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런 도시에 시냇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체육시설에 방문한다고 하면, '내 아이는 비자가 없어 보험에 도 들지 못하는데 이동 시간이 긴 건 아닐까? 시설이 과연 안전할까?' 등 안전에 대해서 도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들과 함께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러한 여러 궁금증들을 풀 수 있습니다.

❷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문화 체험을 합니다

새로운 한국 문화를 경험해 봅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모참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미 수업시간에 가르쳤던 한국 문화를 주제로 선택하면 아동은 배웠던 내용을 부모와 함께 다시 한 번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도 평소에 궁금해했던 한국 문화를 자녀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아동이 자꾸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교사가 태권도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태권 도복을 입은 친구의 모습이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태권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 궁금해합니다. 이럴 때는 부모참여 수업 시간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접 태권도 를 보여 줍니다. 아동들이 태권도복을 입어 보고 격파도 해 봅니다. 부모도 격파를 체험하게 하면 아동들은 모두 부모를 응원합니다. 부모가 격파에 실패하면 다 함께 웃기도 합니다.

한국은 유자청, 매실청, 귤청, 레몬생강청 등 과일로 청을 담급니다.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청을 담그는 것이고 건강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부모참여 수업에 아동들과 함께 귤청을 담가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귤이 많이 나는 제주도 이야기도 하고, 귤청을 곁들인 핫케이크를 만들어 먹으며 문화 체험을 해 봅니다.



국적이 다른 아동의 문화를 경험합니다

자녀와 같은 반에 있는 다른 국적 아동의 문화를 배우는 수업도 좋습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아동과 자신의 자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다양한 아동들이 함께 지내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됩니다. 이때 주제로 선정된 나라의 이주민 부모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면 해당 아동은 부모와 고국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베트남 국적 아동이 많은 반에서는 함께 월남쌈을 만들어 먹습니다. 부족 문화가 발달한 네팔 국적 부모들은 아동들에게 부족별 의상이나 전통 춤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

③ 부모를 위한 문화강좌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강좌가 다양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주민 부모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도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은 참여 신청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주민 부모들은 평일에는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주말에는 프로그램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주민 부모들을 위한 문화센터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좋은 카메라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사진 강좌를 열기도 하고, 네일아트에 관심 있는 부모들을 위해 네일 강좌를 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좌는 이주민 부모들의 자조모임 성격을 띠게 됩니다. 부모들은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도 채우고 다른 부모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때로는 부모들끼리 모이는 자리는 처음이라서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 정별로 고국의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파티 분위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요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들 사진전' 같은 행사를 만들어 부모들이 아동들의 사진도 보고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교육을 하기로 했다면, 분기별로 '연령대별 아동발달'에 대한 가정 통신문을 보낼 때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모국어로 된 내용은 부모교육 때 진행할 것' 이라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선물은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여한 부모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증정한다고 해서 부모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선물을 구매할 비용으로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외부 강사들이 말하는 '이주아동 보육' 말말말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이야기

이 맛에 이주아동과 함께 하지요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죠.

뿌듯한때가 많아요. 사춘기가되어서 또는 결혼해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고요. 중도 입국했다가 한국에서 처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봤는데 행복해서 울던 아동도 기억에 남아요.



아동이한국어로

저를 '엄마'라고 불러줄때,
말을 조금씩 트기 시작할때
너무 뿌듯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더 먹여 주고 싶고...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동들도 많은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라도
좋은 추억을 남겨 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소통이돼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군가가 '다문화 어린이집', '이주아동 어린이집'을 생각했을때 우리 어린이집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좋아요. 입소문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동들을 잘 보육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생각해요.



아동을 포용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 국적 아동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 나라의 문화를 찾아서 스스로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교사가 노력하면 부모들도 알아 주고 가정 양육에 좀 더 힘쓰는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죠.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동을 잘 관찰하여 그 기질을 파악하는 것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국적에 따른 차이는 많이 느끼지 못해요. 한국 국적 아동들도 다다른 기질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문화와 종교, 생활이 다다르니까요.

매주 동화구연 자원 활동을 해 보니 아동들은 집중력이 매우 낮았습니다. 한국어가서툰 아동들을 위해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살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동들도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으니 또 읽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 매주 아동들의 성장을 볼 수 있어서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나이, 경제력, 국적 등 모든 것을 초월해서 부모는 누구나자녀를 사랑합니다. 이주민 가족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동력이 되니까요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기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파트3.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기

1. 어린이집의 유형



1)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중에는 자체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지켜 주기 위해 설립한 어린이집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은 모두 이주아동입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도 이 같은 어린이집에 해당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가정어 린이집 형태로 인가를 받았으며, 자체적으로 이주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합니다.

이주아동만보육하는 어린이집에 한국 국적 아동이 입소를 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인가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한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주아동을 우선 입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도 인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한 국 국적 부모가 자녀를 입소시키려고 상담할 때에는 어린이집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이주아 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대해 교사나 원장이 이야기하면, 한국 국적 부 모들도 이를 이해하고 입소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참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4의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 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파트3.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기

(1)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특성

보육료를 저렴하게 받습니다

이주아동들은 정부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해 주는 부모 보육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온전히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많은 이주민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것도 높은 보육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크게 낮추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외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육료를 낮추다 보니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동의 입퇴소가 잦으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본 보육료도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외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을 받게 되면 아동들에게 필요한 보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하거나 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종종 여러 가지 사업의 제약도 발생하고 부수적 인 업무도 많이 생깁니다. 외부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정해진 산출 근거 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 지출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 야 합니다. 프로그램 보고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외부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담당인력을 두기도 하며, 교직원들끼리 해당 업무를 분담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외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의 예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바보의나눔 www.babo.or.kr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외부 지원사업에 계속 참여해야만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2006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외국인 전담 어린이집'을 지정해 보육교사 3인의 인건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외국인 전담 어린이집'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 지원 필요성을 뒷받침해 줄 기록을 만듭니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점점 채워 가는 상황은 그 자체로 해당 지역에 '외국인 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어린이집이 이주아동 보육권을 지켜 주기 위해 펼쳐온 활동,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온 과정을 기록해 지자체에 전달합니다.

•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어린이집의 존재를 알립니다

보통 시청이나 도청에는 보육정책과·가족다문화과·여성가족과·다문화정책본부 등 아동 및 이주민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책도 이런 부서의 관할 업무입니다.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어린이집의 존재를 알리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다문화 유관기관 네트워크나 어린이집연합회 회의 등 관련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주민을 더 많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주민 부모들이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주요한 이유는 보육교사의 '이주민에 대한 높은 이해도' 때문입니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이주아동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보육교사들은 이주아동을 통해 '특별한 보람'을 느끼며 일합니다.

아동이 한국어로 '엄마, 선생님'을 처음 말할 때,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에서 온 아동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 행복해서 울 때, 초등학교에 잘 적응해 자신을 만나러 왔을 때, 보육교사는 이주아동 보육의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사들은 모든 아동을 동등하게 대하고 이주민 가족의 한국 체류 상황을 보다 많이 이해 하기 위해 워크숍과 스터디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존 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다문화 통합 보육을 특화한 어린이집

(1)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한국 국적 아동과 이주아동을 함께 보육하면서 이주아동 보육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사업비, 지원 예산 비율은 지자체마다 모두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통합 어린이집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 1인의 인 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이렇게 지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통합 어린이집'에 대 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하도록 행정 권고를 합니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으며, 현재 어린이집 74곳을 '외국인근로자 자 녀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파트3.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기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서울시는 자체 기준에 맞추어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시설을 지정하는데, 이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인 '다문화 아동'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가 포함됩니다.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교육기자재 비용, 아동 및 부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어린이집 2곳에서 시작해 2017년까지 총 55곳을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외 다른 지역에서도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문화 아동'의 범위는 저마다 다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외국 국적의 아동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별도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주아동도 입소할 수 있는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 여파로 한국 국적 아동의 수가 적어지면서 일반 어린이집들도 이주아동을 더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원아 모집 포스터를 다국어로 번역하거나 포스터에 국가별 국기 이미지를 넣는 등 적극적으로 이주아동 대상 홍보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다문화 통합 보육을 특화한 어린이집의 특성

• 재정 운영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한국 국적 아동이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은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재정 운영이 안정적입니다. 한국 국적 아동들은 아이행복카드로 부모 부담 보육료를 결제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늦게 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또한 멀리 이사를 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 이주아동 보육료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통합 어린이집'처럼 행정 권고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해주는

어린이집도 있고, 드물지만 자체적으로 이주아동의 보육료를 낮게 책정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낮춘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동의 보육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은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며 사회에도 좋은 귀감이 됩니다.

• 아동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다른 아동들의 옷차림, 놀이 방식, 음식, 체취, 피부색 등에서 다양성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특성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점차 낯선 감정들이 줄어들면서 국적이 다른 아동과도 편하게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 이주아동과 한국 국적 아동이 함께 또래집단을 형성합니다

이주아동들은 초등학교에 가면 한국 국적 아동들과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그 전부터 한 국 국적 아동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또래집단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에서 이주아동들은 한국 국적 아동들을 사귀고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또래 한국 국적 아동이 좋아하는 캐릭터, 노래, 만화 등도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이 6~7살이 되면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찾아서 옮기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들은 보통 한국 국적 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 입학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 한국 국적 부모들이 이주민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키는 한국 국적 부모들은 대부분 다문화 통합 보육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수업 등 이주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이주민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는 통역 때문에 프로그램이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도 이주민 가족을 배려 해줍니다.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파트3.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기

3) 일반 어린이집

이주아동이 이렇게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다문화 통합 보육을 내세운 어린 이집에만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 아동과 마찬가지로 일반 어린이집에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대부분 보육료가 저렴하고 이주민을 잘 이해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1)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자녀에게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좀 더 비싼 보육료를 내더라도 자녀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프로그 램이 있는 어린이집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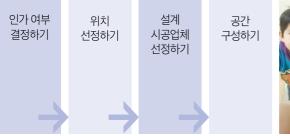
원어민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수영·발레·스포츠·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이 있는 어린이집,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 숲 놀이 활동이 많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곳을 알아본 후 자녀를 입소시킵니다.

(2) 유아교육 트렌드에 맞는 어린이집

부모들은 유아 교육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아동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려 합니다. 보육료는 물론 프로그램 비용도 추가되지만, 이러한 부담을 안고서라도 트렌드를 따라가려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다른 한국 국적 아동들과 비슷한 경험을 통해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또래들과 공감대를 잘 형성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2.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설립





1) 인가 여부 결정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설립한다고 해서 다른 어린이집과 인가 절차와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는 어린이집의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미리 인가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확 인할 사항, 인가 및 미인가 어린이집의 특성을 알아 봅니다.

(1) 어린이집 인가 신청

지역의 인가 편성 상황 확인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인가 편성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인가를 낼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 여성가족과 등 어린이집 설치를 관할하는 부서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희망하는 지역에서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 공무원에게 왜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왜 꼭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린이집의 상황을 정기적인 방문과 유선, 이메일 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집 인가 유형을 선택

현재 인가 어린이집의 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으로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할 때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는 어린이집 운영 규모, 운영주체, 대상 아동, 운영예산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시설 규모 등 어린이집이 갖춰야 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와 공간을 선정하기 전에 인가 유형부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이자 사단법인인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가 운영하는 곳이지만,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 어린이집' 유형을 선택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창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20명 미만이었고,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파트3.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기

인가 어린이집의 특성

• 재정이 안정적입니다

인가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사들의 경력이 다른 곳에서도 인정되다 보니 교사를 선발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어떤 이주민 부모들은 인가 어린이집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같은 국적 사람들과 의 커뮤니티를 통해 인가 어린이집의 안전시설, 아동 대비 보육교사 수, 표준보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그에 따른 추가 업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외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가 어린이집의 기본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사업 관련 행정 업무도 진행하기 때문에 교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감당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미 반 정원이 다 찼는데 입소가 절실한 이주아동을 만나면 교사는 난처합니다.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동 대비 교사 수와 반 정원은 반드시 규정대로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서는 만0세 반 정원이 다 찼는데 급한 사정의 만0세 이주아동이 입소를 신청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인 데다가 한부모 가정이라서 아동의 보육은 절실하지만 이 아동을 입소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만 0세반을 추가 개설하려고 해도 교실 공간이 부족하고 교사를 새로 고용할 여건도 안 됩니다.

이럴 때 미인가 어린이집이라면 교사들과 새롭게 업무 분담을 하거나 보조교 사나 봉사자 등 추가 인력을 구해서 아동을 보육할 수 있지만, 인가 어린이집 에서는 규정상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2) 미인가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상황이 인가 기준과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민센터 건물 안에서 이주아동을 보육하고 싶은데, 해당 시설이 어린이집 인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가 기준에 맞춰 시설을 바꾸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은 인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인가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인가 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고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아껴 그만큼 보육에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센터 내에 보육시설이었다 보니 이주민 부모들과 소통이 원활합니다.

외부 지원사업 담당 인력이 필요합니다

미인가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모금을 할 수도 있고 외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외부 지원금의 예산 비중이 높거나 관련 기관이 다양할 경우 관련 업무도 매우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아예 별도의 담당 인력을 갖추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보육교사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인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은 다른 어린이집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미인가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사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미인가 어린이집은 교사를 채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주아동과 다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교사로일해 보고 싶다."는 문의전화가 왔는데, 미인가 시설이라고 상황을 말하면 "죄송하다."면서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 국적의 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면, 언어소통이 원활하며 보육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강사 자격증도 있고, 이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해본 경험이 풍부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계획, 교구 개발, 수업 진행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민으로서 자녀를 키워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준이 매우 높으며 한국어도 대부분 능숙합니다. 다만, 한국어로 쓰인 표준보육과정의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인가 어린이집도 똑같은 보육시설입니다

미인가 어린이집은 열악한 시설이나 불법적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의 보육권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기에 표준보육과정을 엄격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히려 더 헌신적인 교사들이 미인가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치 선정

이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장시간 일을 하느라 자녀를 오전 일찍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해가 다 진 뒤에야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주민이 많이 일하는 공단 지역에 설립하는 어린이집이라면 공단까지 가는 대중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이 조금이라 도 짧아지고 아동들도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 휴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에게 안전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을 집중 단속하는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미등록 이주민들은 등하원 길을 매우 불안하게 느낍니다.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단속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이주민센터나 이주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중 단속지역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 보고 이를 피해서 어린이집 위치를 선정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설립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실외 놀이 활동이 있어서 매일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했습니 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자주 단지 안에 찾아오고 외국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느 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주민을 낯설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여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주아동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파트3.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기

아파트 주민위원회나 운영회, 관리회 등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참여해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해당 주민이 언제든지 어린이집과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어린이집이 설립된 뒤에도 놀이터 가는 길이나 등하원 길에 자주 만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교사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아동들도 교사를 따라 주민들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주아동의 성장을 따뜻하게 지켜본다면, 이주민과 아동들은 지역사회에 더 많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보육 교직원들의 노력이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활동 장소가 가까우면 더 좋습니다.

어린이집 건물 부지에 마당이 있을 경우 여기에 실외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놀이터가 있는 위치에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이때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터인지도 확인해 야 합니다.

또한 아동들이 산책을 나가서 바깥공기를 마실 만한 장소가 있는지도 알아 봅니다. 실외 활동은 모든 아동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매일 장시간 어린이집 안에서 지내는 이주아 동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실외활동이 하루 중 유일한 외출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광이 좋은 위치를 선택합니다

오전 8시 전에 등원해 저녁 7시가 넘어 하원하는 아동들은 오전 30분, 오후 30분 실외활동 외에는 햇볕을 쬘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실내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동들은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실내에서도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지는 않는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위치인지 확인합니다.

위치를 확정하기 전에 지자체와 상담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역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역시 새로운 공간의 후보 장소를 선정한 뒤 시청 보육시설팀에 현장 답사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 답사를 통해 직접 보완사항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과 만나는 시간은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지자체에 알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3) 설계·시공업체 선정

여러 업체들로부터 프로필과 포트폴리오를 받고 회의와 자문을 통해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어린이집의 유형과 건물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설계·시공업체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습니다.

- 1. 공사에 대한 면허와 보험, 증권 보유
- 2. 최근 1~3년 내 어린이집 설계 및 공사 경험과 그 밖의 공사 경험
- 3. 시공 관련 예산 운영을 위해 도면 제작 및 시공 단계에서 비교 견적 가능 여부
- 4. 노유자 시설(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업무를 포함 한 건축허가 업무 가능 여부
- 5. 어린이집이 예상하는 기간 내에 공사 진행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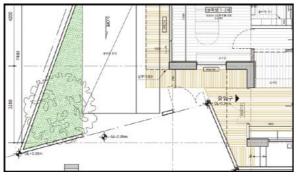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변경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기준에 맞춰 공사를 하는 것도 어려웠고, 건축물 변경과 관련된 행정절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은 업체의 건축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기준에 맞는 설계업 체들을 1차로 선정한 뒤 업체별 미팅을 통해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운영 목적과 철학을 이해하고 설계에 녹여 내고자 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4) 공간 구성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주아동의 특성과 보육 환경에 맞추어 공간을 설계합니다. 특히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인가 기준을 먼저 숙지하고, 이를 지키면서도 어린이 집의 특성에 맞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설립 경험이 있는 원장들에게 현장 방문 및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가 기준을 지키면서도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방법을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역시 여러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육실이나 비상대피로 면적 등을 넉넉히 마련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을 한다면 채광과 환기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지도상에는 주변에 아동 유해시설이 없어도 실제와는 다르니 꼭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등, 경험으로부터 나온 자문이 어린이집 위치 선정 및 공간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다양한 유희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

이주아동들은 저녁 7시가 다 돼서야 하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이주아동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유희실을 넓고 다양하게 만듭니다

아동이 매일 10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 지내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실외활동으로는 충분한 에너지 발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 시설이나 마당이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라면 하루에 두 번씩 실외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희실을 넓게 설계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유희실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1·2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층 유희실에는 놀이기구를 아무것도 두지 않아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였고, 2층 유희실에서는 아동들이 여러 신체활동 기구를 활용해서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들이 1층과 2층 유희실에서 번갈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를 많이 발산할 뿐 아니라 덜 지루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각 교실마다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유희실에는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동들이 가정에서처럼 가만히 앉아 휴식을 취할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각자 푹신한 쿠션이나 소파에 편하게 눕거나 앉아 영상을 봅니다.



통합보육을 고려해 공간을 구성합니다

오후 간식시간 이후 통합보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원하지 않는 아동이 많아서 교실이 비좁아지며 이에 따라 교실 면적 대비 아동 수가 초과해 통합보육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교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 정원 대비 교실 면적을 넓게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실에 비치하는 교구장은 바퀴가 달린 제품을 골라 교구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교실 공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2) 개별화 학습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간

아동들은 저마다 인지·신체 발달, 한국어 수준이 다르며 또래 아동들과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일 대일 개별화 학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는 아동이 교사와 단 둘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화 학습 공간에는 다른 놀잇감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과도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간은 개별화 학습을 하지 않을 때 교사 휴게실 로 사용할 수도 하고, 전염성 질병이 있는 아동이 등원한 경우에 격리 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 습니다.



(3) 교사들의 업무 피로를 줄여 주는 공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들은 보통 근무 시간의 약 30%를 환경 미화, 교구 개발, 수업 준비 등에 사용합니다. 교사들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하원을 하고 통합보육이 진행되는 오후 시간 동안 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이주아동들은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하원하기 때문에 교사 역시 근무시간 대부분을 보육에 매진해야 합니다. 보육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라면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보육교사들의 동 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조금이라도 덜 피곤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주방에서 제일 가까운 공간을 만0세반 교실로 정했습니다. 교사가 자주 주방에 가서 이유식을 만들거나 분유를 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0세반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기저귀를 갈아 주거나 몸을 씻기는 일도 많아서 아예 교실 안에 세면대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문도 여러 곳에 설치했습니다. 아동이 유희실에 있든 교실에 있든 바로 화장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을 보살피는 교사의 동선도 줄어 들었습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교구를 자주 바꾸게 됩니다.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아동들이 실내 자유놀이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교사가 교구를 바꾸거나 정리할 때 보다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육실 가까이에 교구 창고를 마련했습니다.

(4) 부모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신발장 옆 작은 도서관을 만듭니다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부모가 가장 많이 머무는 어린이집 입구나 신발장 근처의 공 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이주민 부모들의 모국어로 쓰인 동화책과 그림책들을 지원받아 이 책들을 신발장 근처에 비치했습니다. 아동이 하원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는 책을 고르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국어 책을 대여하면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 아동은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신발장 근처에는 장난감들도 여러 개 비치해 대여해 주었습니다. 한국 국적 부모들은 지인이나 친척에게 장난감을 물려받기도 하고, 지역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주민 부모들은 장난감이나 교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장난감과 교구를 대여해 주면 가정과의 학습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근육을 발달시켜야 하는 아동은 가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위한 도구를 배치합니다

평소에 교사가 부모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때는 등하원 시간입니다. 한국어가 서 툰 부모들과는 전화로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대화의 시간 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하원 시간 동안 잠시라도 부모와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신발 갈아 신는 현관문 근처에 테이블이나 의자, 푹신한 방석 등을 마련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언제든지 부모와 소통하고 싶은 어린이집의 마음을 보여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3.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수립

1) 반 편성

인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정원기준대로 반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주아동들의 잦은 입퇴소로 인해 안정적으로 반을 편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들이 한꺼번에 퇴소해서 반 한 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동의 수가 너무 적어서 해당 반을 유지하기 어려운데도보육이 시급한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해서 계속 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연령별 반편성 시 반별 정원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출처: 2018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아동을 추가 모집해 반을 구성합니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새로운 이주아동이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는 해당하는 연령대의 반이 없습니다.

인가 어린이집은 시행규칙에 따라 반별 정원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아동을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반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아동 한 명을 위해서라도 반을 새로 만들고 싶지만, 교사를 추가 채용하기에는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부모에게 같은 연령대 아동들을 더 모아 오도록 제안해 봅니다. "같은 연령대 아동들이 더 오면 교사를 고용해 임금을 주고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잘 보육할 수 있어요."라고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부모는 같은 국적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닐 만한 아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이주민센터에도 상황을 알리고 해당 연령대 이주아동을 모집합니다. 특히 이주민센터는 지역 내 여러 국적의 이주민들과 다양하게 만나기 때문에 홍보의 범위가 더넓습니다.



미리 지역 이주아동 현황을 파악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세우는 새 학기에 이주민센터와 함께 회의를 해서 지역 이주아동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지역에 집에서만 자녀를 육아하는 이주민 가정이나 곧 출산 예정인 이주민 가정은 없는지 알아 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려하는 부모가 많다면 만 0세반 개설을 검토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예산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집에서 육아하는 가정이 많다면, 이주민센터를 통해서 자녀가 몇 살 때쯤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지 상담하고 내용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이주아동의 연령대나 이주민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면 어린이집 반 편성에 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입소 순위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합니다

어린이집의 설립 목적,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해 입소 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입소 순위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이주아동만 보육합니다. 그 중에서도 입소 1순위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이주아동입니다. 입소 2순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입니다. 가족의 체 류 상황이 불안정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 다. 3순위는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이며 법무부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이주아동입니다.

정원의 일부를 늘 비워 둡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이미 다 찼는데, 미등록 이주민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이주아동이 갑자기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엄마는 당장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조차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만나게 됩니다. 보육료가 저렴한 어린이집과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 어린이집 입소 신청이 늦어져 긴급한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보육이 시급한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한부모 가정의 이주아동을 위해 정원의 30%를 비워 둡니다.

물론 이렇게 정원을 다 채우지 않으면 보육료 수입이 줄어 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어린이집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금 비워놓고 이 때문에 운영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기부금 등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육 운영 시간

지역 이주민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합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설립한다면 운영시간을 정할 때부터 지역 내 이주 민센터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 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센터의 자문을 받으면 '요즘 제조업 분야는 잔업이 필수인 듯하 다.', '요즘에는 주간 일자리가 별로 없고 야간 일자리만 있다.' 등의 정보를 듣고 부모들 의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적정 보육시간을 만듭니다

설립 초기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잔업을 하는 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간보육까지 운영하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예산이 넉넉지 못했고, 교직원의 노동 시간도 길어져 원장과 교사가 모두 점점 지쳐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이 야간 보육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보육을 중단하는 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 중 몇 명은 매일 저녁 9시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엄마는 잔업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 지 1년이 흐르자 엄마는 직장에서 신뢰를 얻었고 고용주나 직장 상사와도 친해졌습니다. 육아 경험이 있는 상사와 함께 자녀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매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자녀의 상황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어린이집이 이제 야간 운영을 하지 않아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하자, 해당 사업장은 엄마를 잔업 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 부모가 사정을 이야기할 경우 때로는 고용주가 잔업을 요구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상사와 동료들이 부모에게 힘을 실어 주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이처럼 부모와 1년,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적정한 보육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다른 기관에 연계합니다

때일 긴 시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면서 마음이 편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상황이 열악하면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때로는 모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모들의 사정 때문에 어린이집이 무리하게 야간 보육을 하면 전체적인 보육의 질이 낮아지고 교사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보육시간 을 운영하기보다는 야간 보육이 가능한 다른 어린이집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어린이집의 형태는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야간 보육 어린이집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국어가 서툰 부모들은 직접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의 주소와 연락처 리스트를 직접 제공해 주거나 다른 어린이집 상담이 수월하도록 이주민센터와 연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

(1)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험

누구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입소한 아동 모두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의 생명신체담보'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국적 및 외국인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모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버스를 대절해 야외체험학습을 갈 때 여행자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매일 통원차량을 운영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합니다. 이때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2) 외국인등록아동의 보험

보험 적용 기준 및 항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법무부에 외국인으로 등록한 아동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 아동과는 보험 혜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규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모와 내용을 공유합니다.

(3)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대안 마련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문제를 부모와 미리 상의합니다

통원차량을 운영하는 어느 어린이집은 미등록 이주아동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의 비용 문제에 대해 부모와 함께 상의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아동이 해당 사고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과 같은 액수를 어린이집이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차액은 부모가 부담한다.' 등 각자의 책임을 서면으로 적어 부모의 서명을 받아 놓습니다.

더욱 철저히 예방에 힘씁니다

제대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예방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돌볼 때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의 건강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야외체험학습을 나갈 때는 따로 봉사자를 섭외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더 많이 돌보도록 합니다. 봉사자에게는 아동의 상황을 알려 주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진행합니다. 봉사자는 체험 장소를 오가는 차량 안에서 해당 아동의 옆자리에 앉고 체험활동 중에도 아동을 계속 지켜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찰자가 많아지니 보육교사들의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긴급한 의료비 지출에 미리 대비합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예비비를 마련해 놓습니다. 또한 예비비마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긴급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 둡니다.

이주아동에게 의료지원서비스를 해 주는 의료기관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은 해당 의료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협력을 맺은 의료기관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 북 뒤편에 있는 지역별 '협력상담소 리스트'를 참고하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통원차량

통원차량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위치 선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통원차량 운영이 어려울 때는 더욱 신중하게 어린이집의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대중교통 편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들이 매일 대중교통으로 어린이집과 직장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통원차량 운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주민들이 직장을 많이 구하는 군포공단 인근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다행히 공단과 교통이 편리한 거주 지역에 사는 이주아동들이 많이 입소해서 차량 운행에 대한 수요는 없었습니다.

공단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도 통원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이주민들의 근무 지역을 감안해 공단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과는 가까워도 거주 지역과의 거리가 멀다면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가족 대부분이 공단 지역 안에 살고 어린이집이 공단 지역 밖에 위치한 경우에도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통원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교사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새로운 교사가 왔습니다. 등원 인솔교사로 처음 통원차량에 탑승했는데,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교사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교사는 그 뒤에도 1시간 가까이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전 어 린이집에서도 통원차량 인솔을 했고 차멀미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통원차량이 지나는 공단 지역의 길은 매우 꼬불꼬불한 비포장도로 였습니다. 게다가 이 교사는 이주아동들을 처음 보육했는데, 하필 밀폐된 차 량에서 여러 이주아동들의 체취를 맡다 보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 황이 겹치면서 심한 멀미 증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사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동들을 즐겁게 보육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보육교사에게도 적응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라면 통원차량 지원을 다녀온 후 30분 정도 쉬도록 합니다. 이때는 다른 교사가 대신 아동들을 돌보거나 다른 반과 통합하여 오전 간식 시간을 갖는 등 어린이집 일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 배치를 조정하거나 통합반을 운영하는 등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교사는 초기에는 통원차량 운행을 지원한 뒤 30분씩 휴식을 취하다가 3주 정도 지나서는 20분만 휴식하게 되었으며, 한 달 후에는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어도 될 만큼 적응했습니다.

통원차량을 타고 오는 아동에게 휴식시간을 줍니다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동들도 매우 힘이 듭니다. 특히 연령 대가 낮을수록 차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놀잇감이 있 으니까 놀긴 하지만 차 안에서 시작된 멀미와 피로감이 가시지 않아 아동은 자꾸 예민해 지고 칭얼거림도 많아집니다.

아동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통원차량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원차량을 타고 등원한 아동은 교사와 함께 휴식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놀이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되도록 정적인 놀이를 제안합니다.



자동차보험의 혜택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외국인 등록을 한 이주아동은 자동 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에 따라서 보험 혜택 의 적용 항목과 범위, 치료비 지원금 등이 한국 국적 아동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 험에 가입할 때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보육료

부모들과 함께 적정한 보육료를 정합니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일반 어린이집보다 30% 이상 보육료가 저렴합니다. 이주민 부모들이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도 바로 이렇게 저렴한 보육료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지역의 이주민 부모들과 모임을 열고 함께 논의해서 보육료를 정했습니다. 당시 모임에 참여한 이주민 중에서는 자녀를 어린이집 에 보내 본 경우도 있고, 보육료가 부담되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 습니다.

모임에서 부모들은 일반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비용을 부담했으며 이를 위해 얼마나 더일을 해야 하는지, 주간 업무만 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어느 수준의 보육료가 적당한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모들의 경험과 소득 수준을 정확히 알고 보육료를 정하면 부모들에게 부담이 덜 가고 어린이집도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보육료 납부가 늦어진다면 가정 상황을 파악합니다.

보육료 납부가 자꾸 늦어지는 부모에게 매번 보육료에 대해 말하는 것도 참 불편한 일입 니다. 이럴 때는 교사가 부모와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는 마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는 미납한 보육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기로 하고 부모와 함께 납부 시기를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사가 보육료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 지 않아도 되고, 부모도 계획적으로 보육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 라서는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일시적으로 낮추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료 부담으로 자녀를 퇴소시키려는 부모를 설득합니다



사례1

어린이집 생활을 잘 하던 아동이 장염과 감기로 1주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되어 다시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는 '어린이집에 그만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보육료 부담 때 문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큰돈을 병원비로 지출했고, 입원 한 자녀를 돌보느라 엄마는 결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아빠의 수입만 으로 생계를 이어 가야 하고 병원비 때문에 진 빚도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에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000 사례2

둘째를 출산한 부모가 첫째 자녀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민 부모는 자녀 두 명의 보육비를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첫째 자녀도 집에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주민이 외벌이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역시 너무 벅찬 일입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은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에 더욱 힘이 듭니다.





이주민 가족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열악해지면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 아동들처럼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퇴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주아동들이 보육료 때문에 퇴소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참 어린이집은 이런 경우 아동의 퇴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봅니다.

일단 부모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일시적으로 보육료를 감면해 줍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의 보육료를 낼 수 있는지 부모가 직접 제안하도록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직접 제안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제대로 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집니다. 어린이집 역시 부모의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낮은 보육료만 받아도 아동을 건강하게 보육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가 입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보육료를 부담할지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책정합니다.

보육료 감면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보육료를 감면하는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 보육 예산을 확보하고 지출은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했던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내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한편 이럴 때 보육교사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레 계획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추가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감면해 줄 수밖에 없는 이주아동의 상황을 교사들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목적인 '이주아동의 보육권'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원아 모집 및 입퇴소

1) 원아 모집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은 일반 어린이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주민 부모들은 수시로 입소 문의를 하기 때문에 원아 모집 시기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집 홍보를 할 때도 방식과 내용, 주의사항이 일반 어린이집과 다릅니다.

원아 모집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일반적인 어린이집 원아 모집 시기에 대해 잘 모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자녀를 입소시킵니다. 그래서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도 시기를 정해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기존 아동이 퇴소하여 어린이집 정원이 비었을 때마다 원아를 모집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원아 모집을 홍보할 만한 협력 기관 등을 알아 보고 미리 협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어린이집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큰길 가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육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눈에 잘 띄는 어린이집 간판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신분 노출이 두려운 미등록 이주민 부모들은 이를 보고 어린이집 입소를 주저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근처에는 단속이 나오지 않지만, 이주민들은 주변 지역에 단속이 강화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어린이집을 노출시켜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 아시안 마트, 이주민센터 등의 장소를 활용해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내용은 한국어로 쓰지 않습니다

원아 모집 홍보물에 한국어로 '비자가 없는 이주아동을 우선순위로 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미등록 이주민 부모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역시 단속 때문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라고 알려지면 아동이나 가족의 신변이 노출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아동만을 대상으로 원아 모집을 할 경우, 체류 자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원아모집 포스터

보육료에 대해 꼭 언급해야 합니다

보통 어린이집들은 원아 모집 홍보물에 보육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라면 꼭 보육료에 대해 알려 줘야 합니다. 이주민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보육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원아모집 홍보물에 보육료에 대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 2명 이상 입소할 경우 보육료가 더욱 저렴해진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입소

(1) 입소 상담

각국 언어로 된 입소 상담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원아 입소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 입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상담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이때 자료는 각국 언어로 번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권, 외국인등록증, 건강검진표등 입소 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명칭과 관련 설명을 번역해 두면 안내가 편리합니다.

명칭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여권	passport	Hộ chiếu	护照
입소신청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Đơn xin nhập học	入学申请书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hứng minh thư người nước ngoài	外国人登陆证
건강검진결과서	health Examination results	Kết quả khám sức khỏe	健康检查证书
예방접종확인서	Vaccin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tiêm phòng	预防接种 确认书

또한 응급처치동의서, 급간식 알레르기 식품조사서, 영유아 표준 예방접종 기록 등 부모가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들 또한 각국의 언어로 미리 번역해 비치해 놓으면 좋습니다.

번역해 놓은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관련 서류를 미리 제공하고, 한국어를 잘 하는 친구나 이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작성해 오도록 안내합니다.

이미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설명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프로그램, 준비물, 부모 협조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되도록 이미지를 많이 보여 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한국어가 능숙하다고 할지라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도 다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어 이미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소개자료 이미지

입소 상담을 하러 온 부모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을 갑자기 준비물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을 들어도 자녀에게 안전한 내용인지 잘 몰라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 체험' 프로그램이라고만 설명하면 어떤 부모는 정글 같은 곳에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감놀이' 프로그램이 있다고만 말하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자녀의 안전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교사가 사진을 활용해서 안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자세히 알려 주면 도움이 됩니다.

통역을 활용해 정확하게 소통합니다

부모의 한국어가 서툴다면 '입소 상담을 할 때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과 함께 와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지역 이주민센터에 통역을 요청합니다.

하원 시간에 맞춰 상담을 잡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같은 국적 부모에게 통역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같은 국적 부모는 육아 유경험자로서 더 생생하게 정보를 전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망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부모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함께 어린이집을 둘러보면서 부모가 희망하는 보육환경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계획과 어린이집의 보육 방향이 맞는지, 어린이집 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물어 봅니다.

어린이집의 환경이 부모의 기대와 달라서 아동이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해당 아동은 여러 차례 힘들게 적응기를 거쳐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부모의 바람과 맞지 않는다면 입소절차를 밟기전에 다른 어린이집을 추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소서류 준비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 등록 신청서

부모들은 자녀를 입소시킬 때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해서 신청서 양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출생 증빙서류

부모들은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 등록 신청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증 명서 등 자녀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예방접종 확인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주아동도 등록 여부와 상 관없이 각 지역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예방접종 확인서 역시 보건소 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러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보건소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교 사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소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어린이집에 제출할 예 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니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 는 이 종이를 보건소의 담당자에게 보여 주면서 보다 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서

건강검진 결과서도 필요합니다. 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만 보여 주면 영유 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비급여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어린이집 다니려면 꼭 필요해요."라고 말하면 검진을 진행해 줍니다. 그러나 때로 는 비급여로 검진을 받겠다고 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평소부터 어린이집에 우호적인 소아과 병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방문할 수 있어 좋고 어린이집도 제때 서류를 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좋습니다.

(3) 입소절차 진행

한국 국적 아동은 이미 보육통합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주아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만드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외국인의 경우 고유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아동정보 입력 요청

해당 지자체의 어린이집 아동입소관리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 등록 신

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당 아동 정보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마련해 줍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외국인 등록번호를 대신해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이후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변경 하더라도 고유식별번호는 최초 부여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3) 퇴소 및 결석

이주아동은 퇴소가 잦은 편입니다. 입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국적 아동들이 함께 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소 사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부모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비를 아끼려고 다시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근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 이 강화되자 부모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모국으로 자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부모가 여러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뒤 자녀의 어린이집을 옮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더 좋은 보육환경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가 거주지를 바꾸면서 자녀를 퇴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갈등이 벌어진 부모가 자녀를 퇴소시키자 같은 국적의 부모들도 모두 자녀를 퇴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퇴소라면 부모를 잘 설득합니다

부모가 생활고나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퇴소시킨다면 다시 고민하도록 교 사가 잘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거나 아예 아동만 멀리 자신의 모국으로 보내는 상황이라면, 정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정인지 충분히 대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험과 자극이 필요하고, 또래 아 동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에게 잘 설명합니다.

결국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퇴소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서 친구들과 놀게 하거나 책이나 장난감을 빌려 가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또래 아동과의 관계, 새로운 자극·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에게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동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퇴소라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어린이집과 부모 사이에 오해가 생겨 퇴소하는 경우라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의 오해가 왜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퇴소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부모와 만나서 오해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집과 만남을 거부하고 계속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다면 부모가 자주왕래하는 이주민센터 등을 통해 상담 연계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동의 장기 결석에 미리 대비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한 달 넘게 명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동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부모의 모국에 다녀 온다고 했는데 한 달 이상 결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부모의 비자 연장이 나 변경 때문에 함께 자녀와 모국에 잠시 다녀 온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동이 장기결석을 할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니 어린이집 운영예산 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큰 명절의 날짜나 가족별 비자 만료 시점 등을 기록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아동이 고국에 다녀 와야 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 예비비를 마련해 둡니다. 아동이 한 달 정도 뒤에 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난감합니다. 마침 반 정원이 꽉 차서 보육이 절실한 이주아동이 입소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부모가 모국에서도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메신저 채팅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예상 시기보다 한국에 늦게 입국할 경우 꼭 어린이집에 연락을 하 도록 부모에게 당부합니다.

어린이집을 옮기고 싶어하는 부모를 도와 줍니다

아동이 어떤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할지 부모상담을 통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함께 퇴소시기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 입국한 이주아동들은 일단 이주아동들이 많은 어린이집에 입소하지만, 부모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자녀를 한국 국적 아동들이 많은 어린이집으로 옮기 고 싶어합니다. 이때는 부모와 아동에 대한 보육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예상 퇴소시기 를 정합니다.

또한 중도 입국 사례가 아니더라도,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도와 주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동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잘 옮길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함께 퇴소시기를 정한 뒤에는 옮기고 싶은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장 또는 이주민센터 활동가가 앞으로 옮겨갈어린이집에 연락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가정 배경이나 체류상황을 미리 다른 어린이집에 공유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새 어린이집에서 한국 국적 아동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퇴소할 때까지 한국어는 물론 단체생활 규칙, 감정 표현 방법 등을 잘 가르칩니다.

5. 보육교사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어느 원장은 보육교사 채용 면접을 할 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나요?"라는 질문을 꼭 합니다.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 교사와 원장이 이주아동 보육의 어려움을 이겨 낸 가장 큰 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동도 함께 돌보기 때문에 안전과 식사 문제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때로는 개별화 수업 및 교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언어소통이 어려워 가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지만, 그럴 때에도 교사가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순간에도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장은 이주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 채용 과정, 필요한 자질, 노동환경, 교사 교육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실제로 이주아동을 보육하는 보 육교사, 원장, 보육시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1) 이주아동 보육교사 채용

채용 공지에는 아동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채용 공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서툰 아동이 있다거나 개별화 학습이 필요하다는 등의 상황도 자세히 알

려 줍니다. 그러면 교사들도 그러한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채용에 응하게 됩니다. 학습법 연구 및 개발에서 보람을 느끼는 교사, 다른 언어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비언어적 의사 소통을 잘 하는 교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보육 사이트나 이주민센터를 통해 채용 공지를 올립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보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채용 공지를 올립니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지역 이주민센터나 인권단체 들을통해 채용 공지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지역 사회활동과 아동인권에 관심이 많은보육교사와 인연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 보러 왔을 때 어린이집 상황을 보여 주세요

채용 면접을 보러 온 교사가 잠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보육 모습을 지켜보도록 합니다. 이주아동을 처음 만나는 교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아동이 많이 있는 교실의 모습도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 국적 아동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만남은 아주 잠깐의 경험이지만 교사가 어린이집 근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용 이후 수습 기간에 대해 미리 혐의합니다

3개월 정도는 수습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수습 기간에 대해서도 미리 이 야기하고 협의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이주아동 보육 경험이나 사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흔하지 않다 보니 동료들에게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막상 일을 해 보면 교사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어린이집 환경이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퇴사를 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 래서 교사가 실제로 일하면서 수습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동적인 근무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립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아동의 입퇴소가 잦은 편이었고, 그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조건 도 바뀌곤 했습니다. 갑자기 운영예산이 줄어서 정교사를 보조교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입소해서 새롭게 반을 편성하다 보니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변동될 때도 많습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상황에 따라서 늦은 저녁에 상담을 진행하거나 주말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있는 보육교사들은 평일 근무시간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고정적으로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일요일 근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채용 전에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반차·대체휴가 등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 주어야 합니다.

2) 이주아동 보육교사의 역량

이 내용은 이주아동을 더 잘 돌보는 교사가 되기 위해 역량과 자질을 키워 온 현직 보육교사들 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교사는 일을 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많이 듣게 됩니다.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주아동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어떤 교사는 이주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얼마나 높은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비급여로 병원비를 내는 상황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병원에 가면 정말 집안이 휘청하는구나. 그래서 자녀만 고국에 보내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어린이집이 왜 그렇게 아동의 건강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아동의 권리와 이주아동의 현실에 대해 공부하면, 아동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열 심히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만 2세가 되면 아동들이 사람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자각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주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들은 혹시 자신에게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편견을 가지고 아동을 대했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보고, 반 아동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만일 편견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왜 생겼는지 그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이 학습하고 경험하면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심하게 아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관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과 언어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행동을 관찰해서 아동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이 한 말을 흘려듣지 않고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인지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민감하게 아동의 건강을 관찰할수록 아동들은 더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의 질병을 잘못 알고 있을 때에는 교사가 세심하게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정확한 질병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판단을 바로잡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제대로 아동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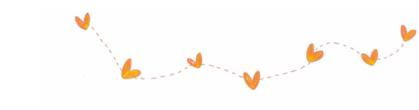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더 많이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찾아야 하고, 교사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나 풍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이주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 생활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아동의 다른 생활문화에 대해서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물어 보거나 인터

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아동들을 보육하다 보면 문화적 차이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업 자료와 교구를 만들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 는 것도 즐겁습니다. 부모들과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가정과의 양육 연계도 수월해집니다.





3) 이주아동 보육교사를 위한 노동 환경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교사들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이 시설 운영 및 재정 상황을 교사들과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 기부금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경우에는 이 같은 상황을 자세히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사업들은 교사들의 일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지원사업은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동안 의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도 빠듯해집니다.

이때는 교구개발 비용이 줄어들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의 변화가 교사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외부 지원을 많이 받는 어린이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기부금, 결과보고서, 사업 심사 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은 사업 심사 과정을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외부 기부금이 없으면 어린이집 재정이 얼마나 부족해지는지, 그래서 보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교사에게 잘 알려 줍니다. 최대한 빨리 기부금을 받도록 도와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함께 잘 버텨 보자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교사의 업무를 잘 분담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사가 체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룹 수업과 개별 수업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생소한 기부금 관련 업무까지 맡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 교사는 보육에 집중할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교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체류 관련 상담은 이주민센터와 바로 연계하고 교사는 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별화학습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봉사자를 섭외합니다. 보조교사를 구하거나 사무 인력을 채용하기로 하고 인건비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개인적 특성과 역량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구 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사도 있고, 한국어 수업에 큰 보람을 느끼는 교사도 있습니다. 계산에 자신 있어 회계 업무를 도와 줄 수 있는 교사가 있고,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나 보고서 작성이나 사례 관리 업무를 도와 줄 수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아동 수가 많지 않아도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주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교사의 보육시간도 매우 길 어집니다. 교사가 일지 작성, 수업 준비, 환경미화 등의 보육 외 업무 때문에 야근을 하거 나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 아동 수가 많지 않아도 보조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상황은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4) 이주아동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

(1) 다문화 이해교육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합니다

교사들이 다문화 이해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은 영유아 보육에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문화 이해 교육의 프로그램 횟수가 매우 적은 편이며 해당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찾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등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들을 찾아 봅니다.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교육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 화 관련 정책 및 연구자료, 설명회 등의 정보도 풍부해서 다문화보육의 최신 동향을 파악 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보통 다문화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구축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협업과 자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보육 컨설팅을 받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 보육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문화보육 컨설팅은 '취약보육 보육과정 컨설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그룹 또는 일대일 미팅을 통해 어린이집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안을 논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어린이집과 아동의 상황에 맞는 자문을 받아 실제 보육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 시행 여부를 파악해 봅니다. 시행계획이 없을 경우 먼저 사업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 역량강화 교육

동료 교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합니다

교사가 보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동료들과 함께 대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 환경과 예산에서 가능한 대안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같은 어린이집의 교사들입니다.

자신이 이주아동에 대해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닌지, 혹시 자신의 말이 부모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지, 아동을 위해 연구한 교육계획이 맞을지 등 교사들은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교사와의 스터디에서는 아동인권, 다문화감수성, 부모상담, 수업연구 등 주 제를 나누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고민 내용, 동료들과 고민을 나눈 과정 등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다른 교사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분야별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동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현재 어린이집이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 프로그램 강사, 아동치료 전문가, 전문 봉사자 등으로부터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딱 맞는 교육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전문가들은 여러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아동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 사들은 전문가들의 교육을 통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보육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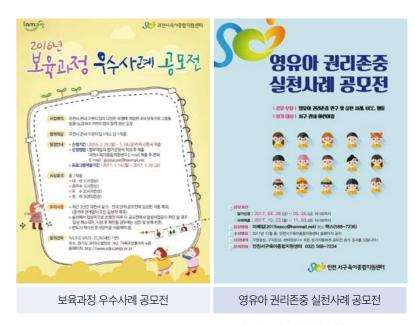
해외연수를 통해 아동의 문화적 배경을 경험합니다

교사가 직접 아동들의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도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 집도 있습니다.

이때 교사들은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생활을 직접 겪으면서 아동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동의 조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 나라의 어린이집에 방문해보기도 합니다. 짧은 해외연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다른 문화에 대해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육 관련 공모 프로그램에 참여해 봅니다

우수 보육 프로그램 사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사례, 보육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등 교 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프로그램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교사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더욱더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모에 당선되어 수상을 하면 교사의 자긍심이 더욱 크게 높아집니다.

(3) 이주 관련 교육

이주민센터와 연계해 교사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역 이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이주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주민센터가 먼저 이주아동 관련 워크숍·간담회 등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이 이주아동의 건강·심리를 주제로 워크숍과 교육을 진행할 때는 이주민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주민들의 체류 화경에 대해 공부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주민 가족들의 비자 형태가 어떤 것인지 이주민센터와 함께 기록하고, 비자 형태에 따른 관련법과 복지 혜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기획해 봅니다

교육의 형태가 꼭 강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이주 관련 영화제에 갈 수도 있고, 이주민이 등장하는 영화·연극·뮤지컬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주민센터 활동 가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주민에 대해 알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자조모임이나 동아리, 다문화 축제 등 관련 행사에 봉사자로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4) 비영리단체 관련 교육

비영리단체 교육에 참여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외부의 기부금을 많이 받는 어린이집이라면 교사들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만 일해 온 교사들에게는 비영리단체의 의사결정 구조나 조직문화, 회의방식 등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조직문화를 알아 가기 위한 이론 교육은 큰 도움이 됩니다.

비영리단체 행사에 참여합니다

외부 지원사업 설명회, 오리엔테이션이나 기부자 행사 등에 교사가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이집에 기부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의 행사라면 직접 기부자들을 만날 수 있고,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세부 진행사항을 들으면서 교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5) 아동권리교육

보육교사들은 이주아동을 돌보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권리의 측면에서 아동을 관찰하고 보육을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때 아동권리와 관련된 교육들을 받으면 아동권리 옹호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옹호 활동에 참여합니다

아동권리옹호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아동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은 물론 캠페인, 영화제 등 다양한 활동이 연 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읽고 토론회 등 행사에 참여하면 교사는 이주아동 권리와 실태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진행 한 이주아동 인식개선 캠페인 사진 아시아의 창

아동권리 옹호 전문가 양성교육에 참여합니다

아동인권 옹호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기본·심화과정을 거쳐 전문가 과정까지 수료하면 아동인권 기준에 맞추어 사례 관리는 물론 프로그램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주아동 보육교사들을 위한 보상과 동기 부여

충분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근무체계를 마련합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자주 추가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에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늦은 저녁에 부모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노동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픈 아동이 등원해 더 신경을 써서 돌봐 줘야 하고, 중도 입국한 아동을 위해 개별화 학습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동 강도가 높아질 때는 교사도 쉬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보통 아동들과 함께 생

활하기 때문에 반차나 외출, 대체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제대로 쉬고 에너지를 채워야 아동들에게도 더 좋은 보육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일을 대신할 인력을 지원하거나 통합반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가 대체 휴가나 반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마련합니다. 미리 대체교사 지원계획을 세우고 교사들이 이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를 풀어 주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사들의 피로감을 풀어 주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육아종합 지원센터들이 보육교사를 위한 테라피·힐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에는 여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즐거운 수다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함께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이 집 공간을 나와 긴장을 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진솔한 마음을 알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는 보육교사, 원장, 관계자들이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좋은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애니어그램(인간성격유형) 테스트를 다 함께 받아 보면 '이래서 저분이 그렇게 행동했구나. 내가 했던 배려가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 이주아동 보육교사들과 교류한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다른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만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아동을 돌보면서 느꼈던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교사는 '우리 사회에 나처럼 이주아동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생각하고 든든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주아동을 돌보면서 성장한 동료 교사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자신의 성장도 기대하게 됩니다.

이주아동과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인권·이주민·아동 등의 분야에서 이주아동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과 교사들이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주아동을 건강하게 키우는 보육교사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들으면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www.mihu.re.kr 이주아동관련 정책 및 연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gamdonglove.org 이주아동 관련 법제도 개선활동 및 법률연구



국제아동인권센터 incrc.org 아동인권옹호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

6. 자원 활용과 모금

1) 외부 기관과 연계한 자원 활용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지원사업에 참여해도 사업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지 늘 걱정을 안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여러 예산항목 중에서 제일 급한 인건비부터 책정하고 나면 보육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빠듯해집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 일대일 돌봄과 개별화 교육이 필요한 아 동이 다닌다면 해당 아동을 위한 외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이 때문에 이주아동 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다양한 외부 자원을 활용하려 노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 셈이지만 그만큼 기쁨도 큽니다.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주아동에게 정말 필요한 자원이 연결될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 개인과 협력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동들을 키우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든든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외부 지원사업 수행 방법

외부 자원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비영리단체나 관련 기 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 지원사업 탐색하기

지원사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만이 아니라 공모배분사업, 지정기탁사업, 기획사업, 긴급사업 등다양한 용어로 불립니다. 그만큼 지원사업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 공모배분사업 정해진 기준과 과정에 맞추어 공개적으로 참가 단체를 모집하고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기부금을 배분합니다.

• 지정기탁사업 개인 또는 기업이 기부금의 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지정해 기

부금을 배분합니다.

• 기획사업 한 가지 특정 주제와 대상자를 선정해 기부금을 배분합니다.

• 긴급지원사업 긴급의료지원, 긴급생계지원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참고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다양합니다

보통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단체들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역 기반의 단체 또는 특정 분야의 협회나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의 형태와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물품 기부, 재능 기부, 전문 인력 및 서비스 지원 등의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운영기관 예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아이쿱생협 www.icoop.or.kr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www.smilegatefoundation.org

지원사업은 의료·심리·언어·놀이·교육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직접 기부금을 모금해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재단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이주민센터와 연계해 어린이집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사업 찾아보기

• 다양한 분야의 검색어를 활용합니다

이주아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이주민, 다문 화, 인권, 권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지원사업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 대상에 따른 키워드

아동, 이주아동, 이주민 자녀, 한부모 이주민 자녀, 장애 이주아동, 이주배경 아동, 외국인 자 녀, 외국 국적 자녀, 다문화자녀,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자녀, 난민 아동, 무국적 아동, 유 학생 자녀, 미등록 이주아동, 취약계층 자녀 등

• 상황에 따른 키워드

다문화, 외국 국적, 이주노동, 복지 사각지대, 건강보험 미가입, 아동인권, 아동권리, 외국 국 적 아동출생신고, 무비자, 무국적, 외국인 등록 등

• 특정 분야에 따른 키워드

이주아동보육, 이주아동교육, 이주아동심리, 이주아동의료, 이중 언어, 이주 관련법 등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주아동'이라고 대상을 명시한 지원사업을 찾을 수도 있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주노동자'와 같이 조금 더 대상 범위가 넓지만 이주아동이 해당되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관 기관을 발굴합니다

위와 같은 키워드를 조합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관련 웹사이트나 뉴스, 연구보고 서, 블로그, 영상, 서적 등 다양한 자료가 나옵니다. 때로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지원사 업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브리프' www.sc.or.kr

예를 들어 이주아동 관련 연구보고서에 실린 참여 기관 리스트를 보고 지원사업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전문가의 활동 및 소속 단체를 보고 지원 사업 기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고 정보망을 확대합니다

news.jtbc.joins.com

아동·이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단체·기업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습 니다.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유관 기관도 리스트에 포함시켜 정보망을 확대하는 것이 좋 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기관들의 소식과 공모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 게 하면 놓치지 않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활동들을 살펴 보면서 사업의 흐름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소식지(뉴스레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 등 각 기관들이 운영하는 홍보 채 널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사에 직접 참여해 봅니다

관심 있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설명회나 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등에 가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사업에 대해 새로운 영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제안서에 대해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시 확인 사항

공통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곳의 비전과 가치가 어린이집의 운영 목적 및 보육 방향과 잘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기간 동안 건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을 하는 단체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도 모두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원사업마다 신청 자격과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라도 사업마다 신청 자격과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 자격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및 기관, 시설'을 명시합니다. 어린이집의 시설 형태나 종류, 정부보조금 비율, 보육대상 아동 등이 자격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을 맺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도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신청기관은 아시아의 창이며, 수행기관은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으로 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수행 역량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제안서는 어린이집의 인력 및 업무분담 상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제안서를 쓸 때 어린이집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인력과 환경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이때는 원장, 교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 때문에 교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경우 추가인력을 편성하거나 업무를 조정하기로 하고 미리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안서 작성을 위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서 어린이집이 해당 지원금을 통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알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 제안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안 서를 함께 작성하거나 자문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지원사업을 신청해 본 어린이집을 방문해 자문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안서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이나 자문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지원과 자문이 있다는 것은 어린이집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이 지역 내 다른 단체들에 확장될 가능성도 더 높은 셈입니다.

따라서 제안서 작성은 물론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업하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단체 및 개인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업

기업에 기부를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5 기빙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 중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곳은 33.4%입니다. 또한 기업 3곳 중 1곳은 비영리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16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백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비영리단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다양한 방식으로기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1 기부를 제안할 기업 발굴

사업의 관련성이 높은 기업을 찾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들 중에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 성이 높은 곳을 찾아 기부 제안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필요 하다면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기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기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이 필요하다면 아기용품을 만드는 기업에 기부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린이집 상황과 잘 맞는다면, 기업이 먼저 기부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한 게임업체로부터 놀이터를 기부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재미'라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아동과 재미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놀이터 공간을 떠올린 것입니다.

또한 장난감을 기부한 장난감업체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장난감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 강과 발달 환경이 취약한 아동을 위해 장난감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찾 던 중에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이터 제안서

공통 경험이 있는 기업을 발굴합니다

어느 기업은 이주민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이주아동을 위해 기부를 해 주었습니다. 공장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들의 상황도 자세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경험이 있을 때는 기업이 사업 내용을 공감하기 때문에 소통이 수월합니다. 특히 위의 사례에서는 기업이 이주민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통의 경험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기부를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없는여행'과 함께한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모습

사회공헌팀이 있는 기업을 찾아 봅니다

사업 제안서를 작성했는데 기업의 어느 부서에 보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별도의 사회공헌 담당 부서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협회나 위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해당 부서나 조직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업 제안서 작성하기

공모 형식의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먼저 기부를 제안하는 경우라면, 따로 정해진 제안서 양식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제안서의 양식을 만들고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기업의 담당자는 어린이집 내부 환경이나 일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습,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동들의 모습, 다른 기관과 연계했던 활동 모습 등 이미지 자료를 많이 활용하면 설명이 한결 쉬워집니다. 다만 아동의 이미지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요약본을 꼭 작성합니다

큰 기업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부 제안서를 받기 때문에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 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해 놓은 '요약 제안서'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사회적 기대효과를 강조합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를 설명할 때는 기업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개념을 활용해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지속가능개발목표'처럼 널리 알려진 개념을 사용하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아동에게 야외 나들이 프로그램을 위해 기부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 맞춰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구와 교육 자료를 기부하는 것은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며, 지속가능개발목표의 4번째 목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증진 기회 실현'에 해당합니다.



출처 : 유엔 UN

(3) 지역 내 기관

지역 이주민센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지역 내 이주민센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함께 이주아동 사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센터는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주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주민센터가 이주아동과 관련된 지원사업 소식을 먼저 접하고 어린이집에 알려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어린이집은 이주민의 상황을 더 잘 알게 되고 이주아동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공시설의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평생학습원, 자연학습장 등 지역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어린이집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시설을 이용해 보았기 때문에 이주민 부모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시설 담당자나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주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력을 모색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서 지역 의료기관과 연 계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평소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 중에서 지역민들에 관심이 많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병원을 알아봐도 좋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반 보험급여 수준의 비용만 받고 치료를 해주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에서는 건강검진 등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아동에게 우호적인 단골병원과 협력합니다

이주아동에게 우호적인 지역 병원은 어린이집의 단골 병원이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이 같은 병원을 부모에게 소개해 주면 부모들은 그 병원만 계속 다닙니다. 어린이집도 사고 발생 시에 같은 병원을 이용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오랜 기간 보살피게 됩니다. 아동의 성장 과정도 지켜봅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져 자연스럽게 협력관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팀이 있는 의료기관에 협력을 제안합니다

대형 의료기관에는 보통 사회사업팀을 두고 있으며, 팀에 속한 의료사회복지사가 무료 진료나 봉사, 진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지원팀이나 국 제진료팀 센터가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 같은 부서들을 통해 이주민과 이주아동을 위 한 무료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활동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이주아동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규모 등 이주아동의 건강 실태에 대한 정보는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아동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고령층 대상 사업과 연계해 봉사자를 발굴합니다.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같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어린이집 봉사를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에서 일부 인건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요리를 잘 하는 시니어 봉사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회계 관련 경험이 있어 어린이집의 재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시니어 봉사자도 만났습니다.



군포시니어클럽 www.gunpocsc.org

한국시니어클럽협회 www.silverpower.or.kr



(4) 비영리단체

지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국내 비영리단체 및 기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특성을 파악해 함께 협력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부모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상담을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법률적 문제로 힘들어 한다면 관련 법률상담을해 줄 만한 비영리단체를 소개해 줍니다.

이주민센터들은 저마다 노동, 이주여성, 의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정책연구, 이주아동 등 특화된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이주민센터들이 각자 어떤 분야에 특화됐는지 미리 알아 두면 자문을 구하거나 정보를 얻는 것이 수월합니다.

부모와 같은 국적 직원이 있는 비영리단체를 파악합니다

부모와 같은 국적의 이주민이 상근 직원으로 일하는 비영리단체를 알아 두면 부모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오해가 생겼을 때도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자원봉사자

1 자원봉사 활동 제안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전공을 중심으로 발굴합니다

지역 내 대학교에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NGO학과, 아동학과 등 이주아동과 관련된 학과를 중심으로 봉사자들을 발굴해 봅니다. 해당 학과의 학회나 봉사 관련 동아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 및 관심사와 연관된 활동이라면 봉사자의 열정과 보람은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이라면 중어중문학과 대학생들이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자료 등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이주아동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전공을 살려 보육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한 글이 늦은 아동과 함께 한글놀이를 합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물감을 이용해 오감놀이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진행하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자원봉사 활동은 정규 수업보다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개별화 학습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줍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학교 사회복지사를 통해 제안합니다. 이때는 청소년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집 환경미화를 요청할 수 있고, 노래를 좋아하는 청소년에게는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캐럴을 불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능력을 살려서 활동을 제안하면 청소년들은 '나의 재능이 누군가를 기쁘게 해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사의 즐거움과 보람도 더욱 크게 느낄 것입니다.

지역 단체·기관을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합니다

지역 단체나 기관을 통해 봉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협에는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조합원들이 봉사자가 되면 야외 체험학습을 갈 때 아동과 일대일 짝꿍이 되어 주기도 하고 어린이집에 방문해 동화구연활동을 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주민 엄마들에게 육아 멘토 역할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부모 모임, 육아맘 모임, 핸드메이드 모임 등이 있어 이런 모임에 자원봉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자원봉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자원봉사자 관리하기

봉사활동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요청합니다

인가 어린이집은 봉사활동 내용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거나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꼭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지 확인하고, 봉사자에게 이를 안내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봉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봉사자가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봉사를 하지 않거나 날짜를 미루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봉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봉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반의 규칙이나 아동의 상황 등에 대해 알려 줍니다. 되도록 봉사자가 만나게 될 아동의 담임교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체 봉사활동이라면 단체의 대표자를 교육하고, 청소년 봉사활동이라면 인솔교사를 교육합니다.

봉사활동 범위에 대해 미리 협의합니다

자칫 봉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관찰을 맡았던 봉사자가 담임교사의 보육 방식에 대해 언급하거나 수업 진행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사가 아닌 다른 어른이 갑자기 개입하면 아동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정한 규칙이 흐트러질 염려도 있습니다. 어느 범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할지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인솔교사와 동행하도록 합니다.

청소년들이 봉사자로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인솔교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을 수록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주어진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인솔교사가 없으면 보육교사가 청소 년들까지 돌봐야 합니다. 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 봉사자와 어린이 집 아동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됩니다.



서로가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린이집은 자원이 부족해 기부금, 기부물품, 자원봉사 등을 먼저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을'은 아닙니다. 이주아동을 돌보는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그렇다고 고집스럽게 어린이집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보다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과 지원을 하는 단체, 개인 기부자, 기업 등 서로가 동등한 '파트너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파트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외부의 여러 관점을 반영해 보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조직과 사업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보육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교사와 어린이집이 에너지를 소진한다면 자칫 이주아동 보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의 성과를 다 이루는 것보다 이주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아동의 행복은 수치화해서 보여 주기 어렵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요구된 사업 성과측정지표가 실제로 달성하거나 측정해 기록할 수 있는 것인지 미리 검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수치화된 정량적 평가만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추가해 아동의 변화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은 기부자에 대한 기본 의무입니다. 어린이집이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보고서나 서류가 많이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가 아닌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기부를 받으면 해당 물품에 기업 로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현금출납부, 정산보고서 등의 여러 문서를 작성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평가를 위해서 대상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부금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면서 책임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대해 보고합니다.

2)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기부자 모집

지원사업의 기간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짧으면 1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지원이 끝난 뒤에도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자립방안을 계획해 실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집 스스로 기부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1) 온라인 홍보

SNS 채널을 활용합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어린이집의 상황을 알립니다. 이때는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계정을 만들어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주민센터와 같은 유관 단체의 채널과 연계해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기관과 연계해 홍보하면 내용이 더 많은 곳에 확산될 수 있지만, 유관 단체의 성격에 맞추어 홍보 내용과 이미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을 활용합니다

온라인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그룹과 같이 특정 주제로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공통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정보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그룹을 통한 홍보도 좋습니다. 지역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한 번쯤 홍보 글을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육아정보 카페를 통해 어린이집 상황을 알리고 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아동 이슈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역의 이주아동은 자녀의 친구가 될 수도 있기에 더욱 자연스럽게 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금마련 행사

(2) 오프라인 홍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만나봅니다

미취학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있을 만한 장소를 활용해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키즈 카페와 연계해 테이블에 기부 안내 리플릿 등을 비치합니다.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 놀러 오는 지역 축제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 비슷한 연령대 아동들, 같은 지역에 사는 아동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비영리단체 행사에 직접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들은 음식장터, 바자회, 콘서트 등 정기적으로 모금행사를 진행합니다. 비영리단체를 통해 이주아동 어린이집 후원을 위한 모금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참여자들에게 면대면으로 어린이집 기부 필요성을 설명한다면 행사 후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연계해 홍보합니다

육아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모금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전체 주제에 맞추어 홍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주제가 '애착 형성하기'라면, 높은 보육료가 부담스러워 고국에 자녀를 맡기고 애착 형성 시기를 놓친 이주민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한 번은 지역 내 어린이집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과 이주아동 보육의 실태'라는 주제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마치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주아동이 많은 줄 몰랐고 이런 어린이집이 있는 것도 몰랐다.'면서 기부 신청을 한 교사와 원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보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기부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3) 모금홍보 작은 팁

기부금의 쓰임새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위해 기부해 주세요." 보다는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위해 공기청 정기를 기부해 주세요.",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위해 유기농 식자재를 기부해 주세요." 등 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지 명확할수록 어린이집의 투명성이 돋보입니다. 또한 기부자들도 이주아동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자 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꾸준히 홍보하세요

SNS 채널과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꾸 준히 홍보하다 보면 직접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부자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당장 공기청정기를 기부할 형편이 안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이 집의 사정을 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 유기농 식자재를 기부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건강한 식자재를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기부의 종류 및 기부자 관리

1 기부의 종류

현금 기부

현금 기부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기 기부는 매월 계좌이체나 CMS(기부자의 동의 하에 매일 정해진 날짜에 기부자의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는 방식)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물품 기부

물품을 기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육아를 해 본 부모들에게 중고 아동의 류나 아기용품, 유모차 등을 기부받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에게 물품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물품 기부는 현금에 비해 부담이 덜하고, 자사 제품이 소중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합니다.

물품만이 아니라 시설을 기부받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경우 교구와 같은 물품을 기부받기도 하고, 비상대피로·미끄럼틀 등과 같은 시설을 기부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품목들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품 기부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 기대 효과, 물품 관리방안 등을 담아 제 안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업 및 개인을 찾아 내서 제안서를 보여 주면서 지원 을 요청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품기부

서비스 기부

서비스 기부는 기업 또는 개인들로부터 서비스를 기부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IT기 업이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거나 키즈카페 업체가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키즈카페를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은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문화공연 사가 아동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보여 주는 등 체험학습이나 보육프로그램을 기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 기부

개인들이 직접 참여해 어린이집의 업무를 도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은 외부 프로그램이나 야외 체험 등에서 아동을 일대일로 돌보거나 보호합니다. 어린이집 청소, 환경미화 등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주아동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게 통번역을 해 주는 봉사자도 있고, 직접 아동의 국가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어 다문화교육을 해 주는 봉사자도 있습니다.



(5) 기부자 관리하기

기부금 사용 내역을 자세히 공유합니다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받을 때 어떻게 언제 사용할지 밝혔다면, 계획대로 기부금을 사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들은 월 정산을 통해 기부자의 규모, 기부금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부자들에게 공유합니다. 비영리단체로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알리는 방법입니다. 어린이집도 이처럼 최대한 투명하게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유해야 합니다.

물품 기부를 받았다면 아동들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부자에 게 전달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보여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라면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해 주는 기부자들도 있지만, 그런 기부자들도 사진을 보면서 한 번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기 기부자들과는 정기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기 기부자들에게는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어린이집 소식을 정기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린이집이 안정되는 과정을 알게 되면 기부자들이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SNS 채널을 통해 소식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정기적이며 꾸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자들과 직접 만납니다

기부자들과 직접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똑같은 감사 인사라도 이메일을 통해 하는 것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기부를 통해 구성된 어 린이집 공간을 보여 주는 것도 좋고, 외부인 참관이 가능한 어린이집 행사에 초대하는 것 도 좋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매년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가 진행하는 모금행사 및 총회 등을 통해 기부자들을 만나고, 어린이집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부자들과 함께 준비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을 보면 기부자들이 사업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어 소통이 더욱 수월해집 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먼저 현장 방문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현장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 우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거나 직접 해당 단체나 기부자, 기업 등을 찾아가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측이 비영리단체들의 지원사업 방식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잘 모를 경우 관련 내용을 배워 나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창 뉴스레터 내 어린이집 소식글



미인가 시설 운영부터 인가 어린이집 설립까지

이주아동과 함께 울고 웃다 보니. 어느새 '인가 어린이집'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이 처음 문을 열었던 2013년, 그 시작은 빌라 건물의 작은 집이었 습니다.

아동들이 노는 방과 사무실, 부엌이 올망졸망 나뉜 13평의 공간. 아동들은 한 방에 모여 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사들이 회의를 하려면 무릎을 세우고 바짝 당겨 앉아야 했습 니다. 그래도 교사들은 건물 복도에 스티로폼 박스를 놓고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자연체험 학습장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계단은 높고 가팔랐습니다. 아동들이 오가다 안전사고라도 날까 봐 교사들은 늘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나갈 때는 어른 3명이 필 요했습니다. 한 명은 어린이집, 한 명은 1층에서 각자 아이들을 인솔하고, 남은 1명이 차 례로 아이들을 데리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낡은 빌라 13평의 집... 그래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의 부설 기관입니다. 아시아의 창 이주 민센터는 1993년 안양 지역에서부터 이주민 인권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처음에는 노동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이주민과 함께 웃고 울던 세월 동안 지원사업도 점점 확장되었습 니다. 이주민의 삶이 다양해진 만큼 활동도 많아진 것입니다.

혈혈단신 한국에 들어왔던 이주민들은 어느새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 나 이주민 부모들은 매일 밤늦게 일해야 했고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서 친구나 이웃에게 자녀를 맡겼고, 부부가 주야로 근무하면서 자녀를 돌보기도 했습니 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도 같이 놀아 주기에는 부모들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동은 지친 부모 옆에서 TV를 보면서 놀았습니다.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가 어린이집을 만든 것은 이주민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함께 아동을 맡아 줄 어린이집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주아동을 선뜻 받아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주민센터는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동들은 지금 당장 돌봄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어린이집을 번듯하게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공간이 바로 빌라였습니다.

빌라 공간은 이주아동들의 소중한 쉼터였습니다. 아동들은 이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영유아기는 이제 막 발달을 시작하는 시기라서 변화의 폭도 큽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아이는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살던 아이도 조금씩 튼튼해졌습니다. 아동들에게 어린이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현실적으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재정이 불안정한 미인가 시설이었습니다. 미인가 어린이집은 심지어 교사 모집 활동조차 어렵습니다. 한 번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교사 모집 공지를 올렸다가 '미인가 시설 모집 공지는 올리면 안 된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미인가 시설이 많은 이주아동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지역 내 생협에서는 아동 이불과 수건부터 교구까지 정말 많은 물품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원 요청 글을 올렸더니 젖병, 로션이 들어왔습니다. 이주아동 어린이집을 응원하는 정성어린 손 편지도 함께 왔습니다.

그래도 파손되거나 더러워진 물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만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빠듯한 식재료를 지원해 준다는 곳이 있었는데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예정된 식단에 맞춰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부를 제안한 곳에서도 이런 뜻을 이해하고 매달 10만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며, 이주 아동 보육을 함께 만들어 가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가장 큰 파트너는 '아름다운재단'입니다. 2014년 말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운명처럼 아름다운재단을 만났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권리 지원사업'을 고민하던 아름다운재단은 이주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가장 큰 어려움이 공간이라는 데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을 파트너로 맞이했습니다.

이주아동을 함께 품어 준 참 고마운 사람들

두 기관은 힘을 합쳐 군포시 내에 좋은 집터를 찾아다니고 건물 구조변경 공사에 들어 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의 위치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심하지 않은 곳, 이주민 부모들이 도보로 쉽게 등원을 할 수 있으며 직장과도 가까운 곳이어야 했습니다. 공간의 상황도 꼼꼼히 따졌습니다. 바깥활동이 어려운 이주아동들을 위해 햇볕이 잘 들고 마당이 있는 집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서야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파트3.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기

구조변경 설계 과정에서도 세심한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언어치료나 정서치료가 필요한 이주아동들을 위한 개별화 수업공간을 두었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유희실을 크게 설계하고, 햇볕을 잘 받도록 통유리창을 사용했습니다.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동선 설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막상 시공에 들어가 보니 손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벽 두께가 얇았고 기둥의 철근도 녹슨 상태였습니다. 구조 보강에 집중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졌습니다. 후원행사를 열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딱 필요한 때에 딱 필요한 만큼 기적처럼 기부금이 채워졌습니다.

시공이 마무리가 된 후 안전 마감 장치 설치, 이사 및 교구 정리 작업은 지역의 이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주민들은 새 공간이 완성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2017년 1월 새로운 시설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집 건물은 연령대별로 방을 만들어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각 반에는 연꽃, 목화, 매화 등의 꽃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꽃들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국적국 국화들입니다.

설립 이후로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딱 맞춰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기업, 단체에서 꾸준히 교구와 생활용품을 후원해주었습니다. 물품이 부족하면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 페이스북이나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등에 사정을 알렸는데 그때마다 바로 후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유지 보수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이 역시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해결했습니다. 건설사의 도움을 받아 비상대피로 경사도를 낮추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이어린이집 마당의 벽화를 그려 주기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옥상 방수나 지하실 시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더니 비가 올 때 물이 새거나 차 올랐습니다. 그럴 때는 지역 이주민들이 함께 물을 퍼내 주었습니다.



이제 자립을 고민하는 단계... 어떤 경우에도 아동이 최우선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아시아의 창어린이집은 여러 기관에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다행히도 한 곳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군포시로부터 외국인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교사인건비 지원을받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설득을 해 왔고, 감사하게도 2019년부터 군포시로부터 교사 1인 인건비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겁나지 않습니다. 다 해결방법이 있 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귀하던 미인가 시절부터 교사를 채용할 때 꼭 물어 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나요?"라는 것입니다. 이주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동을 최우선에 놓고 생각하면 문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들도 그렇게 풀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09A30HII St 031-443-2876

이주아동 보육가이드북



아름다운재단·아시아의 창 담당자 이야기 참고할 만한 정보 (이주민 지원기관 정보) 기관 및 재단 소개 참고문헌·도움주신 분들

🦚 लक्षण्डमार 🔻 🗪 🔻



3년 동안 이주아동 함께 돌본 환상의 짝꿍



어린이집은 전국 곳곳에 숱하게 많지만,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한 곳을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 다운재단과 함께 협력하며 이주아동을 돌보았습니다. 지난 3년 간 아시아의 창은 어린이 집 운영과 기록, 모니터링을 맡았고, 아름다운재단은 공간 구입과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맡았습니다.

두 단체의 활동가들이 함께 온 동네에 발품을 팔아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단독주택은 2017년 1월 개소한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새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15 명의 이주아동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역량도 함께 자랐습니다.

많이 성장한 만큼 새로운 과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도 아시아의 창 어린이 집이 자립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사례를 널리 전파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주아동 보육권을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3년의 협력 사업을 무사히 진행하고 종료를 눈앞에 둔 지난 2018년 11월, 두 단체의 활동 가들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의 이영아 소장과 김나희 간사,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의 홍리재희 팀장과 이형명 간사가 함께 모여 좌담을 나눴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열악한 사각지대, 이주아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①. 아름다운재단이 어린이집 공간 지원을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홍리재희** 팀장(이하 '홍리재희') 이주민과 관련해 지원되는 경우는 주로 3가지 유형이더라고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아동이죠. 그런데 살펴보니 이 중에서도 이주아동의 상황이 가장 열악했어요. 그리고 이주아동 어린이집들의 상황을 알아 보니 공간이 없으면 아동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어렵겠다 싶었고요.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이형명** 간사(이하 '이형명') 전문성은 있되 완벽히 세팅된 것은 아니라서 재단이 들어가면 시너지가 날 곳을 찾으려 했어요. 인구학적인 측면이나 지리적인 측면도 고민했고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재단과 거리가 가까운 서울·경기권을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이 있는 군포시는 이제 막 이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같이 이슈를 세팅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0. 아름다운재단을 만났을 때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상황은 어땠나요?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 **이영아** 소장(이하 '이영아') 2012년에 이주아동 실태조사 사업을 했는데, 후속으로 어린이집을 떠올렸어요. 과연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마침 그때 예산이 2천만 원이 있어서… 음… 당시에는 그게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웃음) 이걸로 활동가들 급여를 올릴까 새로운 사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어린이집을 열었죠.

그러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분을 찾았는데 다들 거절하셨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할 걸 잘 아니까요. 결국 어렵게 원장님을 모셔서 2013년에 어린이집을 시작했어요. 사실 전 그냥 아이들만 잘 보살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해 놓고 보니 미인가 시설이라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가를 고민하던 무렵에 딱 아름다운재단을 만난 거예요.

홍리재희 정말 타이밍이 예술이었어요.(웃음)

좋은 어린이집으로 알려져서 멀리서도 찾아와요

①.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이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과 가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이영아 저희의 원칙은 아동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아동, 미등록이주아동을 입소 우선순위에 둬요. 제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아동이니까요. 또 모집정원을다 채우지 않고 일부는 남겨 놓아요.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죠.

아시아의 창이주민센터 **김나희** 간사(이하 '김나희') 외부에서 좋은 제안이 와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정중히 거절하기도 하고, 반대로 꼭 필요하면 새로 모험도 하죠. 그러면서 최대한 아동들의 다양한 상황을 포용하려 해요. 아동을 퇴소시키려는 부모들이 있을 때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설득하는 거죠.



아시아의 창 이주민센터 이영아 소장(좌) 김나희 간사(우)

0. 3년 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겠네요.

- 이영아 가장 큰 성과는 안정적 공간이에요. 그 전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이 큰방 하나여서 종일 그 안에서 머물러야 했거든요. 새 어린이집은 넓어지고 환해지고, 딱 들어서면 '따뜻함', '밝음'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 이형명 아시아의 창이 군포시나 경기도와의 관계에 적극 나서 주었어요. 군포시에 엄청 적극적으로 '이곳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인가가 날까요? 한번 와서 봐 주세요.' 이 런 식으로 여러 번 요청을 했죠. 그래서 새로 개소하자마자 바로 인가를 받아서 목 표를 조기 달성했어요. 평가인증도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는데 이번에 무려 A등 급을 받았고요.
- **김나희** 그동안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거주 지역이나 국적이 다양해졌어요. 이렇게 아동들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저희가 좋은 어린이집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변화는 부모님들의 여유로워진 얼굴이에요.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생계나 생존에 대해서만 고민했는데 이제는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지역단체만의 전문성 아시아의 창은 걱정 없어요

- 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조직의 역량이나 문화가 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그런 면에서는 아시아의 창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 이형명 이제 아시아의 창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죠, 뭐 (웃음). 사실 지역단체들은 특화된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 제안 능력은 큰 기관들보다 밀리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의 창은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 잘 하세요.
- 이영아 조직 문화적으로 달라진 점은요, 저희는 NGO이다 보니 그에 맞는 조직문화를 지향하는데요. 어린이집의 문화는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와 같은 경험이나 의사결정구조를 안 겪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차이는 앞으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홍리재희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이 참 놀라운 것은 서로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다는 점이에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을 기획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영역과 만나도 내공 있게 잘 하시겠구나' 싶었어요.

① 이제 3년 간의 사업이 모두 끝납니다. 이후 방향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영아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사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외국인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되는 것이에요. 현재는 군포시가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없지만, 최소 교사 1명의 인건비라도 받도록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해 주시는 곳과 공모 사업 등도 알아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다른 어린 이집, 다른 아동들도 모두 귀하기 때문에 이주아동 보육권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홍리재희 아름다운재단은 협력 사업 기간이 끝나도 단체 자립에 대한 고민을 해요.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간 지원이 사실 좀 부담이긴 하죠. 아름다운재단이 매 입한 건물이다 보니 이 공간이 부동산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는 위험하거든요. 아이들이 상주하니 안전관리 문제도 크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 공간은 쭉 지원하려 해요. 이주아동의 보편적 보육권리가 확보될 때까지, 아시아의 창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까지 는요.(웃음).



깊이 있고 폭넓게 사람을 볼 수 있는 일의 매력

Q. 이후 이주아동 보육권리 사업을 진행할 다른 단체들, 어린이집인 재단 등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 드려요.

홍리재희 건물은 꼭 신축을 사셔야 합니다.(웃음)!!! 농담이 아니라, 유지 관리가 참 힘들 거든요.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게 낫다 싶어요. 그리고 함께 할 파트너단체로 이 문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아시아의 창 같은 곳을 찾아라!

이영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꼭 하셔야 하나요?(웃음)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중독성이 있어요. 저희가 보육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주아동들을 보면서여러 가지 문제를 다 보게 되거든요. 건강, 교육, 출생, 부모의 환경 등등을요. 어렵기도 하지만 깊이 있고 폭넓게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빠져나오기 어렵죠.

김나희 초기에 저희가 손 편지를 쓰고 SNS에도 사연을 올리고 소소하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지역에도 많이 알렸고요. 이런 활동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방문한다고 하면 사실 인솔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이 커지기도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해 보면 이주아동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연계가되어서 지금 어린이집 에어컨도 군포중학교에서 주신거 거든요.



이형명 지원할수록 더 지원하고 싶은 게 아동 관련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재단도 한계가 있으니까 늘 아쉽고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린이집 내부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 소통 채널을 열면 좋겠어요. 물론 어린이집에 외부 인이 오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조금은 손이 가더라도 외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주민 의료서비스 및 협력기관 정보

•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의료공제회 www.wefriends.org

• **협력상담소** (기준 2019년 2월 12일)

협력상담소 명	전화번호
갈릴래아	031-494-841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까리따스이주민문화센터	032-427-7275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031-594-5821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032-654-0664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02-3672-9470 / 02-3672-9472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02-2282-7974
수원엠마우스	031-257-8501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1
순천이주민지원센터	061-726-9601
승리다문화비전센터	031-931-2062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아산이주노동자센터	041-541-9112
아시아의친구들	031-921-7880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031-495-2288
안산이주민센터	031-492-8786
안양엠마우스 이주민센터	031-441-8501
오산이주노동자센터	031-376-8289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02-795-5504
용산나눔의집(샬롬의 집)	02-790-1968
용인이주노동자쉼터	031-333-6644
의정부 EXODUS	031-878-6926 / 031-878-6981
이주민센터아시아의 창	031-443-2876
이주민센터 친구	02-6406-7179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031-403-0631
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032-765-1094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031-313-6249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	070-4543-2974
파주 EXODUS	031-948-8105,6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031-942-3760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031-536-2025
한국이주인권센터	032-576-8114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031-353-5491



• 희년의료공제회 http://jubileemedical.org

- 희년의료공제회란? 제도권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상호 부 조형식의 의료보험제도
- ※ 상호부조형식의 의료공제회란 회원들 간의 협력, 즉 성실한 회원의 의무 이행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
- 희년무료진료소 : 진료일정은 희년의료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업데이트 되며, 검사는 예약제로 운영. ※ 협력병원리스트 홈페이지 참고

이주아동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www.chest.or.kr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liscc.or.kr 세이브더칠드런 www.sc.or.kr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www.babo.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

프렌드아시아 www.friendasia.or.kr 플랜코리아 www.plankorea.or.kr

이주아동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법인·기관 고려인너머 www.jamir.or.kr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www.facebook.com/nyjshalom

무지개청소년센터 www.rainbowyouth.or.kr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www.achang.or.kr

살레시오수녀회 www.youthwelfare.or.kr

안산이주민센터 www.migrant.or.kr

오산이주민센터 **031.372.9301** 지구촌사랑나눔 www.g4w.net

이주아동 관련 국내 네트워크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보편적출생권리네트워크 www.ubrkorea.org

이주아동 관련 분야별 기관정보

통역

bbb 코리아 www.bbbkorea.org 다누리콜센터 1577-1366 (3자통화가능) 이주민통번역센터링크 051-818-5759

법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www.kpil.org 대한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minbyun.org

사단법인 두루 duroo.org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gamdonglove.org

이주외국인법률지원센터 migrantlaw.or.kr

재단법인 동천 www.bkl.or.kr

언론·방송·커뮤니티

MWTV 이주민방송 www.mwtv.or.kr

경기다문화뉴스 www.happylive.co.kr/danews

다문화공감뉴스 www.dmcnews.kr 다문화일보 www.damunwhaib.com 이주민방송 MNTV.NET www.mntv.net 한국다문화방송 www.kmbnews.co.kr

인권·실태·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www.iom-mrtc.org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www.gmhr.or.kr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국제아동인권센터 incrc.org

아시안프렌즈 www.asianfriends.org

이주민과 함께 somi.or.kr

이주민센터친구 www.chingune.or.kr 이주와 인권연구소 www.mihu.re.kr

보육·교육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www.cme.or.kr

다문화교육지원센터 mc.cbe.go.kr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bmec.pen.go.kr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meri.yu.ac.kr

중앙다문화교육센터 www.nime.or.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한국다문화교육학회 www.kame.or.kr 한국보육진흥원 www.kcpi.or.kr





아름다운재단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은 사람이 만듭니다. 기부자, 지역활동가, 아름다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재단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들의 염원을 담아 '작은변화'에 투자합니다.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사회참여, 안전, 주거, 환경의 8개 분야에서 단계별로 '작은변화'를 심고, 싹을 틔우고, 뿌리내리며,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꿈은 그리 대단하지도, 원대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은 '작은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현장에 뿌리내린 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두를 위한 시민의 재단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전화 02-766-1004

주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

아시아의 창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고유한 존재로 존중 받는 사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중

아시아의 창은 국적, 피부색, 종교, 성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이 권리와 기회에서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부와 국적, 문화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반대합니다.

상담, 정책개선, 보육, 캠페인, 교육을 통해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합니다.

아시아의 창은 이주민의 고충을 위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주민에게 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저희도 함께 성장해 갑니다.

아시아의 창은 이주민들이 살아가는 길 위에서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고자 합니다.

이 작은 언덕이 더욱 단단해지고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이주민과 봉사자, 후원자들과 함께 합니다.

달라서 아름다운 아시아의 창

 홈페이지 www.achang.or.kr

 전화 031-443-2876

 주소 15840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78 3층

달라서 아름다운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모든 아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동에게 생존과도 같은 권리입니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연혁 2013.10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보육사업 시작

2016.03 아름다운재단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협약 (2016.03~2019.12)

2016.10 어린이집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아시아의 창 후원의 밤' 행사

2016.12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공사 완공 및 이전

2017.01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개소식

2017.02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

2018.09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2019. 03 아름다운재단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공간 무상임대 협약 (2019.03~2024.03)

보육비 지원이 안 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만 고국에 보내거나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저희는 정부로부터 보육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국적 아동만 보육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이주민의 자녀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미등록이주민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먼저 부모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상담,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학교·기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 언니, 형을 만나며 아이들은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껴 봅니다.

13평 오래된 빌라에서 시작해 공간 이전과 인가, 아동의 잦은 입퇴소와 예상치 못한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상태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여전히 변화무쌍한 어린이집이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했기에 느낄 수 있었던 보육교사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은 한 어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사랑 받고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교사들은 따뜻한 포옹,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과 함께 어린이집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화 031-429-7706

주소 15839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00-2



참고문헌·자료

(재)한국보육진흥원 (2013)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문화보육 직무교육과정

(재)한국보육진흥원 (2014) 취약보육 보육과정에 기초한 다문화보육 컨설팅 매뉴얼

Carl A. Grant Christine E. Sleeter 저, 김영순(대학교수) 배을규 역 , 북코리아 (2013)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경기도 2018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제다문화인권포럼 (2017) 이주아동의 인권과 지역사회의 역할

경기도이주아동네트워크 (2018) 경기도이주아동법률연구사례집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8) 다문화 유치원 운영도움자료

김혜숙. 창지사 (2017) 유아다문화교육프로그램

메가원격평생교육원 (2017) 놀이지도

메가원격평생교육원 (2017) 보육교사론

메가원격평생교육원 (2017)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메가원격평생교육원 (2017) 아동권리와 복지

메가원격평생교육원 (2017) 언어지도

법무부 (2018)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법무부 (2018.12) 등록외국인 지역별·연령별 현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국회 (시행 2018.12.24)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2019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어린이집 설치운영 길라잡이

보육교사교육원대학협의회, 황재익·임재택 공저 (1996) 발달체크리스트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보육사업안내

아름다운재단 (2015) 기빙코리아

아름다운재단 (2016)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 현황 및 정책연구

유엔인권정책센터 (2012)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결 실태조사 보고서

이신동 (2017) 창지사, 다문화가정과부모교육

이신동·김진호·이상희·이경숙·차재경·이영 공저, 학지사 (2017) 다문화와 교사교육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추진 네트워크 (2015)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브리핑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 주요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조경자·안진숙·조은미 공저, 정민사 (2017) 유아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이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2013) 제 3차 표준보육과정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교육과학사 (2014)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단체 (2017) 외국인주민현황

사진

임다윤 표지, p13, p42, p55, p64, p69, p72, p75, p79, p81, p90, p92, p95, p122, p124, p127, p143, p147, p148, p152, p156, p158, p162, p169, p196, p205, p208, p220, p223, p229, p244, p255, p258, p261, p264, p268,

p288, p290, p291, p304, p305

김권일 p51, p105, p113, p115

도움 주신 분들

인터뷰·설문조사·아동 및 어린이집 운영 사례 공유

(주)더자람패밀리 이성아 대표이사

경산 키즈앙팡어린이집 박영미 원장 및 담임교사

군포 그림책시민모임 다락 유혜엽 대표

군포 넘버원체육교실 권정국 대표

군포시 가정·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기쁨지역아동센터 편지영 센터장

김영미 부모교육 강사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김설이 팀장·사회복지사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무지개어린이집 담임교사

다올어린이집 백성은 부원장 및 담임교사

심리사회적지원센터 아트온어스 송정은 대표·미술치료전문가

아사랑어린이집 추연화 원장 및 담임교사

안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김효숙 원장

안산시립대부어린이집 정소희 원장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취약보육지원팀

안산엠마우스어린이집 이순자 원장

엘림심리치료놀이치료 강향미 치료사

오산 다솜어린이집 김신자 원장 및 담임교사

오산이주민센터 오영미 목사

위씽아트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

前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김현주 보육교사

前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배상윤 원장

코시안의 집 어린이집 김영임 원장 및 담임교사

키즈랜드 어린이집 강희숙 원장

흥진중학교 김은주 학교사회복지사

아시아의창 어린이집 문미숙 원장 및 담임교사

자문

안산이주민센터·코시안의집 김영임 원장 안산시립대부어린이집 정소희 원장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발행일 2019년 4월

글 김나희

편 집 박효원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아시아의 창

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78 (당동) 3층 아시아의 창

ISBN 978-89-93842-44-9

아름다운재단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목표로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교육·노동·문화·사회참여와 통합사회·안전·주거·환경 영역의 4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www.beautifulfund.org

아시아의 창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

국적과 피부색,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고유한 존재로 존중' 받는 사회를 희망하며 이주아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이주민 상담·정책 개선·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www.achang.or.kr

